



2019 강원학 연구보고 8

남북 강원도 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자원 및 가치 발굴에 관한 연구

Understand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Kangwon-do Heritage in South and
North Korea

이창환
정기성

발간사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원학 관련 연구 논문 공모를 실시하여 강원학 기초토대 연구 주제로 적합한 6편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한편인 「남북 강원도 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자원 및 가치 발굴에 관한 연구」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강원도 유산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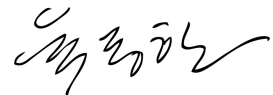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자연과 함께 하는 복합문화유산에 대한 등재를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북한은 이미, 설악산이 1994년에, 금강산과 주변 건축유산이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 잠정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어, 남북한의 자연과 문화를 어우르는 공동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강원도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기준 항목과의 연관성과 평가 기준 등을 검토하고, 복합유산으로의 가치 발굴 및 등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남북 강원도 유산의 보존 및 세계유산으로의 등재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집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창환 교수님, 정기성 교수님과 심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전문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강원연구원장



목차

요약문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II. 남북 강원도 유산 현황	7
1. 남북 강원도의 자연유산	7
1.1. 백두대간	7
1.2. 금강산	8
1.3. 설악산	13
1.4. 오대산	15
1.5. 석호	18
1.6. 기타 주요 가치적 자원	24
2. 남북 강원도의 문화유산	41
2.1. 종교 문화시설	41
2.2. 관동팔경	48
2.3. 비무장지대(DMZ)	54

3. 남북 강원도 자연 및 문화유산 조사 종합	61
3.1. 남북 강원도 자연유산 종합	61
3.2. 남북 강원도 문화유산 종합	62
Ⅲ. 남북 강원권 유산의 세계화 현황	67
1. 남한 유산 세계화 현황	67
1.1. 남한의 잠정유산 현황	67
1.2. 설악산 보호구역의 세계잠정유산 현황	68
2. 북한 유산의 세계화 현황	72
2.1. 북한의 잠정유산 현황	72
3.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따른 도출 가능 항목	76
4. 강원권 유산과 유사한 세계유산의 사례	78
Ⅳ. 결과 및 고찰	81
1. 문화유산적 가치	82
1.1. 사찰 및 불상 그리고 암자 등의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82
1.2. 회화 문화유산적 가치	93
1.3. 관동팔경의 유산적 가치	100
2. 강원권의 자연 유산적 가치	107
2.1. 강원권의 지질/지형의 자연 유산적 가치	107
2.2. 남북강원 산악의 유산적 가치	118
2.3. 남북강원 하천의 유산적 가치	121
2.4. 석호(瀾湖, lagoon)에 대한 유산적 가치	123
2.5. 백두대간 남북 강원권 유산의 생태자원의 가치	125
3.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의 유산적 가치	135

3.1. 비무장지대의 문화유산적 가치	135
3.2. 비무장지대(DMZ)의 자연유산적 가치	138
3.3. 민통선 지역의 지질 및 생태자원 가치	141
4. 남북 강원권 유산의 가치 발굴 종합	143
V. 남북 강원권 유산의 보존과 관리방안	147
VI. 결론	149
참고문헌	153
Abstract	157

표 목차

〈표 II-1〉 강원도의 지역별 석호 현황	22
〈표 II-2〉 강원권 석호의 생태계 현황	23
〈표 II-3〉 관동팔경의 특징	53
〈표 III-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표	76
〈표 III-2〉 강원권 유산과 비교를 통한 다른 나라 세계유산의 특성	78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5
<그림 II-1> 금강산 만물상	9
<그림 II-2> 금강산 구룡폭포	10
<그림 II-3> 월정사팔각구층석탑	16
<그림 II-4> 석호와 사주	18
<그림 II-5> 남강원도 석호 현황	20
<그림 II-6> 설악산 가을 풍경	25
<그림 II-7> 명승 제100호 설악산 울산바위	27
<그림 II-8> 명승 제103호 설악산 공룡능선	28
<그림 II-9> 명승 제99호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29
<그림 II-10> 명승 제101호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30
<그림 II-11>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32
<그림 II-12> 명승 제68호 하조대	34
<그림 II-13> 하조대 명승 지정구역	35
<그림 II-14> 명승 제73호 태백시 검룡소	35
<그림 II-15> 명승 제74호 대관령 옛길의 성황사 및 산신각	37
<그림 II-16> 명승 제106호 용연골 암반과 소	38
<그림 II-17> 명승 제108호 경포대와 경포호	39

<그림 II-18> 건봉사 대응전(일제강점기)	43
<그림 II-19> 건봉사 치아 진신사리	45
<그림 II-20> 총석정	49
<그림 II-21> 삼일포 전경	50
<그림 II-22> 죽서루	53
<그림 II-23> DMZ 생물권보존구역도	54
<그림 III-1> ‘설악산 보호구역’ 잠정유산 등재 현황	69
<그림 III-2> 설악산 운무	71
<그림 III-3> 설악산 설경	71
<그림 III-4> 북한 금강산 세계잠정유산 등재 현황	73
<그림 III-5> 강원도의 자연/문화유산 현황	77
<그림 IV-1> 금강산 장안사도	83
<그림 IV-2> 금강산 장안사 사진(1)	83
<그림 IV-3> 조선시대 묘길상도	84
<그림 IV-4> 금강산 장안사 사진(2)	85
<그림 IV-5> 금강산 장안사 사진(3)	86
<그림 IV-6> 금강산 마하연 사진(일제강점기)	87
<그림 IV-7> 보덕암(일제강점기)	88
<그림 IV-8> 근래 중건 된 신계사 모습	89
<그림 IV-9> 금강산 건봉사 전경 사진(1)	90
<그림 IV-10> 금강산 건봉사 전경 사진(2)	90
<그림 IV-11> 남한 금강산권역(건봉사) 주변의 사찰유적과 역사경관림	91
<그림 IV-12> 금강산도(1)	93
<그림 IV-13> 금강산도(2)	94
<그림 IV-14> 금강산도(3)	94
<그림 IV-15> 금강산도(4)	95

<그림 IV-16> 금강산도(5)	95
<그림 IV-17> 금강산도(6)	95
<그림 IV-18> 금강산도(7)	96
<그림 IV-19> 금강산도(8)	96
<그림 IV-20> 금강산도(9)	97
<그림 IV-21> 정선의 금강산도	98
<그림 IV-22> 정선의 금강산전도	98
<그림 IV-23> 금강산도(10)	98
<그림 IV-24> 금강산도(11)	98
<그림 IV-25> 금강산도(12)	99
<그림 IV-26> 금강산도(13)	99
<그림 IV-27> 관동팔경도(관광지도)	100
<그림 IV-28> 경포대도와 삼일포도	102
<그림 IV-29> 총석정도(1)	103
<그림 IV-30> 총석정도(2)	103
<그림 IV-31> 총석정도(3)	103
<그림 IV-32> 총석정도(4)	103
<그림 IV-33> 삼일포도	104
<그림 IV-34> 김홍도의 삼일포도	104
<그림 IV-35> 경포호 문화재보호구역도	105
<그림 IV-36> 경포호 주변 문화재관리 기준도	105
<그림 IV-37> 남한 금강산권역의 건봉산 전경	109
<그림 IV-38>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본 송도진리 백사장	110
<그림 IV-39> 금강산 지질과 폭포	111
<그림 IV-40> 금강산 지질과 지형	111
<그림 IV-41> 미국 북서부 올림픽국립공원 세계유산구역 만년설	113

<그림 IV-42> 미국 올림픽국립공원 세계유산구역의 빙하 변화 모습	114
<그림 IV-43> 화진포 항공사진	117
<그림 IV-44> 북한의 천연기념물(230호) 외금강남생이(Geoclemys reevesii)	129
<그림 IV-45> 외금강남생이 서식지	129
<그림 IV-46> 한반도 고산식물의 분포지대	130
<그림 IV-47> 남측강원도 백두대간생태자원도	131
<그림 IV-48> 금강인가목	133
<그림 IV-49> 국수나무	133
<그림 IV-50> 남한의 DMZ 현황도	136
<그림 IV-51>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동부전선에 문화재청 근대유산으로 지정된 감시초소(GP)	137
<그림 IV-52> 남북강원도의 세계화를 위한 구역 개념도	146

요 약 문

본 연구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강원도의 자연적·문화적 유산에 대하여 세계유산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기준(i~x항)을 바탕으로 검토 분석한 것이다. 즉 남북 강원도 유산의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발굴하여 향후 남북 강원 유산의 공동 등재를 통한 세계 유산화 방안을 모색해 본 연구이다.

연구결과 남북 강원권 유산은 남측의 설악권과 북측의 금강권이 세계잠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하며, 국경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는 월경유산(Transboundary Heritage)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 강원 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기준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강원권 문화유산은 한국인의 자연관과 문화적, 종교적, 대표적 회화 등을 통한 생활상을 볼 수 있으며 조영 방법 등이 자연자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조영 및 경관관리의 독특한 방법이 탁월하여 세계유산 등재 기준(ii), (iii), (iv) 항목에 준하여 검토가 우선되며 아울러 관동팔경 및 석호 등이 난개발로 소멸될 수도 있어(v)항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강원도 자연유산에 대한 지형은 해양성기후대와 대륙성기후대가 만나는 해발 고도 2,000m의 화강암이 융기된 독특한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 지형으로 만물상(1만 2천봉), 석호 등의 가치와 기온, 강수량, 골바람 등의 지형적·경관적 가치와 계절적 변화 등의 가치를 갖추고 있어 등재기준 경관가치의(vii)항과 지질적 가치의(viii)항의 적용이 가능하며 온대남부계통과 아한대성 생태계로 고등식물과 양치류, 나자식물, 피자식물 등이 한반도식물의 55%를 차지하며 척추동물은 390종이 서식하고 있어 종다양성의 지역으로 등재기준(ix)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금강인가목속,

금강산반생이, 금강산 금강초롱, 산양노루,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있어 이들에 대한 보존을 위한 등재기준 (x)항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세계유산등재기준에 의한 유산의 가치 등을 종합 검토 결과 문화유산의 등재기준인 (ii), (iii), (iv), (v)항의 적용이 가능하며 자연유산 등재기준인 (vii), (viii), (ix), (x)항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어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함께 갖추고 있는 복합유산(Mixed Heritage)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산의 위치와 관리 등을 고려해 관리 주체에 따라 남북한이 연속유산(Serial Nomination)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비무장지대(DMZ)등의 등재는 아직 잠정유산에 등재되지 않았고 남북 간의 정치적 판단 등의 난제를 안고 있어 남북한 간의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추후 등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유네스코등재기준(i 항~ x 항)을 중심으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한 평가·심의를 통해 등재권고의 절차를 밟는 현행 세계유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등재 가능성을 전제로 남북한 정부의 이해와 협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어서 남북강원도의 유산에 대한 공동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학술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며 효과적 보존관리를 위한 주체와 관리 방법 등의 제도정비 및 검증과 확인을 위한 위원회 등의 결성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최근 남북한 간 화해 분위기와 더불어 남북교류를 통한 연구 분위기가 고조되는 현상에서 남북한 강원도의 자연적/문화적 자원의 가치 등의 특성을 조사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남북한 유산의 보존 및 남북 평화의 공간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초연구이다. 즉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강원자원이 갖추고 있는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기준에 의해 강원자원의 가치를 이해하여 향후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문화재청은¹⁾ 1995년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에 신청하였으나 1996년 평가기관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평가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제20차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신청을 철회하여 재도전의 기회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시(1996년) IUCN은 평가보고서에 설악산은 등재기준에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설악산과 금강산 또는 한반도의 지리산, 오대산, DMZ의 자연 서식지, 태백산맥의 다른 장소를 포함하는 월경유산 또는 연속유산으로 신청을 권고한 바 있다.

1) 문화재청(2015), "설악산-금강산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및 추진 방향 도출 연구용역",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 15쪽.

한편 2019년 7월 현재 남한의 설악산이 1994년, 북한의 금강산과 주변 건축 유산이 2000년 5월 유네스코 세계 잠정유산에 등재되어 있어²⁾ 남북한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동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최근 설악산권의 야생반달곰과 산양 서식환경 확인³⁾, 남북한 국방한계선의 70여 년간의 보호구역 인위적 보존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와 생태자원의 증가, 그리고 비무장지대(DMZ)내 방어시설(GP, 초소 등)의 근대유산지정 등의 여건 변화가 있다. 아울러 남한의 금강권역의 건봉사 자료 발굴⁴⁾ 및 남한접경지역의 문화시설(관동팔경) 등 가치 제고 및 기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화 방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이곳은 한반도 최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어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적 향응의 근거를 갖고 있는 남북 강원자원의 유산에 대한 가치와 지구상 마지막 전쟁의 대치 공간인 남북한 접경지역의 주요자원의 세계화를 통한 평화 공간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최근 남북한 평화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남북의 유산을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월경유산(Transboundary Heritage) 및 연속유산(Serial Nomination)으로의 등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는 2010년부터 자연과 문화를 함께하는 복합유산 등재를 활성화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의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를 세계유산등재 기준에 준하여 조사 분석하여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추정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추진배경이다.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 강원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본 연구는 강원권 백두대간의 지질 및 생태자원의 가치를 묶어 유네스코가 등재하고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관리하는 국제적 시스템인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등재 기준(i~x)⁵⁾에 의거 남북한 자

2) 유네스코 세계유산리스트(<https://whc.unesco.org//list/>)

3) 한겨레신문 : "설악산 암산양 소금명산두고 다룬다." (2013.1.13.) 등 일간지

4) 李永宣(2003), 「금강산건봉사적」, 동선법문전국염불만일회.

5) <https://whc.unesco.org//list/>

연과 인문자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기초연구이다.

세계화는 세계유산 등재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국제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세계유산등재의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즉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강원도 유산의 구체적 내용검토, 여타 유산과의 관련성, 세계유산 구역 설정, 등재기준의 적합 여부, 기타 보존관리의 합당성 등에 의한 가치를 살펴보기 위한 개략적 기초연구이다. 즉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유산의 가치 발굴 및 남북 강원 유산 유산별 보편적 가치 발굴(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을 위해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등재기준 항목인 i 항에서 x항까지의 항목 중에 각 유산의 가치를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해 진행하여 향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강원권에 분포하는 자연 및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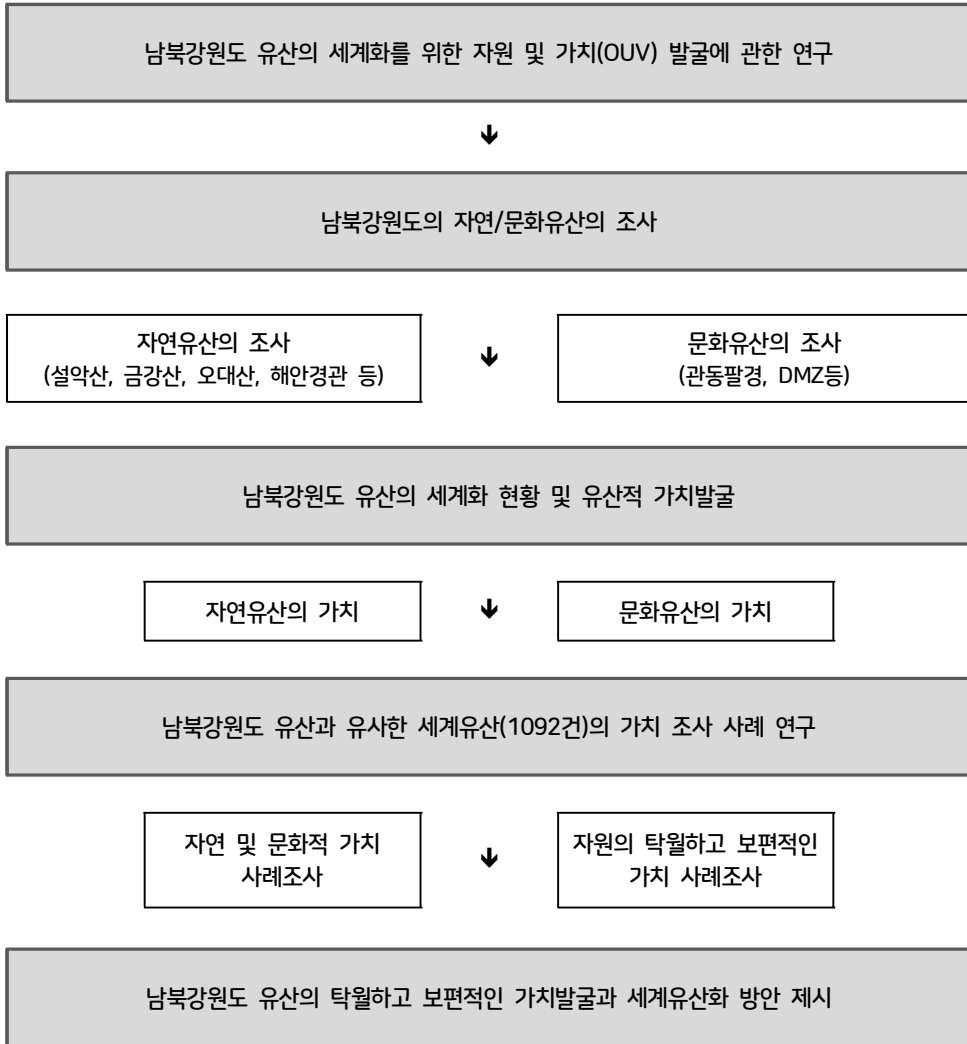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추진 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즉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강원의 우수 자원인 세계유산 등재기준의 항목과의 연관성과 평가 기준 등에 의한 자연성과 문화적 특성을 조사 분석 검토하였다. 즉 남북한 강원 유산의 양대 자연성과 문화적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굴하여 그 가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의한 자원의 가치 발굴 및 기존의 세계유산과 비교를 통한 강원 유산의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찾아 향후 강원권 자연과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10항목의 기준에 따라 강원유산(금강산과 설악산, 태백산 그리고 오대산 등 산악 및 관동팔경, 석호 등 자연 및 문화자원)의 자료조사 및 검증을 통한 세계 유산적 가치 발굴 및 특성(탁월하고 보편적 가치=OUV), 가치에 따른 권역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자연성과 문화성에 의한 복합유산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 강원 유산의 현황을 진정성과 완전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를 발굴하고자 시도하였다.

2019년 6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되어 있는 1,092건의 세계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중 유사한 사례의 검토 및 분석 비교를 통해 강원권 유산에 대한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찾아 세계유산 등재 기준(i~x항)에 따른 강원 유산의 가치를 찾아 항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유산적 가치의 발굴은 기존의 세계유산 중 유사 사례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자원의 기초적 가치 발굴과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발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II

남북 강원도 유산 현황

1. 남북 강원도의 자연유산

1.1. 백두대간

한반도의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지리산에 이르는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말하는데, 이는 한반도를 형성하는 근간을 이루는 거대한 산줄기의 이름이다.

백두대간을 이루는 한반도에서 주요 산은 기점인 백두산(2,744m) 동남쪽으로 포태산(2,289m), 두류산(2,309m) 등의 높은 산으로 이어져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동·서로 나뉘었으며, 다시 남쪽으로 차일봉(1,743m), 철옹산(1,085m), 두류산(1,324m)으로 이어져 대동강의 남쪽 정맥인 해서정맥(海西正脈)을 서남쪽으로 두었고, 원산 서남쪽으로 이어진 대간은 마식령, 백암산, 추가령으로 연결되어 임진강, 그리고 한강의 북쪽 시점을 이루고 있다.

동해안을 끼고 국토의 척추형을 이룬 백두대간은 금강산(1,638m), 설악산(1,708m), 오대산(1,563m), 태백산(1,567m)으로 이어 흐르다가 남쪽으로 낙동강의 동쪽 분수 산줄기인 낙동정맥(洛東正脈)을 형성시켰다. 대간의 본줄기는 내륙 깊숙이 소백산(1,421m), 속리산(1,508m)으로 뻗어내려가면서 한강과 낙동강유역을 남북으로 분수하

였다. 이로부터 남으로 흘러 덕유산(1,614m)이 금강의 동쪽 분수산맥을 형성하며, 섬진강의 동쪽 분수령인 지리산(1,915m)에서 백두대간은 끝난다.⁶⁾

이 중에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금강산과 설악산이 백두대간의 중심에서 자연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서로 양분하면서 존재해 오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한반도에서 백두대간의 의미는 한반도 골격체계의 근간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고, 한반도 전체의 영토, 정치, 문화적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쳐 왔다. 지형적으로는 한반도를 흐르는 하천의 주요 발원지가 되며, 이것을 중심으로 문화권 구분의 기본이 되고 있고, 정신적으로는 한반도의 역사가 백두대간 중심의 지맥에 뿌리를 둔다는 역사적 의미도 강한 편이다.

또한 백두대간의 지리적 위치는 한반도 생물권의 진화와 퇴보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의 북반구에 온대지방에서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받아 생태계의 다양성에 뿌리를 둔 4계(四季)의 변화가 세계 어느 곳에 못지않은 자연유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1.2. 금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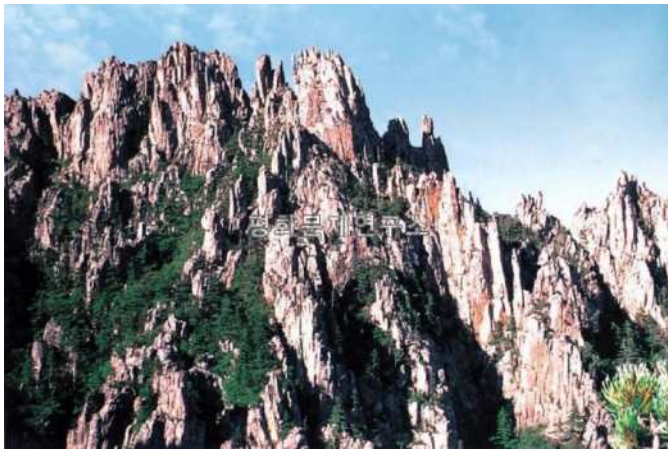
1.2.1. 일반 현황

백두대간의 명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산을 얘기한다면 단연코 금강산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태백산맥 줄기 북부에 자리 잡은 금강산은 도서의 길이가 40여km에 달하고, 남북의 길이가 60여km로 전체면적이 530여km²에 달하는 하나의 대 자연공원이며, 지형상의 기암괴석, 다양성이 있는 식물과 동물상이 산과 바다에서 연계되어 자연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질은 주로 중생대에 관입된 흑운모 화강암으로 주변에는 시생대 편마암과 혼성 암류가 널려있는 자연 박물관이며, 식물분포 상으로는 한반도 중부 식물분포구를 대표하는 곳으로 온대성 식물분포로부터 아한대성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동물은 우제목, 식육목, 설치목, 토끼목, 박쥐목, 식충목 등 6가지 목에 속하는 짐승류가 섞여 널리 퍼져 있다.⁷⁾

이러한 자연지형과 식물의 다양성에 힘입어 봄에는 온 산에 여러 꽃이 흐트러지게 피어 금강산이라고 하고, 여름에는 바위산과 어울리는 녹음이 뒤덮으니 봉래산이라 하며, 가을에는 일만이천봉에 온갖 단풍이 색상을 자랑하니 풍악산이라고 하고,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만 남아 산등성이 암벽과 함께 골격을 드러내므로 개골산이라 했듯이 금강산의 자연은 화강암 지질에 따른 지형을 형성하며, 위도상에 4계절이 있는 온대지방이고 반도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기후적 특성, 그에 따른 식생의 다양성은 금강산의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다.



자료 : 평화문제연구소 (<http://www.cybernk.net>)

<그림 Ⅱ-1> 금강산 만물상

7) 최규태(1999), 『한국관광자원론』, 대왕사.

1.2.2. 역사와 문화 환경

금강산은 풍악산, 개골산, 상악산, 봉래산, 선산 등으로 불리다가 15~16세기에 화엄경의 금강산과 결부시켜 ‘금속처럼 빛나고 굳다’라는 뜻으로 금강산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신석기시대의 단편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중세에는 고구려의 영향 하에 있었으며, 불교가 유입되면서 동방의 성지로 꼽히게 되었다.

금강산지역에 불교가 유입된 것은 372년인데, 고구려 장수왕 50년(462년)에 상운암을 세우고, 또 장수왕 65년(477년)에 보운암을 세운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그 후 519년에 신계사, 520년에 건봉사, 551년에 장안사, 600년에 정양사, 670년에 표훈사가 차례로 창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서 금강산 자체의 자연적 가치에 역사, 문화적으로의 가치도 대단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⁸⁾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II-2> 금강산 구룡폭포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3. 금강산의 자연 지형

금강산은 백두대간의 중간지대이며 북한지역 강원도의 570여km²에 이르는 넓은 지역으로 외금강 지역과 내금강 지역, 해금강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외금강 지역(명칭자체가 불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

외금강 지역은 금강산의 중심적 가치를 보여주는 곳으로 최고봉인 비로봉(1,639m)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길게 뻗은 중앙 연봉과 동해안을 따라 펼쳐진 해금강 사이를 포괄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온정 지구를 비롯하여 만물상, 구룡연, 수정봉, 천불동, 선창, 백정봉, 선하, 발연소, 송림, 은선대 지구로 구분되는 데 각각의 자연, 환경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온정지역은 금강산 방문의 중심지로서 신계사 터를 비롯하여 온천의 중심이고, 금강산을 바라보는 경관이 장관인 곳이기도 하다.

만물상 지구는 화강암을 중심으로 한 깎아지른 절벽과 온갖 형상을 나타내는 기암괴석들이 장관을 이루는 명승지로써, 관음연봉, 문주봉, 수정봉이 솟아 있고, 곰바위와 구슬 같은 돌맹이가 보이는 문주담이 있어서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구룡연 지구는 긴 골짜기에 이루어진 명승지로 신계동, 옥류동, 구룡동으로 나누어 지는데, 각각의 계곡에는 아름답디 소나무 밭을 비롯해서 기암괴석, 폭포와 전설을 간직한 금강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정봉 지구는 화강암으로 형성된 수정돌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동굴, 용수 등이 특징이다.

나머지 천불동, 선창, 백정봉, 선하, 발연소, 은선대 지구는 특유한 산악미와 계곡미를 보이는 곳으로 천불상의 모양의 바위와 우거진 숲과 폭포들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며, 송림사, 유점사 등 사찰 터, 자연 군상들의 다양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즉 외금강 지역은 금강산의 중심이면서 자연의 기암괴석이 남긴 아름다움을 비롯하여 다양한 식물, 동물 등이 부존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② 내금강 지역

내금강 지구는 백두대간 줄기에 솟아 있는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과 북쪽의 옥녀봉, 동쪽의 외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으로 만천대, 비로봉, 백운대, 명경대 지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각 지구도 외금강과 마찬가지로 각종의 기암괴석과 지형이 이룬 형상이 수만 가지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내부로 들어갈수록 고산식물로 형성된 식물원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식물상과 장안사 터, 표훈사 옛터, 삼불암 등이 자리한 역사적 가치가 우수한 입지성을 보이고 있다.

③ 해금강 지역

금강산 지역으로 불리는 해금강은 동해 기슭의 수원단에서 남쪽으로 해물만상, 입석바위, 칠성바위를 거쳐 대봉섬, 육교암에 이르는 해안 절경지를 해금강이라고 부른다.

해금강은 크게 총석정 지구와 삼일포 지구로 구분하는데 총석정 지구는 동해의 명승지로 바닷물의 침식작용이 바위벼랑에 기묘한 동굴들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동해안에 우수한 경치로 일컫는 관동팔경의 하나로서 알려져 있다.

삼일포 지구는 둘레가 8km에 이르는 호수 풍경지로 경관성이 뛰어나며, 동해안의 해돋이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며, 특히 석호로 형성된 삼일포의 가치는 동해안의 경포호, 화진포호, 청초호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형성의 원리가 특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3. 설악산

1.3.1. 자연환경

한국의 자연경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연 경관지역이 금강산과 설악산으로 대별되는 태백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설악산은 한국(남한)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산이며, 지질구조로 보아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리기도 하고, 음력 8월 한가위에 덮이기 시작하는 눈이 하지에 이르러야 녹는다 하여 설악이라 했다고 하며, 신성하고 숭고한 산이란 뜻으로 설산(雪山)·설봉산(雪峯山)이라고도 한다.

설악산의 지질로서 기반암은 금강산에 연계되어 한반도 지질구조의 특징인 화강암·화강편마암·결정편암이며, 중생대에 대규모 화강암이 관입하여 수많은 기암괴석과 깊은 골짜기, 폭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남서쪽 사면을 제외한 모든 사면이 급경사이며, 내설악의 남부에는 한계천(寒溪川), 북부에는 북천(北川)이 서쪽으로 흘러 북한강의 상류지역을 이루고 있다.

설악산은 내설악(內雪嶽)과 외설악(外雪嶽)으로 구분되는데, 대청봉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미시령(826m)과 남쪽의 점봉산을 잇는 주능선을 경계로 하여 동쪽을 외설악, 서쪽을 내설악이라 부르고, 북동쪽의 화채봉(華彩峯)과 서쪽의 귀땀기청을 잇는 능선을 중심으로 남쪽은 남설악, 북쪽은 북설악이라 한다.

외설악의 남부에는 양양 남대천(南大川), 북부에는 쌍천(雙川)이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동해에 가까이 있어서 강수량은 많은 편이다.

산세는 수려하면서도 웅장하고, 울산바위를 비롯한 기암괴석, 계곡의 맑은 물과 수많은 폭포 및 수림, 동식물이 산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금강초롱·노랑갈퀴·대미풀과 같은 희귀식물을 비롯한 총 800여종의 식물이 자라며, 누운 잣나무·분비나무·가문비나무·전나무·사철나무 등 침엽수림·활엽수림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내부에는 각종 고산식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으며, 사향노루·반달곰·까막딱따구리와 같은 희귀동물을 포함하여 약 495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그밖에 백담천(百潭川)에 냉수성 희귀어족인 열목어와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내설악은 기암절벽과 깊은 계곡이 많고 맑은 물이 흘러 뛰어난 경승지를 이루며, 특히 계곡의 아름다움이 우아하고, 외설악은 속초시를 비롯한 바다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내설악은 인제군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한계령을 비롯한 계곡일대와 안산(1,430m), 가리봉(1,519m) 등 높은 산과 양반바위·쫄대봉·십이봉·산신각·상놈바위·대승령·오승폭포 등 우수경관이 있다.⁹⁾

1.3.2. 역사와 문화 환경

설악산 일대는 1965년 11월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163.4㎢), 1982년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세계생물권보존지역(世界生物圈保存地域)으로 지정되었다.

지역의 문화적 환경으로는 백담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 등이 조화를 이루어 사찰경관이 뛰어나서 1969년에 관광지(16.2㎢), 1970년에는 국립공원(17.4㎢)으로 지정되었고, 1991년에는 총면적 373㎢에 이르는 면적을 지정하고 있다.

인제군의 백담천 계곡을 따라 오르면 백담사가 있고, 더 올라가면 봉정암에 닿는데, 신라 진덕여왕 때 자장이 한계리에 사찰을 지은 이후 잦은 화재로 설악산 내의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백담사는 일제강점기에 한용운이 거처하며 민족해방과 불교 활성화를 구상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대화 이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적 문제로 1년 6개월간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봉정암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1,244m)에 위치하는 사찰로서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한다.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한국의 5대 적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멸보궁의 하나로 유명하다.

외설악은 침봉이 높이 솟아 있고, 암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계곡마다 못과 폭포를 이루며, 울산바위·흔들바위·비선대·비룡폭포 등과 신흥사 등 고찰이 있는 곳이며, 오색천 계곡의 오색약수·오색온천 등과 주전골 계곡이 포함된다.

특히 설악산은 자연 환경적으로 금강산과 맥을 같이 하면서 규모와 지질과 지형의 형상이 유사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산악 내부에 분포하고 있는 수림과 산양, 반달곰 등 야생동물 등이 지역의 가치를 더해주는 곳이기도 하다.¹⁰⁾

1.4. 오대산

1.4.1. 자연환경

오대산은 강원도 평창군·홍천군·강릉시에 걸쳐 있는 산으로서 예로부터 삼신산으로 불려 온 금강산·지리산·한라산과 더불어 국내 제일의 명산으로 꼽고 있다. 높이 1,563m인 주봉 비로봉을 중심으로 5개의 연꽃잎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하여 오대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하며, 비로봉의 서쪽에는 호령봉·서대산이, 북동쪽에는 상왕봉·북대산·두로봉이, 동남쪽에는 동대산 등의 높은 봉우리와 기암괴석, 그리고 철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하다.

오대산은 백두대간에서 아기자기한 돌보다는 흙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산이 높고 삼림이 우거져 다양하고 풍부한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특히 월정사 옆의 오대천은 열목어와 메기 등이 서식하고 있어서 특별 어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식물은 전나무·신갈나무·자작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있다. 비로봉 일대의 눈썹백나무와 주목 군락, 호령봉 계곡의 난티나무 군락, 두로봉과 상왕봉 능선의 철쭉과 금강초롱 등이 유명하다. 한편, 월정사와 상원사 입구에는 500년 이상 된 전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¹¹⁾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1) 국립공원협회(1980), 「국립공원」, 국립공원협회.

1.4.2. 역사와 문화 환경

오대산에 있는 유명한 사찰로는 한국 조계종 제4 교구본사인 월정사를 들 수 있는데, 월정사에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석조 보살 조상·상원사 중창 권선문 등의 문화재가 있다. 월정사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는 상원사가 있다. 상원사에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인 상원사 동종이 보존되어 있다. 비로봉 중턱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적멸보궁이 있으며, 조선시대의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오대산 사고지(史庫社)가 있다.

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조선왕조 역사를 기록해 놓은 중요한 자료이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2006년 7월 14일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다가 다시 고궁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의미는 오대산만이 중요한 가치를 보여준다고 사료되어 역사문화로서의 가치를 위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II-3> 월정사팔각구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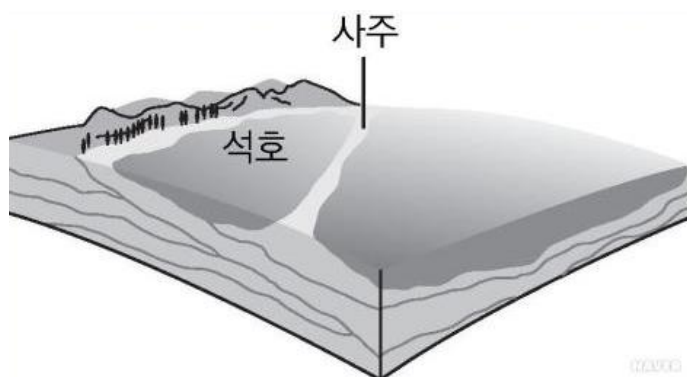
오대산의 명승지로는 오대산의 동쪽 지역인 강릉시 연곡면 노인봉 하단의 청학동 소금강이 유명하다. 청학동 소금강은 12km에 걸쳐 기암 절경을 이루는 계곡 경치가 뛰어나, 1970년에 이미 명승 제1호로 지정된 곳이다. 소금강의 명소는 무릉계를 경계로 외소금강과 내소금강으로 분류되며, 구룡연·선녀탕·만폭동·상팔담·축대석·만물상·백운대·학소대 등의 명소가 있다. 1975년 오대산 298.5km²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오대산의 가치를 보면, 한국의 4대 명산으로 백두대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로 가치가 있으며, 교구본사인 월정사를 비롯하여 적멸보궁으로서 문수보살을 모신다는 상원사와 동종, 조선의 역사를 기록물의 보관을 담당하던 오대산 사고지의 존재, 그리고 한반도 동서를 가르는 대관령의 가치와 올림픽의 스포츠문화를 지역의 가치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1.5. 석호

1.5.1. 석호의 일반 현황

석호(瀾湖, lagoon)¹²⁾는 사주와 같은 작은 장애물에 의해 바다로부터 분리된 연안에 따라 나타나는 얇은 호수로 해안에서 연안류의 작용으로 사취(砂嘴), 사주(沙柱) 등에 의하여 바다와는 전연 분리되어 형성된 호수이다. 이는 하천의 유입으로 점차 염분이 적어지고, 주변의 식물에 의하여 소택지(沼澤地)화 되어 중국에는 육지화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천연호의 대부분은 이에 속하고, 강릉 이북의 해안에 많이 발달되어 있다. 강릉경포, 속초청초호, 고성화진포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석호는 수심이 얇고 바다와는 모래로 격리되어 지하를 통해서 해수가 섞여드는 일이 많아 담수호에 비해 염분이 높으며 바다와 수로로 연결되어 담수호에 비해서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부영양화가 많다.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그림 II-4> 석호와 사주

12)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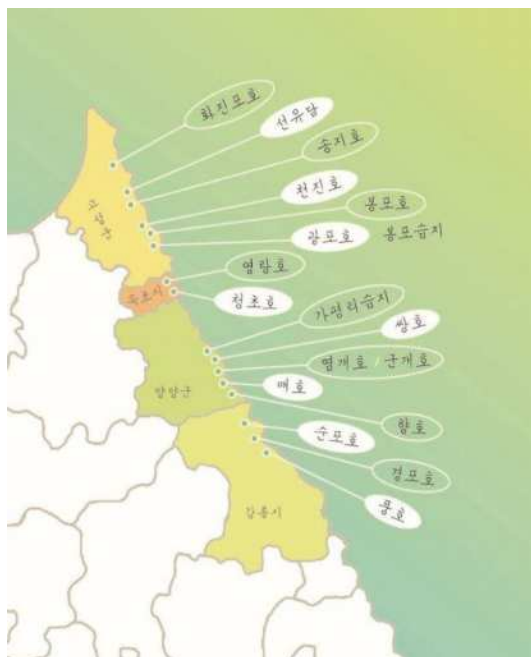
이들은 석호퇴적물은 사질, 실트질, 이질 및 탄질 퇴적물이 교호하는 것이 특징이며 사질 퇴적물은 폭풍 때 사주섬을 넘어와 판상으로 퇴적되기도 하며, 밀물 삼각주와 조수로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세립질 퇴적물은 석호 내부와 인근의 조간대 지역에서 퇴적된다. 탄질 퇴적물은 석호 주위의 저습지 혹은 소택지에서 형성된다. 실트질 및 이질 퇴적물에는 기수성 생물이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굴껍데기 등이 모여서 패각석회석(coquina)을 형성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지호, 화진포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기수호(汽水湖)가 많으며 생물환경은 수생식물이 적고, 기수성·담수성의 부유성 플랑크톤이 존재하는데, 담수호에 비해서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부영양호(富營養湖)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강원도와 함경남도·함경북도의 해안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석호는 강릉의 경포(鏡浦), 주문진의 향호(香湖), 속초의 청초호(靑草湖)·영랑호(永郎湖), 고성의 삼일포(三日浦)·송지호(松池湖)·화진포(花津浦), 통천의 강동포(江洞浦)·천아포(天鵝浦), 정평의 광포(廣浦), 영흥의 상포(上浦)·하포(下浦) 등이 대표적 석호들로 볼 수 있다.

석호는 지형학상 사취나 사주의 발달로 만의 입구가 좁혀짐으로써 형성되는 사수와 같은 해안지형으로서 바닷물로 이루어진 석호가 일반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또한 형성 과정에서 사빈·사구와 복잡한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사주가 발달하여 석호가 만들어진 뒤에는 계속되는 퇴적물에 의해 석호는 결국 매립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석호는 약 4,000년 전에 후빙기(後氷期)의 해면이 현재의 수준으로 거의 높아진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데, 한반도의 해안에서 서해안의 석호는 만의 입구 양쪽에 사취가 발달되어 있고, 밀물 때는 호소를 이루지만, 썰물 때는 갯벌이 노출된다.



자료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네이버 블로그

<그림 II-5> 남강원도 석호 현황

함경남도의 동남쪽 함주군과 정평군 사이에 있는 광포(廣浦)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호로서 주위가 14km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석호를 바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사취·사주는 사구(砂丘)·사빈(砂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잔잔한 호수와 푸른 바다, 사구의 송림(松林)과 백사장의 깨끗한 모래는 서로 어우러져 훌륭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강원도의 화진포 석호는 최대 수심 3.7m, 호수면적 2.37㎢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석호로서 내호와 외호로 구성되어 있고, 평소에는 통로가 닫혀 있지만 장마나 폭풍에 의해 바다와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갯터짐 현상도 보인다.

북한 고성(高城)의 삼일포와 강릉(江陵)의 경포는 예로부터 관동팔경의 경승지로서 유명하다. 특히 동해안의 석호는 담수호(淡水湖)로 되어 있고, 담수성 어류가 서식하는 등 다

양한 식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호로는 하천이 유입하는데, 작은 석호는 사주로 바다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나 비교적 큰 석호는 모두 좁은 수로를 통하여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서 하천은 석호를 통하여 바다로 유출된다. 다만 속초 청초호는 항구로 이용되는데 어선을 드나들게 하기 위하여 수로를 넓고 깊게 인위적으로 유지시켰기 때문에 담수호는 아니다. 따라서 유산으로서 가치는 덜하다 하겠다.

1.5.2. 석호의 가치와 평가

석호는 해안습지의 한 종류로서 해안습지 중 하구습지에 해당하며, 지리적 위치에 따라 육상과 해양의 접이지대로서 제3의 생태계로 간주하기도 한다. 습지보전법상으로는 내륙습지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동해안 석호 면적 중 20~30%만을 습지로 인정한다. 습지는 호소에서 육지로 변해가는 중간단계인데, 다양한 생물의 보고이며 생태환경 복원에 중요한 자료가자 완충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다.

한국의 석호 습지는 사주가 발달하여 만이 바다에서 분리되면서 생성되었는데, 특히 강원도 해안에서 가장 발달하였고, 육상에서 흘러들어온 담수와 간헐적으로 바다에서 넘쳐 들어오는 해수가 섞여 소금기가 있는 기수성(brackish)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석호는 상업적 가치가 큰 연안 어류의 산란처와 피란처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동해안 석호 습지는 1960년대 이후 습지의 매립, 수문에 의한 해수 유입의 차단, 제방 축조에 의한 배수, 습지 식생의 제거, 수질오염 등으로 교란되어 그 수와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5.3. 동해안 석호 습지 현황 및 문제점

석호는 일단 한번 형성되면 퇴적물의 유입으로 계속해서 그 면적이 축소된다. 즉, 하천에 의해 공급된 토적물의 축적, 이탄이나 조개와 같은 유기물의 퇴적, 그리고 침

전물질에 의해 내부가 채워지고 얇아지며 크기가 줄어든다. 강원도 동해안에 발달한 대부분의 석호들은 과거로부터 지속적인 퇴적이 이루어져 왔다.¹³⁾

<표 II-1> 강원도의 지역별 석호 현황

구 분	호 소 수	호 소 명
강릉시	4	경포호, 향호, 순포개, 풍호
양양군	5	매호, 쌍호, 가평리습지, 염개호, 근개호
속초시	2	영랑호, 청초호
고성군	7	화진포호, 송지호, 광포호, 봉포호, 천진호, 봉포습지, 선유담

또한 석호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형성된 독특한 형태의 기수 환경에 적응하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석호는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호수에서 습지로 천이된 후 육지로 변화하는 육지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강원도에서의 석호는 지각변동과 모래톱(사주, 사취) 등에 의해 형성된 자연 호수로 강릉시의 경포호를 비롯하여 속초시의 영랑호, 청초호, 고성의 화진포호, 송지호 등 18개가 동해안 지역(고성~강릉)에 산재되어 있다.

동해안 석호는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축적되고 유출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 호소로서 호소의 환경기준 상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동해안 석호의 생태계는 위 표의 A그룹이 석호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호수주변 경관이 수려하며,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보전 및 복원의 가치가 높으나, 석호 주변으로부터 개발 위협이 심각하여 보전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B그룹의 경우는 이미 호수의 일부가 매립되어 원형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

13) 김창환외(2018), 「이야기가 있는 강원 해안」,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이며, 도시화와 진입도로 개설, 건축물 설치 등으로 호수 주변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석호의 환경 관리상의 문제는 대다수의 석호가 유입 수량이 적은 수리특성으로 인하여 내부 생성 부하에 의한 오염 기여율이 높고 저질층의 깊이가 1~2m로 심층은 연중 혐기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리특성으로 인해 일부 퇴적오니 부분 준설 등 호소 정화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표 II-2> 강원권 석호의 생태계 현황

그룹A	그룹B
화진포호, 송지호, 광포호, 영랑호, 매호, 향호, 경포호	선유담, 천진호, 봉포호, 봉포습지, 청초호, 가평리습지, 쌍호, 연개호, 군개호(공개버덩), 순포개호, 풍호

1.6. 기타 주요 가치적 자원

1.6.1.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향로봉은 천연물보호구역으로 1973년 7월 10일에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인제군 서화면 일부, 고성군 수동면 일부, 간성읍 일부에 걸쳐 있다.

한국에서 최북단인 향로봉은 백두대간의 중심부라 할 수 있으며, 남북 강원도에서 남한지역에 속해 있으나 본래 금강산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곳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 고성군과 인제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칠절봉으로부터 향로봉·건봉산을 지나 비무장 지대까지 이르는 이곳은 우리나라 중부 온대림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식물 상으로 보면, 자연적 기후대의 영향으로 건봉산의 고진동 계곡에는 신갈나무가 주로 자라고 철쭉·산앵도나무·조록싸리·조릿대 등이 함께 숲을 이루며, 소나무·전나무·서어나무·층층나무 등이 분포되어 있다.

최고봉인 향로봉 지역은 해발 500m부터 서어나무류 군락이 특징이고, 700m부터 사스래 나무와 함박꽃나무 군락이 주로 형성되어 있다. 정상 부근은 식물상이 특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에 따른 군 작전상 큰 나무들을 제거한 탓으로 미역줄나무, 다래덩굴이 엉키어 있고 능선 전반에 걸쳐 하늘말나리, 금강초롱 등의 희귀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서식동물로 향로봉과 건봉산 일대의 계곡에는 칠성장어·산천어·금강보치·버들치·가는돌고기 등 보호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조류는 건봉산 지역에서 24종, 향로봉 지역에서 11종이 확인된 바 있다. 포유류는 24종이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수달·사향노루·산양·곰·하늘다람쥐 등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종(種)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의 특징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의 숲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음이 특징이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지역적 특징으로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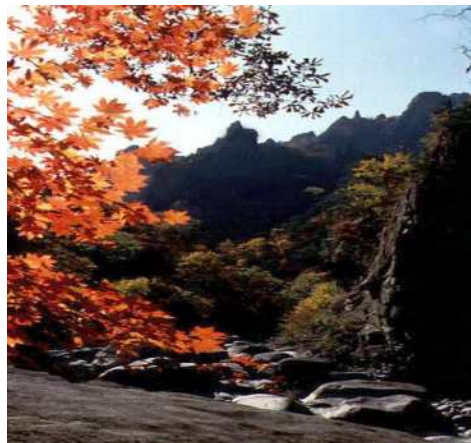
식물상이 잘 보존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어서 이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향로봉과 건봉산 천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및 학술 목적 등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1.6.2.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의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으며, 지금의 설악산 국립공원구역과 유사하다. 본래 ‘설악’이란 이름은 주봉인 대청봉(1,708m)이 1년 중 5~6개월 동안 눈에 덮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은 연평균 기온이 10℃를 넘지 않는 저온지대에 속하며, 연간 강수량은 내설악이 1,000mm 정도, 외설악이 1,300mm 정도로서 한국의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약 1,500~1,600mm)보다는 월등히 적은 편이다. 설악산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관은 대규모의 화강암 관입과 더불어 암절과 절리의 차이에 따른 차별침식의 결과로 보고 있다.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II-6> 설악산 가을 풍경

천연보호구역 내의 식물은 약 1,013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등의 활엽수림과 소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등의 침엽수림이 섞여 숲을 이룬다. 그 밖에 금강배나무, 금강뽕맞이, 금강소나무, 등대시호, 만리화, 눈설악주목, 설악아구장나무, 설악금강초롱, 솜다리 등 특산물 65종, 눈썹백, 노랑만병초, 난쟁이붓꽃, 난사초, 한계령풀 등 희귀식물 56종이 보고되고 있다.

천연보호구역 내의 동물은 1,562종이 보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열목어, 어름치 등은 별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특별히 보존해야 할 지질·지형 및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며,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또한 전통 사찰 등 많은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 중의 하나이므로 설악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1.6.3. 설악산 울산바위(명승 제100호)

울산바위는 설악산의 일부인 거대한 바위산으로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체이며, 모두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부에는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 5개가 있어 근경이 훌륭하며, 시각적 풍경뿐만 아니라 예부터 ‘큰 바람 소리가 울린다’는 의미에서 ‘천후산’이라 불리는 등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청각적 감상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울산바위는 그 자체로도 명승적 가치를 지니지만 원경도 빼어나 특히 미시령 정상 의 옛길 방면에서 보이는 경치가 웅장하고 탁월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울산바위에 대해서는 주세붕, 최연, 허적 등 조선시대의 수많은 문인과 화가들이 그 웅장함과 훌륭한 경치를 글과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평가하였다.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II-7> 명승 제100호 설악산 울산바위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아래에는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유서 깊은 계조암과 신흥사가 있어 문화적 의미가 더해지고, 수많은 고시문이 전하며, 김홍도가 그린 실경산수화도 여러 편이 남아있어 미술사적 명승의 가치가 있다.

화강암의 독특한 풍화양상으로 만들어진 기암절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이로움도 자연경관의 하나이며,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안에서 바라보는 울산바위는 그 특유의 기복이 심한 산형이 주변의 다른 산체들과 비교되어 더욱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울산바위는 그 자체가 가지는 명승적 가치와 더불어 빼어난 조망점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설악산은 한반도 남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화강암 지형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보이는 곳이며, 특히 그 중에 울산바위는 형성과정이 절리를 따른 풍화와 잔류 암체의 지형을 잘 보여준다.

울산바위 아래의 계조암과 흔들바위 등지에서는 미립적인 풍화에 의한 타포니와 토르 같은 아름다운 미지형들도 나타난다고 평가하고 있다.

1.6.4. 설악산 공룡능선(명승 제103호)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II-8> 명승 제103호 설악산 공룡능선

설악산 공룡능선의 명승으로 지정은 마등령 지역에서 신선암까지 능선을 가리키며, 공룡능선은 영동·영서를 분기점으로 하고 있어서 구름이 자주 끼는 등 기상변화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룡능선은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설악의 중심 능선이며, 내설악의 가야동계곡, 용아장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바다 방향의 외설악 천불동계곡부터 동해안의 해안까지 시원하게 펼쳐진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공룡능선은 이름은 생긴 모습이 공룡이 용솨음치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서 실제적으로 장관의 경관을 보인다.

구름이 휘감은 공룡능선의 모습은 마치 신선의 영역을 보는 듯한 초절정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립공원 100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하며,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주는 곳이다.

1.6.5. 설악산 수렴동·구곡담계곡(명승 제99호)

설악산의 수렴동계곡과 구곡담계곡은 내설악의 대표적 계곡으로서 전체적으로 아주 완만한 지형을 이루어서 백담계곡에 비해 자연스러운 맛과 그윽한 운치를 느낄 수 있으며 경치가 수려하고 빼어난 것이 특징이다.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II-9> 명승 제99호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특히 4계절이 모두 특징적이지만, 가을단풍과 어우러지는 계곡의 절경은 이 길을 설악산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단풍 길로 만들어 주었으며, 지형구조상 셀 수 없을 만큼의 소(沼)와 담(潭)이 계곡을 따라 펼쳐져 있어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비경을 보여준다.

또한, 계곡에는 폭포(쌍룡폭포, 관음폭포, 용담폭포 등)와 자그만 호소인 폭호, 암봉 등의 수려한 경관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지역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수렴동에 관한 옛 문헌 기록으로 김창흡(金昌翕: 1653~1722), 홍태유(洪泰猷: 1672~1715) 등이 있으며, 수렴동 계곡과 폭포를 중국의 황산보다 경치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등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적 가치는 설악산의 자연 자원이면서 역사문화 명승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1.6.6.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명승 제101호)

설악산의 비선대는 와선대에서 노닐던 마고선(麻姑仙)이라는 신선이 이곳에 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비선대는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했다고 하며, 암반에 많은 글자가 새겨져있는데 특히 「비선대(飛仙臺)」라고 쓴 글자가 대표적이며, 『양양읍지』에 윤순(尹淳)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다.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II-10> 명승 제101호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비선대 뒤 미륵봉(彌勒峰) 중턱에 뚫려있는 길이 18m의 자연 석굴을 금강굴이라 하며, 일찍이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했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천불동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리저리 휘어지며, 작은 폭포를 이루는 등 금강산의 만폭동(萬瀑洞)에 못지않은 경관을 빚어 설악산의 대표적 명승지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천불동계곡은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靑峰)으로 오르는 7km의 계곡으로 설악의 산악미를 한곳에 집약하듯, 와선대(臥仙臺)를 비롯하여 비선대·문주담(文珠潭)·이호담(二湖潭)·귀면암(鬼面岩)·오련폭포(五連瀑布)·양폭(陽瀑)·천당폭포(天堂瀑布) 등 수려하고 빼어난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자연 경관적으로 명승의 가치가 충분한 뛰어난 계곡이라고 할 수 있다.

천불동이라는 명칭은 천불폭포에서 딴 것이며, 계곡 일대에 펼쳐지는 천봉만암(千峰萬岩)과 청수옥담(淸水玉潭)의 세계가 마치 ‘천불’의 기관(奇觀)을 구현한 것 같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바위와 암봉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는 범상치 않고 빼어난 천하의 절경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충치를 보이고 있어서 산악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지리산 칠선계곡과 한라산 탐라계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계곡중 하나라고 하며, 김창흡(金昌翕)의 「설악일기(雪岳日記)」, 김몽화(金夢華)의 「유설악록(遊雪嶽錄)」에서 설악산 비선대 주변의 경관을 극찬하고 있다고 한다.

1.6.7. 명주 청학동 소금강(명승 제1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한국의 명승 1호인 소금강은 강원도 오대산 국립공원구역에 속해 있는 곳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산이 깎이고 계곡이 깊어지면서 만들어진 바위의 모습과 주변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소금강의 원래 이름은 청학산이었는데, 율곡 이이(李珣)선생이 이곳의 경치가 금강산을 닮았다 하여 작은 금강산이라는 뜻의 소금강으로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II-3>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이곳에는 1,000년 전 신라 마의태자가 생활하였다는 아미산성을 비롯하여 구룡연못, 비봉폭포, 무릉계, 백마봉, 옥류동, 식당암, 만물상, 선녀탕 등이 곳곳에 돌과 나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금강 지역은 지질은 화강암지대이며, 동해안과 근접하고 있어서 해양성기후에 힘입어 식생도 다양한데 소나무, 굴참나무, 자작나무, 철쭉나무를 포함한 129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며, 특히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쯤고사리가 자생하고 있다. 또한 산양, 사향노루, 반달곰을 비롯한 멸종위기 동물들도 살고 있으며 까막딱다구리도 찾아볼 수 있어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1.6.8.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양구군의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은 편치불 분지와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대암산·대우산·도솔산 및 대암산 정상부근의 일명 큰 용늪과 작은 용늪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편치볼 지대는 지름 약 10km의 원형분지로, 분지벽과 주변의 능선은 편마암으로 되어 있으나 분지의 밑바닥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이는 화강암이 편마암보다 침식이 빨라 분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암산 정상 부근에는 큰 용늪, 작은 용늪이라 불리는 고지습원이 있는데, 작은 용늪은 이미 그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여 숲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큰 용늪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고지습원으로 연중 안개 끼는 날이 많은 특수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생태계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큰용늪에는 물이끼, 샷갯사초, 꼬리조팝나무, 꽃쥐손이풀 등의 식물군락이 있으며, 손바닥 난초, 비로용담, 끈끈이주걱 등의 희귀식물도 자라고 있다.

그 밖에 식물성 플랑크톤 63종, 돌말 19종과 천연기념물인 산양과 검독수리가 관찰된 바 있으며, 도롱뇽, 무당개구리, 줄흰나비 등도 볼 수 있다. 또 이 지역과 연결된 두타연계곡에서는 열목어를 비롯한 특산 어류 10여 종이 살고 있다.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은 분지·습원등 지형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기후조건이 특이하여 희귀동식물이 자라고 있다. 또한 동식물의 남북한계·동서구분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식물생태학·식물지리학·식물분류학적 연구가치가 매우 큰 지역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상, 특이한 지형·지세 및 기후적 특성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1.6.9. 양구 개느삼 자생지¹⁴⁾

개느삼은 평안남도, 함경남도, 강원도 양구 이북의 추운 지방에 분포한다. 줄기가 굵으며 키는 1m 정도로 자라고 넓은 잎은 봄에 돋았다가 가을에 떨어진다. 꽃은 황금색으로 이른 봄에 피며 줄기의 끝부분이 약간 꼬부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개느삼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일 뿐만 아니라, 양구 비봉공원 대암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이곳 양구의 개느삼 자생지는 개느삼이 자랄 수 있는 남쪽한계선이 되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14) 국가문화유산 포털(www.heritage.go.kr)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1.6.10. 양양 하조대(명승 68호)¹⁵⁾

명승 제68호인 양양 하조대는 한반도의 주요 지질구조를 이루는 화강암의 영향으로 온갖 기암괴석과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해안으로 주위의 울창한 송림과 어울려 동해안의 절경을 볼 수 있으며, 조선의 개국공신인 하륜(河崙)과 조준(趙浚)이 은둔하며 혁명을 도모한 곳이라 하여 하조대라 명하였다는 등 많은 설화와 전설이 담겨있는 자연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역사문화 경승지이다.

이곳은 해안에 돌출된 암석으로 이루어지는 해식애에 해당한다. 동해안에 직면하여 강한 해식작용의 영향으로 해안선에 분포하는 암석을 물리적으로 침식 파괴하여 형성되는 급경사의 해안절벽이다. 지형적 차이로 하조대 주변의 고지에서 조망되는 북쪽 해안선은 멀리 태백산맥의 산악지형과 대조적인 바다 모래사장이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고, 북쪽 모래사장에서 남측으로 조망되는 하조대 일대는 광활한 동해바다와 대조적인 돌출 단애가 경이로운 경관을 연출하여 우수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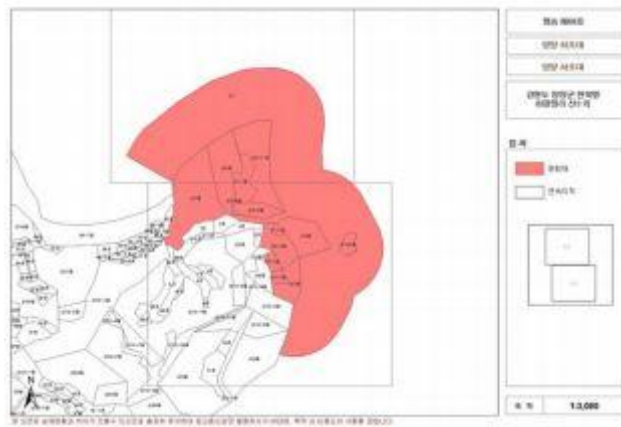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II-12> 명승 제68호 하조대

15) 국가문화유산 포털(www.heritage.go.kr)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16) 국가문화유산 포털(www.heritage.go.kr)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II-13> 하조대 명승 지정구역

따라서 이곳은 경관과 지형, 지질 등에 의한 다양성으로 보아 경관, 지형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계유산등재기준 (vii)항과 (viii)항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 문화재청(2015), 「천연기념물센터, 명승 및 경관자원조사연구 및 DB구축」, 150쪽

<그림 II-14> 명승 제73호 태백시 검룡소

1.6.11. 태백 검룡소

명승 제73호로 지정된 검룡소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91,745㎡) 금대봉 기슭 “검룡소”와 그 일대 계곡은 특이하고 아름다운 지형·지질학적 경관을 이루고 희귀한 동식물상이 있으며, 검룡소와 관련된 전설이 담겨 있는 역사문화 경승지이다.

태백의 “검룡소”는 석회암반을 뚫고 하루 2천 톤 가량의 지하수가 솟아 나오는 냉천(冷泉)으로 사계절 9℃ 정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20m 이상 계단형 폭포를 이루며 오랜 세월 흐른 물줄기로 인해 깊이 1~1.5m, 폭 1~2m의 암반이 폭 파여서 그곳으로 물이 흐르는데 용틀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검룡소는 넓게 분포하는 석회암 지대 한가운데에 발달하고 있다. 막동석회암 혹은 막골석회암 또는 막골층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생대 퇴적층군인 조선누층군의 상부층군에 해당한다.

1.6.12. 대관령 옛길

명승 제74호로 지정된 대관령 옛길은 강원도 강릉시 일원 대관령 고갯길로 519,156㎡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삼국시대부터 관련 지명이 사서(史書)에 기록된 곳으로, 대관령 옛길은 오래 전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역로이자 교통로로서, 영동지역민들에게는 관문이자 강릉의 진산인 곳이다.

대관령 옛길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이래 주요 교통로의 역할뿐 아니라 이 길을 이용한 수많은 민중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며, 또한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길로 백두대간의 큰 고개인 대관령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주변 계곡과 옛길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자료 : 문화재청(2015), 「천연기념물센터, 명승 및 경관자원조사연구 및 DB구축」, 150쪽
 <그림 II-15> 명승 제74호 대관령 옛길의 성황사 및 산신각

1.6.13. 강릉 용연계곡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에 위치한 용연계곡은 운계봉(530m)과 황병산자락 천마봉(1,015m) 사이의 사천천을 따라 형성된 계곡으로 전체길이는 약 6km에 달한다. 면적은 9.26 km²이다.

용연계곡은 하천의 침식·운반·퇴적작용과 풍화로 형성된 화강암 지형이 잘 발달된 곳으로 소규모 폭포(瀑布), 폭호(瀑湖), 담(潭), 소(沼) 등의 하천지형·암석하상·자갈하상이 연이어 펼쳐져 주변의 울창한 수목과 어우러져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지질·지형적 가치가 우수한 곳이다.

용연계곡은 계곡 최상류에는 높이 약 20m의 2단으로 형성된 수려한 ‘양지폭포’가 있어 계곡의 절정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계곡 하류를 향하여 계속되는 수많은 소와 폭포는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주며, 가을에는 계곡 암반사이로 쉽게 흐르는 초록빛 맑은 물과 계곡 주변의 짙게 물든 단풍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II-16> 명승 제106호 용연골 암반과 소

용연계곡 일원은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용연사가 있으며, 용연사의 불교문화와 용연계곡의 용소에서 거행하는 마을 전통제례문화행사, 사기막리 일원의 요업문화 등 역사문화적 요소도 가치가 큰 곳이다.

1.6.14.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명승 제108호 강릉 경포대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로385 일원으로 면적 1,04km²이다. 관동팔경의 하나로 고려말 충숙왕 13년인 1326년 지중추부사 박숙에 의해 창건된 누정 건물로 안축의 「鏡浦臺新亭記」記文에 “옛날 영랑선인이 놀던 곳이며 정자가 없어 비비람이 치는 날 놀러왔던 사람들이 곤욕스럽게 여겨 작은 정자를 지었다”라고 하여 창건목적은 밝히고 있어 역사성이 높다.



자료 : 문화재청(2015), 「천연기념물센터, 명승 및 경관자원조사연구 및 DB구축」, 150쪽

<그림 II-17> 명승 제108호 경포대와 경포호

또한 창건 당시 이전시대의 주춧돌과 장대석이 발견되어 훨씬 이전시대부터 이곳에 정자형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강릉지역 누정 기록으로 신라 성덕왕대 순정공(純貞公)과 관련이 있는 임해정과 술랑선도(述朗仙徒)와 관련이 있는 한송정을 통하여 현존하는 경포대와 더불어 강릉 지역의 누정문화의 시원이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관동팔경(關東八景) 중 하나인 경포대(鏡浦臺)는 지형·지질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석호인 경포호와 함께 동해안의 빼어난 절승지로 예부터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다녀간 명승지로서 명사들의 수많은 시·서·화가 있어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높다.

경포대와 경포호의 자연풍광을 관동팔경에 비유한 경포팔경과 호해정을 중심으로 한 팔경, 김극기의 강릉팔영 등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곳일 뿐 아니라 풍부한 문학적 소재성 등 문화적, 경관적 요소가 결합된 누정으로 장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1746년(영조 22) 김상성(金尙星, 1703-1755)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화원들에게 강원도 절경을 그리게 한 후 친한 사람들에게 시를 지어 완성한 작품이 관동십경(關東十景)인데 그 중의 경포대 그림은 경포대와 경호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부감법으로 그린 것이다.

경포호는 경포대를 경계로 하여 내호와 외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호수에는 낚시질을 하는 늙은 어부와 갈매기의 한가로운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호수와 바다가 경계되는 곳에는 백사장과 함께 현재의 죽도봉이 그려져 있고, 초당과 경포대 뒤쪽에는 소나무 사이로 꽃들이 만발하여 봄날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다.

정철(鄭澈, 1536-1593)의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경포대를 관동팔경 중 으뜸이라 했으며, 경포대에 저녁이 되어 달빛이 쏟아지면 하늘, 바다, 호수, 그리고 술잔과 임의 눈동자 등 다섯 개의 달을 볼 수 있는 동해안 제일의 달맞이 명소이다.

2. 남북 강원도의 문화유산

2.1. 종교 문화시설

2.1.1. 설악산 백담사

백담사는 과거 한계사로 창건 후 1772년(영조 51)까지 운흥사, 삼원사, 선구사, 영취사로 불리다가 1783년에 최봉과 운담이 백담사라 개칭하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백담사라는 사찰의 이름은 설악산 대청봉에서 절까지 작은 담이 100개가 있는 지점에 사찰을 세운 데에서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백담사는 내설악의 아주 깊은 오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좁처럼 찾기 힘든 수행처였고, 수많은 운수납자가 불원천리하고 이곳 백담사 계곡을 찾아 시원하게 흘러가는 계곡의 맑은 물에 객진번뇌를 털어냈다고 하는 데 사찰의 부속암 자로는 곳으로 동암, 원명암, 백련암, 축성암 등 8개의 암자가 있다.

일제강점기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사는 1905년 이곳 백담사에서 머리를 깎고 입산수도하여 깨달음을 얻어 ‘조선불교유신론’과 ‘십현담주해’를 집필하고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발표하는 등 불교유신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일제의 민족 침탈에 항거하여 민족독립운동을 구상하였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백담사에는 극락보전, 나한전, 산령각, 법화실, 화엄실 등 기존 건물 외에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학사상과 불교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만해기념관과 만해 교육관 외에도 일주문, 금강문, 불이문, 만복전, 요사채, 만해당, 농암실, 적선당 등 24개의 건물들이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찰이나 최근에 사찰의 근대적 시설들이 들어오고 옛 가람배치의 틀을 벗어나고 있어 세계유산등재 추진시 진정성과 완전성의 평가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항목이다.

2.1.2. 설악산 신흥사

신흥사는 설악산의 중심사찰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월정사와 함께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찰은 신라 진덕여왕 6년(서기 652)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고 하였다고 하며, 향성사라는 이름은 불교의 중향성 불토국(衆香城 佛土國)이라는 글에서 따온 것인데 중향성(衆香城)은 금강산(金剛山) 철위산(鐵圍山)을 의미하며, 불토국(佛土國)은 부처님께서 교화할 대상적 국토라는 의미와 정치적 형태의 국가라고 하는 뜻이 함께 활용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신흥사는 처음 향성사라 칭하여 설악산 입구에 있다가 능인암(현재 내원암)터에 선정사(禪定寺)라 개칭하였다가 조선 인조 20년(1642)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것을 2년 후 지금의 터에 중창하며 신흥사가 되었다.

절 이름을 신인(神人)이 길지(吉地)를 점지해 주어 흥왕(興旺)하게 되었다 하여 신흥사(神興寺)라 한 것이라 하며, 6·25전쟁으로 인하여 고성군 건봉사는 전소되었고, 영북 지역의 대본산 기능이 마비되었을 무렵 신흥사를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하여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다.

이후 신흥사는 영동지역의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불사를 전개해 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신흥사가 과거의 신흥사가 아니라 새로운 신흥사가 되었다며 신흥사(新興寺)의 귀신 신자(神字)를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신자(新字)로 고쳐 사용하자는 중론에 따라 1995년부터 영동불교를 새로 일으킨다는 염원을 담아 사명(寺名)을 신흥사(新興寺)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1.3. 금강산 건봉사

건봉사는 520년(신라 법흥왕 7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하고 원각사라 하였으며, 758년에 발진화상이 중건하고, 정신, 양순 스님 등과 염불만일회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염불만일회의 효시라고 한다. 여기에 신도 1,820인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서 120인은 의복을, 1,700인은 음식을 마련하여 염불인들을 봉양하였다. 787년에 염불만일회에 참여했던 31인이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어서 극락에 왕생하였고, 그 뒤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왕생했다고 한다.

이로써 아미타 도량이 되었습니다. 고려말 도선국사가 절 서쪽에 봉황새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하여 절 이름을 서봉사로 바꾸었고, 1358년에는 나옹스님이 중건하고 건봉사로 개칭하여 비로소 염불과 선, 교의 수행을 갖춘 사찰이 되었다.



자료 : 건봉사

<그림 II-18> 건봉사 대웅전(일제강점기)

1465년에는 세조가 이 절로 행차하여 자신의 원당으로 삼은 뒤 어실각을 짓게 하고 전답을 내렸으며, 친필로 동참문을 써서 하사하였다. 이때부터 조선왕실의 원당이 되었는데, 성종은 효령대군, 한명회, 신숙주, 조흥수, 등을 파견하여 노비, 미역밭과 염전을 하사하고 사방 십리 안을 모두 절의 재산으로 삼게 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사명대사가 승병을 기병한 곳으로 호국의 본거지였으며, 1605년에는 사명대사가 일본에 강화사로 갔다가 통도사에서 왜군이 약탈하여 갔던 부처님 치아사리를 되찾아 와서 이 건봉사에 봉안한 뒤 1606년에 중건하였다.

1802년에는 용허 석민스님이 제2회 염불만일회를 열었으며, 1851년에는 벽오 유충스님이 제3회 염불만일회를 열었고, 1878년 4월 3일에 산불이 일어나서 건물 3,183칸이 전소되었는데 다음 해에 대웅전, 어실각, 사성전, 명부전, 범종각, 향로전, 보안원, 낙서암, 백화암, 청련암을 중건하였다.

1881년에는 만화 관준스님이 제4회 염불만일회를 설치하였고, 1906년에는 신학문과 민족교육의 산실인 봉명학교도 설립하였고, 옛부터 있던 돌무더기의 소신대에 31인의 부도를 세우는 한편 1921년 인천포교당과 봉림학교를 세운 한국 4대 사찰이면서 31본산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건봉사와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건봉사에 봉안된 진신 치아사리는 신라시대 자장법사가 636년(선덕왕 5년) 중국 오대산에 건너가 문수보살전에 기도 끝에 얻은 진신사리 100과중 일부라고 하는 데, 자장법사는 643년 귀국하여 이 사리들을 통도사, 상원사, 범흥사, 정암사, 봉정암에 나누어 봉안하였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통도사의 사리를 탈취해 갔고, 그 뒤 사명대사가 일본에 건너가 통도사 사리를 되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12과를 나누어 귀중한 진신사리가 다시 약탈될 경우를 우려해 인연이 있는 건봉사에 봉안하였다.(석가여래치상탑비)

그 이후 1986년 6월 사리탑이 도굴되면서부터 치아사리를 훔쳐갔으며, 그후 도굴꾼들이 일부인 8과를 돌려주고 4과를 가지고 달아나서 현재는 8과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

국내에 진신사리가 봉안된 사찰은 더러 있으나 건봉사처럼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봉안된 곳은 없고, 건봉사 진신 치아사리는 사명대사가 봉안하였다고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치아사리는 세계에 15과 뿐인데 건봉사에 12과 스리랑카(불치사)에 3과가 보관된 희귀한 보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서 충분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



자료 : 건봉사

<그림 II-19> 건봉사 치아 진신사리

2.1.4. 금강산 장안사

금강산의 대표적 사찰의 하나로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되었다는 설과, 551년(양원왕 7) 고구려의 승려 혜량(惠亮)이 신라에 귀화하면서 왕명으로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다. 그 뒤 773년(혜공왕 9)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중수하였고, 1343년(충혜왕 복위 4) 원나라 순제(順帝)의 왕후 기씨(奇氏)는 고려인으로서 퇴락한 당우를 중건하고 새로운 누각을 건립하게 했는데, 지극한 정성과 뛰어난 솜씨는 금강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작품이었다고 한다.

이 절은 입구에서부터 일주문(一柱門)·운성문(雲性門)을 거쳐 만천교(萬川橋)라는 징검다리를 건너면, 숲 사이로 만수정(萬水亭)이 있고 그 안에는 ‘금강산장안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그 안의 오른쪽으로는 대향각(大香閣), 왼쪽으로는 극락전,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곳에는 본전인 대웅전이 있다. 1945년 이전까지는 6전(殿)·7각(閣)·1문(門)을 가졌으나 그 규모는 옛날에 비해 축소된 것이고, 부속 암자로 장경암(長慶庵)·안양암(安養庵)·지장암(地藏庵)·영원암(靈源庵) 등을 가진 금강산 4대 사찰 중의 하나였다.

2.1.5. 금강산 유점사

유점사(楡岾寺)는 강원도 금강산의 내금강 지역에 있는 사찰이다. 북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서 강원도 고성군에 해당하고, 금강산지역에 편입되고 있다.

유점사는 금강산 권역의 장안사, 신계사, 표훈사와 함께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이며, 금강산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기도 하다. 신라시대에 지어져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거치며 크게 융성했고, 일제강점기에도 31본산의 하나로 금강산의 많은 절과 암자를 관리하기도 한 중심 사찰이다.

유점사의 전설에 따르면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죽음 이후 불상을 53개 조성하여 바다에 띄우면서 인연이 닿는 곳으로 가기를 발원했다. 서기 4년인 신라 남해왕 때 수백년 동안 바다를 떠돌던 이 53불상이 타고 온 종이 동해를 통해 신라에 도착하여 그 자리에 절을 세웠다는 것인 데, 전해지는 창건 연대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이라 대체로 전설로 추정하지만, 이를 근거로 남방불교의 전래시기를 올려잡는 경우도 있다. 일제 강점기까지 유점사 능인전에는 53불 중 50불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조선 왕조의 억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교 성지인 금강산에 자리 잡은 유점사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조선 세조는 유점사를 왕실의 복을 비는 원당으로 지정하고 직접 금강산을 방문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까지도 왕실 원당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왕실의 두터운 지원을 받았다. 인목왕후도 서궁에 유폐되었을 때 친필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전쟁 중 미군의 폭격으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이로 인해 40여 동의 건물이 사라져 폐허가 되고 석등, 석탑을 포함한 문화재도 소실되었다.

2.1.6 오대산 월정사

오대산은 예로부터 국내 유일의 문수성지 선산으로 알려져 있다. 입구에 ‘月精大伽藍’(월정대가람)이란 탄허 큰스님이 쓰신 편액이 걸려 있는 일주문을 들어서면 하늘을 이은 전나무 숲길 속으로 울창한 산림을 만나게 된다. 신라 선덕여왕 당시

자장율사는 638년 당나라 유학길에서 중국의 산서성 오대산에서 참배하여 문수보살을 친견하였다 한다.

거기에서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 및 발우를 받아가지고 643년 서라벌로 돌아와 황룡사 구층목탑과 불보사찰인 통도사를 건립하였고, 이후 오대산을 찾아 중대 지로봉에 석가모니 정골사리를 봉안하고 현재의 월정사 터에 초막을 짓고 문수보살 친견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 것이 개산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신라 신문왕의 아들인 보천과 호명이 오대에서 오만 불보살을 친견하고, 동대관음암·남대지장암·서대수정암·북대미륵암·중대사자암 등의 장엄불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조성된 월정사는 한국 불교 고승들의 오랜 수행처가 되었고, 중생들의 귀의처로 불법을 알리는 중심 사찰이 되고 있다.

오대산은 주봉인 비로봉(1,563m) 아래 1,4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월정사, 상원사, 중대 적멸보궁을 비롯한 여덟 곳의 사찰과 암자를 품고 있는 월정사는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절로 신라·고려·조선을 거치면서 역사의 주요 인물들의 발자취와 함께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조선 선조 때 『조선왕조실록』과 기록물 및 족보 등을 보관하던 외사고가 오대산에 설치되면서 사고를 수호하는 사찰로 월정사의 사격이 한층 높아졌다.

일제 강점기에는 근현대 불교의 대선지식인 한암스님이 산문을 나가시지 않고 승풍진작과 불법중흥을 일으켜 수행불교의 위상을 높였고, 한국전쟁 중에는 오대산 사찰과 암자가 전소되어 월정사는 창건 이래 큰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이후 탄허스님과 만화스님의 법력으로 현재의 적광전을 중건하며 가람의 면모를 갖추었고, 현해스님과 정념스님의 원력으로 불교수행관과 여러 장엄불사가 이루어져 지금의 대가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2.1.7 오대산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는 월정사와 함께 오대산에 중요 사찰인데, 동 사찰은 신라 성덕왕 705년에 창건된 사찰이며, 성덕왕은 효명왕자로 형인 보천과 함께 오대산에서 문수

보살을 친견한 것이 창건의 계기가 되었다 한다.

적멸보궁의 수호사찰로 사찰의 격이 커졌으며, 조선시대 세조는 신미대사의 권유로 상원사에 와서 목욕할 때 문수동자와 만남으로 피부병이 낫게 되자 문수동자상을 조성해 봉안하게 되고 상원사를 중창하였다고 한다. 상원사중창권선문이 전해져오고 있는데, 한글 친필문서로 한글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현재 성보박물관에 보관·전시되고 있다.

2.2. 관동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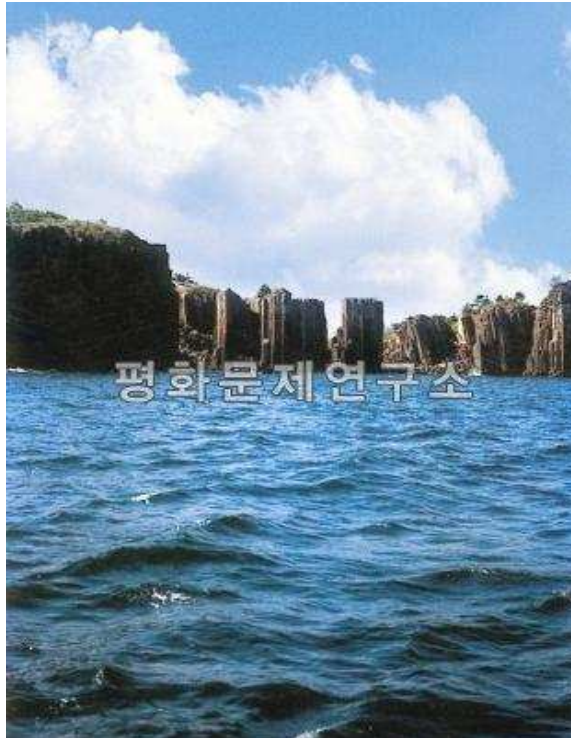
2.2.1. 일반 개황

지금의 동해안은 해안선의 형태가 단조로운 편이며, 강릉 이남 해안은 암석해안으로 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편이다. 사빈해안의 경우는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며, 사주가 발달하여 석호를 이룬 경우도 많은데, 강원도의 석호는 경포호, 청초호, 영광호, 화진포호, 삼일포호 등이 유명하고, 암석 해안의 경우는 해석단애를 이루어 경관이 빼어난 곳이 많은데 하조대, 청간정, 의상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관동지방, 즉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에 있는 8개소의 명승지가 있는데, 강원도 고성외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양양의 낙산사 등이 있고 북한 지방에 고성의 삼일포를 비롯하여 통천의 총석정이 있으며, 나머지 2곳은 경북 울진의 망양정과 월송정이 그것이다.

이들 명승지는 관동지방의 수많은 경승지 중에서 특히 예로부터 손꼽혀 온 경승지로 종래 강원도에 속했던 망양정과 월송정은 현재 경상북도에 편입되었고, 또 삼일포와 총석정은 6.25전쟁 이후에 북한지역에 들어 있다.

관동팔경은 예로부터 칭송되어 온 명승지인 만큼, 이곳을 노래한 시가와 이곳에 얽힌 전설들이 많은 데, 특히 조선 선조 때 정철이 지은 관동별곡과 금강산 일대의 산수미를 읊은 관동팔경이 유명하고, 또 신라시대의 이후에 여러 가지 전설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남북강원도에 위치한 6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 평화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cybernk.net>)

<그림 Ⅱ-20> 총석정

2.2.2. 총석정

강원도 통천군에 있는 정자이다. 고저의 동쪽, 동해의 돌출한 총석리의 해식단애 지대에 정자가 서 있는데, 정자 아래 바다 속에 구리 빛으로 그을은 현무암의 6각형 돌기둥(주상절리)이 여러 개의 절경을 이루고 있는 데 돌기둥의 어떤 것은 높이가 100척을 넘는다.

고려시대 때 중국 원 말기 순제의 기황후의 오라비로 세도를 부리던 기철이 총석정에 올라 동해를 굽어보며 지었다는 ‘총석정’ 이라는 가요가 있었으나, 현재 가사는 전하지 않고 고려사 악지에 그 유래만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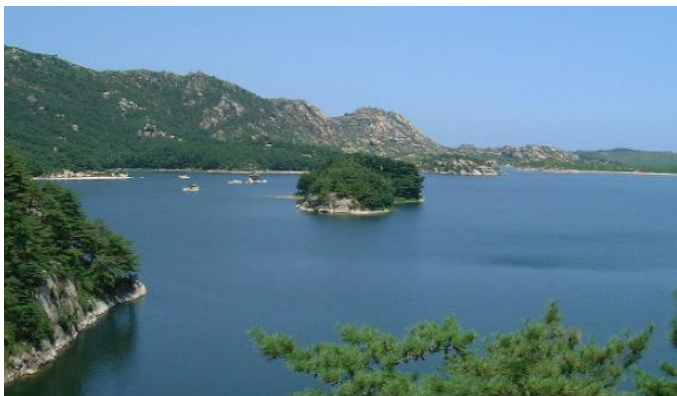
2.2.3. 삼일포

고성에서 온정리로 12km 가량 가면 북쪽으로 언덕 너머에 삼일포가 있는데, 면적 약 0.7km, 둘레 4.5km의 석호로 북서쪽에 거암이 솟아 있고, 남쪽 호안에는 기암이 많은 구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라시대에 영랑, 술랑, 납석랑, 안상랑 등 시국성이 호상에서 선유하면서 절경에 매료되어 3일 동안 시일이 돌아가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삼일포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고 사선정, 복천암 등이 있다.

삼일포는 본래 만이었다고 하는데 모래가 바다의 해류작용으로 운반되어 쌓이게 되어 만 앞이 막혀 이루어지게 된 석호이다. 해수면이 현재의 높이에 이른 약 6,000년 전 바닷물이 삼일포를 지나 북강 상류 안쪽으로 온정리 부근의 금강 제1, 제2교가 있는 곳까지 밀려들어왔고 육지에서 공급된 토사가 호수의 입구를 막아 바닷물이 호수가 된 것이라고 한다.

관동팔경의 하나이나 현재는 휴전선 이북에 있다. 삼일포에는 장군대와 봉래대, 연화대, 금강문, 몽천, 와우도, 단서암, 무선대, 사선정토, 매향비 등 명소들이 있어서 볼거리가 많고 아름다운 곳이다.



자료 : 위키백과

<그림 II-21> 삼일포 전경

2.2.4. 청간정

현재 남한의 강원도 고성군 청간리 해안에 우뚝 솟은 기암절벽에 세워진 정자로 지방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설악산에서 흘러내리는 청간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정자가 있는데 이 속에서 바라보는 동해안의 풍경이 일품이며, 특히 아침의 해돋이 광경과 낙조의 정취는 예로부터 많은 시인·묵객의 심금을 울렸다 한다.

맨 처음으로 지은 해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중종 15년인 1520년에 고쳐지었다는 역사 기록으로 미루어 꽤 오래된 듯하나 그때의 정자는 갑신정변으로 1884년에 불에 타 버렸고, 지금의 정자는 1928년에 다시 지은 것을, 1981년에 너무 낡았다고 하여 해체 복원한 것이다.

2.2.5. 낙산사¹⁷⁾

강원도 양양군 오봉산에 있는 절인데, 671년(신라 문무왕 11) 양상 조사에 의하여 세워졌다고 하며, 858년(헌안왕 2)의 범일의 중건을 비롯하여 몇 차례의 중건을 거듭하였으나, 결국 이곳이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말았으며, 최근 낙산사의 산불화재로 최근에 다시 지은 것이다.

이 절에는 조선시대 세조때 다시 세운 7층 석탑을 비롯하여 지방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어 원통보전과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있으며, 절의 들머리에 있는 홍예문은 1465년에 따로 세워졌는데, 그때의 강원도 고을 수효대로 화강암 26개를 긴 네모꼴로 다듬어 반달모양으로 쌓아서 만든 문으로 지방 유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 동종이 있으며, 근년에 세워진 해수 관음보살상으로 유명하다.

17)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2.2.6. 경포대

경포호를 배경으로 호수 주위의 노송림과 벗나무가 유명한 경포대는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면 6칸, 측면 5칸, 기둥 28쌍의 팔작지붕 겹처마의 기와 집의 누대와 오죽헌에 있던 율곡이 10세 때에 지었다고 하는 경포대부를 판각하여 걸었다. 또한 숙종의 어제시를 비롯하여 여러 명사들의 기문, 사판이 걸려 있다.

1326년(고려 충숙왕 13)에 안무사 박숙정이 현 방해정 북쪽에 세웠으며, 1508년(조선 중종 3)에 부사 한파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포대를 중심으로 하여 8경이 있는데, 녹두일출, 죽도명월, 강문어화, 초당취연, 홍장야우, 중봉낙조, 환선취적, 한사모종을 말한다. 즉, 해돋이, 저녁달, 고기잡는 불, 밥 짓는 연지, 저녁 비, 낙조, 피리소리, 절의 종소리까지를 포함하는데 매우 감흥적인 것이 특징이다.

2.2.7. 죽서루

강원도 삼척시 성내리에 있는 누각이다. 오십천가의 낭떠러지 위에 있으며, 이층 누각으로 아래층의 기둥이 17개, 위층의 기둥이 20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물 제 213호로 1275년(고려 충렬왕 1)에 훈관벼슬에서 은퇴한 이 고장 출신 이승휴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조선조 태종 때, 김호손이 증건하고 성종 때 이중수, 숙종 때 이성조가 또 중수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손질을 거듭했다고 하는데, 누각 정면의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은 이성조가 썼고, ‘해선유희지소’라는 서액은 이규선의 글씨이다. 이곳의 절경을 읊은, 정조의 시가 게시되어 있고, 이율곡을 비롯한 많은 명사들의 시도 게시되어 있다.



자료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그림 Ⅱ-22> 죽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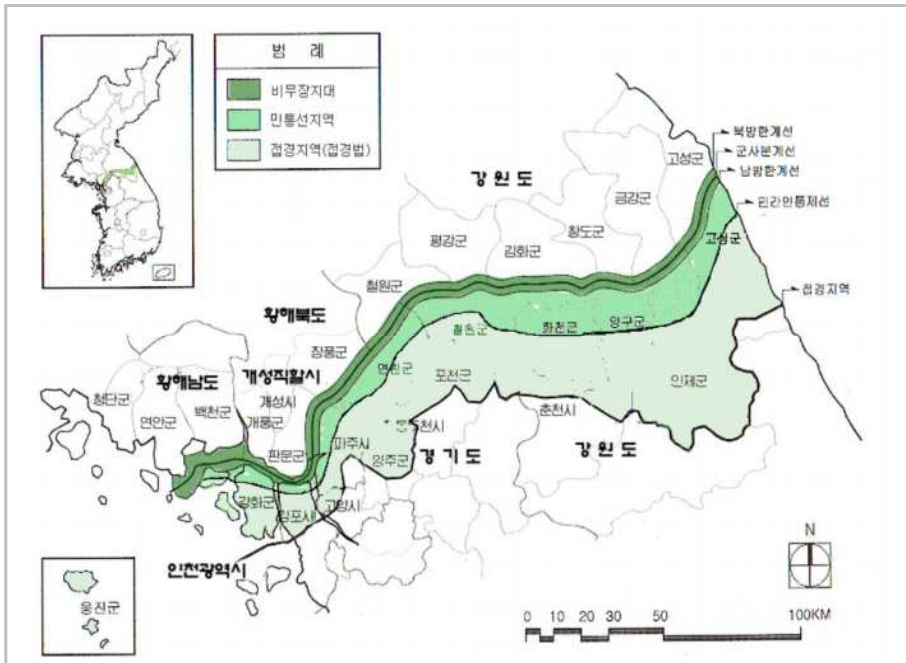
<표 Ⅱ-4> 관동팔경의 특징

구 분		특 징
1	총석정	통천군의 정자와 해안 기암괴석
2	삼일포	고성군의 석호, 巨巖, 기암
3	청간정	기암절벽의 정자→지방유형문화재 32호
4	낙산사	오봉산의 절, 671년 건축, 6.25때 소실로 1953년 중건
5	경포대	경포호, 노송림과 빛나무, 지방유형 문화재 제6호, 오죽헌
6	죽서루	삼척읍성내리의 누각, 오십천 낭떠러지에 위치
7	망양정	울진 근남 산포리, 정철이 관동제1경으로 칭함
8	월송정	울진평내월송리, 울창한 송림, 달을 즐기며 놀던 장소

2.3. 비무장지대(DMZ)

2.3.1. DMZ 일반 개황

DMZ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이북 지역(1,370km²) 및 접경지역(6,216km²)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하는 데, 지난 1953년 휴전 이후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출입제한 등으로 산림과 초지로 조성되어 있으나 남북간 상호 방어를 위한 철책 및 참호 그리고 잠복제거 및 방호를 위한 산불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중 산림 및 초지 비율이 DMZ 내부가 97.4%, DMZ 외부가 75%에 이르고, 67종의 멸종 위기 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물 서식 등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료 : 국립 산림과학원(DMZ(비무장지대) 일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 및 관리 방안

<그림 II-23> DMZ 생물권보존구역도

한편 DMZ의 대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 실태 파악은 1940년대의 농지개혁 및 토지 개혁 시 상실된 토지 공부 등이 회복되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다. DMZ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관련 통계 파악이 어렵고, 출입통제와 지뢰 매설 등으로 현장 확인 조사도 곤란한 실정이다.

DMZ는 역사적 상징성은 물론 계산할 수 없는 생태·환경적인 가치를 지녀 통일 후에도 엄격한 보전을 통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 및 인문적 유산이다.

DMZ 외부 일원(민통선·접경지역)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지역이 57.6%, 2등급 지역이 17.6%, 3등급 이하 지역은 24.8%로 생태계보전대책 필요한 현실에 있다. 또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도래지이며 생태·경관우수지역으로서 생태경관 및 야생동물보호지역 26개소, 습지 17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DMZ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한반도 전역의 군사적 대치선을 중심으로 하고 그 남북 2km를 그은 지역이다. 따라서 DMZ는 당시에 초토화되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후 50여 년간 인적의 침입이 끊기면서 이 지역은 자연이 자생력으로 스스로를 복원한 지역이다. 인위적으로 완전히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지금은 회복하여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로 전변되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자연생태계가 인간의 간섭 없이 자기조절로 복구되어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역으로 변모하였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손상과 오염으로부터 격리된 유일한 국토가 되었다.

물론 전쟁 이후 남북한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요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DMZ의 자연이 훼손된 부분이 있고 또 생물다양성이나 생태적 여건이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때 차이가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DMZ는 희귀동식물과 희귀어류가 서식하고 조류가 도래하는 생물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으며 수질, 대기, 토지의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을 DMZ의 평화적 이용이란 이름 아래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것은 한반도 유일의 자연의 보고, 민족의 천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한국전쟁 중 DMZ 내의 문화유산이 크게 훼손되었지만 아직까지 이곳에는 고인돌과 같은 선사시대의 유적은 물론 삼국시대, 태봉국, 고려시대의 가치 있는 문화사적(왕궁, 산성, 사찰, 고분)이 산재해 있거나 그 흔적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DMZ는 반세기 전 우리가 살던 집과 가꾸던 농경지, 우리가 닦아 놓았던 길과 우리가 공유하던 공공시설, 선조들이 남겨 놓았던 슬기, 그때의 풍습과 풍속까지 고스란히 묻혀 있는 문화의 유적지이다. 풀 쉼을 헤치면 옛 집터들이 드러날 것이고, 검은 구들장과 돌담들은 그 집이 7자 집이었는지, 마을이 남향을 향해 있었는지 동향을 향해 있었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일제 강점기 때 건설한 남대천 양회 다리는 당시 시멘트를 양생하는데 모래와 자갈의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 줄 것이며 금강산으로 가던 허물어진 5번 국도에서는 당시 도로들의 설계와 시공 방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즉, DMZ는 우리 민족 각 시대의 역사, 문화, 수난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역사의 산 현장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남북한 어느 쪽에서도 DMZ에 대한 유적 발굴, 학술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문화유산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부터도 잔존한 문화재마저 복원되지 못하고 폐허인 채로 50여 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DMZ 일원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이북 지역(1,370km²) 및 접경지역(6,216km²)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하는 데 지난 67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출입제한 등으로 산림 및 초지 비율이 내부지역이 97.4%, 외부 지역이 75%에 이르고, 67종의 멸종 위기 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물 서식 등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한편 DMZ의 대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 실태 파악은 1940년대의 농지개혁 및 토지 개혁 시 상실된 토지 공부 등이 회복되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다. DMZ 남북간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관련 통계 파악이 어렵고, 출입통제와 지뢰 매설 등으로 현장 확인 조사도 곤란한 실정이다.

DMZ는 역사적 상징성은 물론 계산할 수 없는 생태·환경적인 가치를 지녀 통일 후에도 엄격한 보전을 통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자산이다.

DMZ 일원(민통선·접경지역)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이 57.6%, 2등급 지역이 17.6%, 3등급 이하 지역은 24.8%로 생태계보전대책 필요한 현실에 있다. 또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도래지이며 생태·경관우수지역으로서 생태경관 및 야생동물보호지역 26개소, 습지 17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3.2. 문화 유산적 의미

DMZ가 지니는 문화 유산적 의미는 다양하다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DMZ 일원은 오랜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쟁은 중단되었지만,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더욱 고착화되고, 서로 대치해 있으며, 비무장지대는 군사적으로 충돌이 계속되어 왔다. 더욱이 세계사적으로도 볼 수 없는 약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가장 강력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상징적 공간이기도 한다.

둘째, DMZ는 지난 67년간의 분단의 한계로 미 이용 지역이면서 많은 타 지방 사람이 바꾸면서 삶을 영위하여 나름대로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DMZ에는 국가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북한의 계획적인 선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1959년부터 자립안정촌 96개, 1968년부터 1973년 사이 재건촌 12개, 1973년 통일촌 2개를 건설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마을은 월남한 북한사람들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이 지역의 문화에는 다양한 풍속과 풍습이 혼재되어 있고, 각 지역에서 유입된 군인들의 문화까지 흡수되어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DMZ 일원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18) 전성우 외(2003), 「DMZ환경보전기본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함.

역사유적들이 산재해 있고, 살아있는 역사유적지이다.

특히 철원을 중심으로 한탄강과 철원평야 일대에는 후삼국시대(후 고구려의 태봉), 조선시대 병자호란과 관련된 문화유적이 많고, 강원도의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지역에도 많은 역사유적지가 산재해 있으며,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이기도 한 이 지역은 전쟁유물과 안보유적지가 전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넷째, DMZ는 독특한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DMZ의 자연 생태계를 살펴보면, 일부지역은 민간인의 출입과 개발이 제한되어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일부지역은 군사적 목적에 따라 시계 확보를 위한 산불 등의 산림관리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울창한 원시림이기보다는 초지가 많기도 하며, 초본식물의 성장이 활발하여 생물다양성과 초식 동물의 번식이 우수하다. 특히 향로봉산맥 지역, 대암산·두타연 지역, 철원평야 지역 등은 뛰어난 자연생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DMZ는 세계적 유일의 이데올로기 상징의 땅으로서 의미가 있다.

DMZ가 지니는 상징성이 군사적 대치, 긴장과 대립, 침묵과 고통에서 평화·생명으로 바뀌고 있는 있으나, 세계적으로 유일한 20세기 이데올로기 대립의 상징이며,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2.3.3. DMZ의 생태적 가치¹⁹⁾

첫째, 우수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있다.

DMZ의 환경보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생물다양성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1970년대 이후 DMZ에 대한 생태계조사 자료 70여건을 취합하여 분석·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2,716여종의 야생 동·식물 및 67종의 멸종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청의 1995년부터 2000년까지 DMZ를 대상으로 산림생태계를 조사한

19) 전성우 외(2003), 「DMZ환경보전기본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함.

결과를 보면, 지역의 생태계는 식물 1194종(희귀종 34, 특산종 48), 척추동물 348종(희귀종 50, 천연기념물 6), 미생물 340종(신종 2, 미기록종 4), 무척추동물 314종(미기록종 5, 희귀종 4)으로 조사되었다(산림청 임업연구원, 2000).

이는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강원도에서 동해안과 향로봉주변 지역, 대암산·두타연 지역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동해안의 화진포는 천연기념물인 흑고니의 도래지로 유명하고, 남강의 지류인 고진동 계곡에서는 금강모치, 버들가지, 종개, 미유기 등이 발견된다. 이 중 금강모치는 지구상에서 한반도에만 서식하고 있는 종으로 동해로 유입되는 수계에서는 이곳에만 유일하게 분포한다.

DMZ 중 향로봉산맥 주변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대부분이 민통선지역에 해당되며, 지형적 특징으로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고, 야생동식물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풍부하다. 향로봉과 건봉산 일대는 잘 보전된 식생으로 인하여 1973년 문화재관리법(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247호인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한의 설악산과 북한의 금강산을 잇는 생태통로(eco-corridor)의 역할을 하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대암산·두타연 지역은 향로봉산맥 지역과 연결되고 북한에 위치한 무산(1,319m), 매봉(1,290m)을 통하여 금강산권역과 연결되는 지역이다. 대암산·대우산 일대는 1973년 천연보호구역 제24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암산에는 남한 내의 유일한 고층 습원인 용늪이 자리하고 있는데 용늪은 독특한 생물상과 생태를 가지고 있어 환경부의 생태계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랍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있다.

양구군의 두타연 일대는 열목어 서식지로 유명하며 이외에 금강모치, 쉬리, 배가사리, 돌상어, 미유기, 꺾지 등 한국고유종이 집단서식하고 있어서 자연생태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둘째, 특이한 자연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DMZ의 환경보전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특이한 자연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DMZ가 인위적인 개발이나 간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라는 것이다. DMZ의 토지이용은 산림 75.5%, 농경지 2.8%, 초지 20.3%, 습지 1.1%, 나지 0.1%, 수역 0.2%로 되어 있다.

셋째, 비무장지대는 높은 생태적 보전가치를 지니고 있다.

DMZ의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은 생태계 보전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이 개발로부터 얻어지는 이익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인데, 즉 이 지역의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과 생태계보전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DMZ 일원의 진정한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DMZ의 생태자원은 토지자원이 어느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공익기능을 가진 자연생태자원이고, 국가적 자산이므로 일반국민이 공유하는 공익재산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세계적인 생태-평화지역의 가치가 있다.

국내보다는 국외에 더 잘 알려져 있는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판문점과 DMZ에 가보고 싶어 하는 내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남북분단의 현장을 보고 싶어하고,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그 지역을 궁금해 하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도 있다.

3. 남북 강원도 자연 및 문화유산 조사 종합

3.1. 남북 강원도 자연유산 종합

일반적으로 유산(Heritage)이라 함은 유네스코(UNESCO)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을 유산이라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세계유산”이라 함은 한 나라, 한 국가에서만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유산이라는 의미이며,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지닌 유산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문화유산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구분되어지는 자연유산도 보존되어야 할 한 국가의 자산으로 보아 문화유산으로 지칭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vii ~ x 항의 기준으로 보면,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포함한 지역으로부터 생명 관련 자연 지리적 특징을 갖춘 지역, 그리고 생태, 생물학적으로 진화, 발전의 진행과정이 입증되는 지역, 지구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에 의미가 큰 지역을 세계 자연유산의 대상지역으로 보고 있다.

남북 강원도의 경우, 한반도를 형성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으로는 강도가 강한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지질적 특징과 반도 지형의 근간이 되는 백두대간의 중심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지적으로 반도의 위치에 있어서 내륙성 기후와 해양성기후를 아우르는 입지적 특징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해양을 연계하면서 만들어진 자연 지리적 특징 등의 다양성을 지니게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자연유산으로서의 기반이 된다 할 것이다.

남북강원도의 자연 환경적으로 가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는 백두대간을 기반으로 형성됨에 따라 백두대간이 가지는 지형과 지질적 가치를 논할 수 있다. 특히 남북강원도의 입지가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포

함하고 있는 금강산은 그 범위를 고성군의 건봉사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지질 구조상 설악산과 연계되고 있어서 지리, 지형적 특성상 남북강원권 지역이 상호 연계해야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강원권으로 대별되는 금강산, 설악산지역은 중심 봉우리의 높이가 1,400m에서 1,800m의 비교적 고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고지형에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과 자연미적인 중요성은 세계자연유산의 기준이 되는 자연현상과 지질학적 생물학적 가치를 부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북강원권 해안의 특징은 해안지역의 아름다움, 즉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4,000년에 걸쳐 형성되었고,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석호는 남한의 강원지역만 해도 18개에 이르는 등 그 형성과정으로부터 생물 다양성, 생태·생물학적으로 가치를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석호는 수심이 얇고, 해수와 육수지역으로 구분되고 서로 다른 염분 농도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특성과 생물 다양성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세계자연유산의 경우, 생태·생물학적 가치와 지구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에 있다고 하고 있는 데, 남북강원도는 남북 분단이 약 70년에 이르는 동안 DMZ를 중심으로 식생의 보존관리가 자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천연적 보존지대로 알려져 있고, 금강산과 설악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식물자원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남북강원도 지역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반달곰을 비롯하여 산양과 여우 등의 특수한 동물의 서식지로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3.2. 남북 강원도 문화유산 종합

특정국가에서 세계유산의 의미는 그 국가의 자부심을 표출하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데, 이는 그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역사, 전통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로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역사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독특한 자연과 문화적 가치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유산은 그 유산을 지닌 국가만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유산이다. 특히 모든 세계유산이 동등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화유산은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고, 독특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더욱더 보존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인류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강원도 문화유산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북 강원도에 산재한 문화유산 중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전통을 유지하면서 이어져 온 불교문화의 집산지로서 남북 강원도의 가치를 예로 들 수 있다. 사실 남북 강원권의 지리적 특성으로 금강산을 시작으로 하여 설악산, 오대산으로 이어져 오는 백두대간 내의 불교문화는 삼국시대로부터 전승되어온 전통문화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백두대간의 불교문화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5대 적멸보궁 중에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정선 정암사, 그리고 영월에 법흥사 등 4곳이 강원도에 위치해 있고,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등의 산봉을 비롯하여 산, 해안, 계곡 등에 분포한 아기자기한 기암괴석은 불교와 관련된 명칭과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지역이기도 하다.

금강산은 북한지역의 유점사, 신계사, 장안사를 비롯하여 남한지역 건봉사 4대 사찰의 하나이면서 역사와 문화가 독보적이거나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건봉사의 석가모니 치아, 진신사리를 비롯하여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많은 수의 사찰은 남북 강원권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유산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DMZ는 지난 19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세계사적 전쟁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DMZ는 한국의 해방이후, 남·북간의 대치로 인하여 지난 67년간 자연을 간직해

은 역사 현장으로서 다양한 동식물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온 세계사적으로 독특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쟁의 참화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으며, 참혹한 군사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발굴되지 못한 1,000년 전의 태봉국 역사까지도 고스란히 간직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한 곳이다.

DMZ의 문화적 가치를 정리해 보면,

- ① 오랜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 ② 국내에서도 분단과 분쟁의 역사에 따라 남북한을 비롯한 각 지역 등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오며 따라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간직해오고 있는 지역이다.
- ③ 반도의 중심에 위치해서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그리고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의 중심에 있는 등 많은 역사유적들이 산재한 역사 유적지이다.
- ④ 기후나 지형적 특징에 따라 독특한 자연 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이다.
- ⑤ 세계유일의 이데올로기 땅이라고 할 수 있다.

DMZ의 생태적 가치로 보면

- ① 우수한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 ② 독특한 자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 ③ 높은 생태적 보전가치를 지니고 있다.
- ④ 세계적인 생태평화지역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셋째, 남북 강원도에 분포하고 있는 관동팔경은 오랜 분단의 장소이면서도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우수한 문화적 자산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한국의 동해안은 단조로우면서도 암석해안으로 형성되어 나름대로의 경관과 가치를 창조해 오고 있다. 남북 강원권의 동해안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우수한 경관지인

관동팔경은 북한지역에 총석정과 삼일포를 가지고 있으며, 남한지역의 강원도에 4경, 즉 청간정, 낙산사, 경포, 죽서루인데, 이들 자원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우수한 경관지로 다양하게 보존되고, 관리되어오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단독적인 자원의 유산적 가치라기보다는 동해안의 명승으로서 독특한 자원을 보호, 보전하는 의미에서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DMZ는 상기와 같이 문화 및 자연 유산적 가치를 갖고 있으나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재신청서 작성 1년 전에 유네스코 세계잠정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DMZ는 잠정유산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남북한 정부협력과 국제적 절차에 의한 잠정유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현재 남강원도의 설악산권이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잠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북강원도의 금강산과 주변 건축군이 2002년 세계잠정유산으로 등제되어 있어 이들 두 유산의 세계유산을 추진하면서 남북강원도의 DMZ포함하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된다.

Ⅲ

남북 강원권 유산의 세계화 현황

1. 남한 유산 세계화 현황

1.1. 남한의 잠정유산 현황

남한 강원도의 설악산자연보호구역이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유산으로 등재되어있다. 2019년 8월 현재 유네스코 잠정유산(Tentative Lists)에 등재되어 있는 남한의 유산은 아래와 같이 13건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1. Ancient Mountain Fortresses in Central Korea(11/01/2010)
2. Daegokcheon Stream Petroglyphs(11/01/2010)
3. Gaya Tumuli(28/01/2019)
4. Kangjingun Kiln Sites(01/09/1994)
5. Mt. Soraksan Nature Reserve(01/09/1994)
6. Naganeupseong, Town Fortress and Village(11/03/2011)
7. Oeam Village(11/03/2011)
8. Salterns(11/01/2010)
9. Seoul City Wall(23/11/2012)
10. Sites of fossilized dinosaurs throughout the Southern seacoast (25/01/2002)

11.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s(11/01/2010)
12.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24/01/2017)
13. Upo Wetland(11/01/2011)

위의 잠정유산 중 남측 강원도에 속하는 잠정유산은 1994년 11월 3일 세계유산 센터에 등재된 “Mt. Soraksan Nature Reserve(설악산 자연보호구역)”이다.

1.2. 설악산 보호구역의 세계잠정유산 현황

남한의 세계잠정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설악권 보호구역의 등재 현황은²⁰⁾ 다음과 같다.

Republic of Korea

Date of Submission : 01/09/1994

Criteria : (vii), (x)

Category : Natural

Submitted by :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Coordinates : Kangwon-Do Long.128°18'06"-128°30'43" East Lat.
38°05'25"-38°12'36" North

Ref .: 386

20) 유네스코 홈페이지(<https://whc.unesco.org/en/list>)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자료 : 유네스코 홈페이지(<https://whc.unesco.org/en/list>)

<그림 III-1> '설악산 보호구역' 잠정유산 등재 현황

Located in the eastern part of the central Korean peninsula, Mt. Soraksan Nature

Reserve covers an area of 163.6 square kilometers. This region includes many high peaks measuring over 1,200 meters above sea level including Taech'ongbong, the highest peak(1,708meters). It is part of a complicated mountain ranges of strongly dissected granite and gneiss and is characterized by spectacular rocky hills and ridges. The magnificent natural beauty of Mt. Soraksan is due to these geographical features. Mt. Soraksan Nature Reserve region is considered to be a floristically diverse area. More than 822 vascular plant species have been recorded in the region, including rare plants such as Hanabusaya Asiatic and Abios nephrolepis. The fauna includes 49~5 species of

birds and mammals. In particular, endangered species such as the *Dryocopus javensis richardsi*, *Naemorheudus goral raddeanus*, and *Moschus moschiferus parvipes* are considered to be of major conservation significance. In addition to the plants and animals, biologically important and rare fish such as *Brachmystax lenok* and *Moroco oxycephalus* are also desere to be protected and preserved.

Famous for its beautiful landscape and valuable cultural properties including Paektamsa(Buddhist temple) and Shinhungsa(Buddhist temple), Mt. Soraksan Nature Reserv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resorts which attracts a great number of people every year.

이 내용을 풀이해 보면

<이곳은 한반도 중앙의 동쪽에 있다. 설악산 자연보호구역의 면적은 163.6(km²)이다. 이 지역에는 해발 1,200미터가 넘는 최고봉(1,708m)인 대청봉을 포함하여 많은 봉우리가 있다. 이곳은 강하게 돌출된 화강암과 편마암의 복잡한 기암괴석 산맥의 일부이며 환상적인 바위 언덕과 능선의 지질적 특징이 있다. 설악산은 웅대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화강 편마암의 지질적 특징이 독특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설악산 자연 보호구 지역은 다양한 동식물의 종다양성 지역으로 Hanabusaya Asiatic(금강초롱꽃) 및 *Abios nephrolepis*(분비나무)와 같은 희귀식물을 포함하여 822개 이상의 유관속식물 종이 이 지역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 외 동물에는 49~5종의 조류와 포유류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Dryocopus javensis richardsi*(크낙새), *Naemorheudus goral raddeanus*(산양) 및 *Moschus moschiferus parvipes*(사양노루)와 같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보존에 중요한 종들이다. 식물과 동물 외에도 *Brachmystax lenok*(열목어) 및 *Moroco oxycephalus*(버들치)와 같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하고 희귀한 물고기도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잠정유산에 등재한다.

백담사(불교사)와 신흥사(불교사) 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귀중한 문화재로 유명하다. 설악산 자연보호구역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의 하나로 여겨진다.>



자료 : 유네스코 홈페이지

<그림 Ⅲ-2> 설악산 운무



자료 : 유네스코 홈페이지

<그림 Ⅲ-3> 설악산 설경

상기의 내용으로 ‘설악산 자연보호구역’의 잠정유산 등재기준은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인 (vii), (x) 항목에 해당하며 이는 지질과 경관 그리고 종다양성의 항목에서 높이 평가되어 잠정유산에 등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등재항목인 지질적, 경관적, 종다양성 등의 항목에서 등재기준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잠정유산에 등재되었다고 추정된다.

등재기준 (vii)은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을 평가받아 등재되며, 등재기준 (x)은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서식지를 포괄 하는 지역”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추정되어 등재된 것이다.

등재내용에는 백담사, 신흥사 등을 서술하고 있고 이들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기록하고 있어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유산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신흥사와 백담사 등이 근래에 개조되고 일부 지형변화, 경관 구조 변화, 건물군의 증축 및 배치 등으로 세계유산 등재기준 완전성에 대한 검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2. 북한 유산의 세계화 현황

2.1. 북한의 잠정유산 현황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는 2019년 8월 현재 북한의 유네스코 잠정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은 총 5건²¹⁾이다.

1. Caves in Kujang Area(25/05/2000)
2. Historical Relics in Pyongyang(25/05/2000)
3. Mt. Chilbo(25/05/2000)
4. Mt. Kumgang and the Historical Relics in and around the Mountain (25/05/2000)
5. Mt. Myohyang and the Relics in and around the Mountain(25/05/2000)

위의 5건의 잠정유산 중 2000년 5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잠정유산에 등재된 ‘금강산과 주변 역사유적’의 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유네스코 홈페이지(<https://whc.unesco.org/en/list>)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Mt. Kumgang and the Historical Relics in and around the Mountain

Description

Mt. Kumgang is a strikingly beautiful mountain with numerous peaks and curious rocks amounting to some 1,200, waterfalls and pools formed by crystal-like clear waters flowing from hundreds of gorges, as well as with the seascape stretched along the coastline. Mt. Kumgang is divided into Inner Kumgang, Outer Kumgang and Sea Kumgang according to its geographical location, every area presenting the unique scenery of its own. Thanks to its natural condition, the mountain shelters various species of plants, ranging from those in Temperate Zone to those in Sub-arctic Zone, of which there are species indigenous to the area, as well as provides a habitat for a great number of animals. Mt. Kumgang is permeated with numerous legends and cultural relics handed over down through generations. Typical are the properties relating Buddhism. Buildings with long history and unique architectural forms such as Jongyang Temple, Pyohun Temple and Podok Hermitage, and Myokisang, Sambulam and other Buddhist statues carved on the rocks make the scenery of the mountain more beautiful, blending with their natural setting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ate of Submission: 25/05/2000

Category: Mixed

Submitted by:
Korean Cultural Relics Publishing House

Coordinates: Kumgang County and Kosong County, Kangwon Province 38°37' N / 126°04' E

Ref.: 1425

Export

Word File

Disclaimer

The Tentative Lists of States Parties are published by the World Heritage Centre at its website and/or in working documents in order to ensure transparency, access to information and to facilitate harmonization of Tentative Lists at regional and thematic levels.

The sole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of each Tentative List lies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The publication of the Tentative Lists does not imply the expression of any opinion whatsoever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or of the World Heritage Centre or of the Secretariat of UNESCO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ny country, territory, city or area or of its boundaries.

Property names are listed in the language in which they have been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Windows 정품 인증

자료 : 유네스코 홈페이지

<그림 III-4> 북한 금강산 세계잠정유산 등재 현황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ate of Submission : 25/05/2000

Category : Mixed

Submitted by : Korean Cultural Relics Publishing House

Coordinates : Kumgang County and Kosong County, Kangwon Province

38°37' N / 126°04' E

Ref. : 1425

등재 기준에 의한 개략적 설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Description>

Mt. Kumgang is a strikingly beautiful mountain with numerous peaks and curious rocks amounting to some 12,000, waterfalls and pools formed by crystal-like clear waters flowing from hundreds of gorges, as well as with the seascape stretched along the coastline. Mt. Kumgang is divided into Inner Kumgang, Outer Kumgang and Sea Kumgang according to its geographical location, every area presenting the unique scenery of its own.

Thanks to its natural condition, the mountain shelters various species of plants, ranging from those in Temperate Zone to those in Sub-arctic Zone, of which there are species indigenous to the area, as well as provides a habitat for a great number of animals. Mt. Kumgang is permeated with numerous legends and cultural relics handed over down through generations. Typical are the properties relating Buddhism. Buildings with long history and unique architectural forms such as Jongyang Temple, Pyohun Temple and Podok Hermitage, and Myokilsang, Sambulam and other Buddhist statues carved on the rocks make the scenery of the mountain more beautiful, blending with their natural settings.

<금강산은 수백 개의 협곡에서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물과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바다와 함께 약 12,000개에 이르는 수많은 기암봉우리와 독특한 형태의 많은 바위가 있는 인상적인 아름다운 산으로 지질적/경관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금강산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나뉘며, 각 지역마다 고유한 경관이 펼쳐져 독특하다. 이곳은 온대와 한대기후의 자연조건 덕분에 온대부터 아북극 지대까지 다양한 종의 식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고유종은 물론 수많은 동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여 종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금강산에는 수많은 전설과 문화 유물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은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난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정안사, 표훈사, 보덕암자, 묘갈상, 삼불암 등이 있으며 바위 위에 새겨진 불상과 같은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진 건물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산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독특함을 갖고 있다.>

상기의 기록 내용으로 보아 북한은 금강산을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추후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한반도 유일의 복합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즉 2005년 금강산의 잠정유산 등재시 세계유산등재기준(i~x)에 의한 등재기준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나 2015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에서 연구 수행한 문화재청의 「설악산-금강산 세계유산 등재가능성 검토 및 추진 방향 도출 연구용역」에 따르면 ‘기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문화유산 기준 (ii), (iv), (vi), 자연유산 기준 (vii), (x)으로 추정’하고 있어 복합유산으로 등재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산을 (vi)항을 넣어 적용하기에는 북한의 경우 사찰의 수도행위 등의 검증이 어려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따른 도출 가능 항목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강원권 유산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회가 평가 등재하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의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정하는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I-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표

구분	등재기준		대표적사례	비고
	기호	내용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आयुता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중요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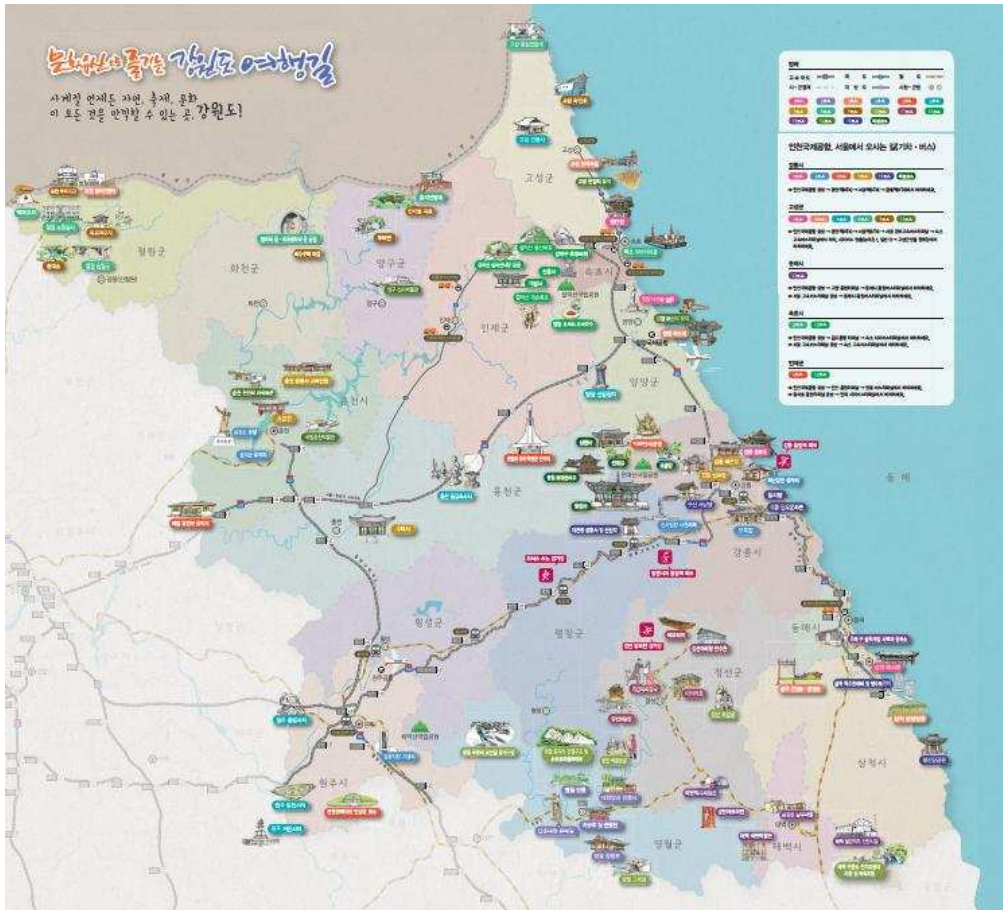
자료 : 유네스코 홈페이지(www.unesco.or.kr)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 공통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Ⅲ. 남북 강원권 유산의 세계화 현황



자료 : 문화재청

<그림 Ⅲ-5> 강원도의 자연/문화유산 현황

4. 강원권 유산과 유사한 세계유산의 사례

앞에서 강원권 유산은 설악산권, 오대산권, 태백산권, 금강산권, 해금강권 등의 유산이 자연과 문화를 어우르는 복합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2019년 8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유사유산들과의 비교를 통해 남북강원권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려 했다. 즉 남북강원권 유산의 가치와 비교 가능한 유사유산들과의 비교를 통해 정리되었다.

<표 III-2> 강원권 유산과 비교를 통한 다른 나라 세계유산의 특성

유산명	문화유산적 가치	자연유산적 가치	강원권 유산 가치
<베냉(Benin), 부르키나파소> W라를리 펜자리 복합유산 (iii, v, vii, ix, x)	- 신석기시대부터 이루어진 천연자원과 인류의 상호 작용	- 서아프리카 산림지대의 생태계 (육생-반수생-수생) 특성 및 생물 다양성(가장 많은 코끼리, 치타, 사자, 표범 등)	- 온대지역의 육생-해생 포함 (4,500여종의 식물종과 1,860여종의 동물과 어류의 보존)
<터키> 퀴레메 국립공원과 카파도키아 바위 유적 (i, iii, v)	- 바위의 기독교역사와 성소(聖所) 문화 - 비잔틴 미술(4세기 전통 건축, 가옥, 혈거, 지하도시, 수도원, 교회 등)	- 침식작용의 괴이한 응회암 장관 - 관광산업으로 인한 훼손과 보존을 위한 전통거주지 우수사례	- 바위에 불교 및 도교, 유교의 성소문화 - 불교문화의 사찰과 글씨 등 최대
<페루> 리오아비세오 국립공원 (iii, vii, ix, x)	- 잉카 이전의 사회에 대한 유곽	- Andes 산맥지역의 열대우림 식물군과 동물군을 보호 - 노랑꼬리양털원숭이 (yellow-tailed woolly flavicauda)는 오직 이 지역에서만 발견됨	- 한반도의 향유문화와 온대림의 식물군과 생태자원 그리고 멸종위기 종의 보존
<팔라우> 록아일랜드석호 (iii, v, vii, ix, x)	- 17~18세기 버려진 3,000년 이전의 록아일랜드 원주민 무덤, 암각화, 석조마을, 조개무지유적의 석공동체 모습 - 기후변화, 인구증가, 해양환경 한계로 인한 이동에 따라 생긴 주거지	- 록아일랜드 남부의 석호, 385종의 산호초 - 육지에 고립된 바다해수(바다생물상, 새로운 생물상 계속 발견) - 고유종의 개체가 많음 - 지속적인 화산활동 - 멸종위기종	- 화강암지역의 해안선을 잇는 많은 해양석호, 풍부한 해양생물 - 해양성기후의 변화 및 인위적 개발에 의한 석호의 잠식

유산명	문화유산적 가치	자연유산적 가치	강원권 유산 가치
<p><남아프리카 공화국></p> <p>말로티(Lestho)-드라켄즈버그(South Africa) 공원 (i, iii, vii,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san)민족의 많은(600여곳 35,000여점) 암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지질, 남아프리카 최대 단애층 - 250종 이상의 고유식물 - 중요 조류보호구역 - 2,750m의 고지대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벽의 불상 및 각종 글씨의 조각 - 온대지역의 고원습지 등 생태계의 보존 - 온대와 한대 생태 혼재지역 - 고지대습지(대암산)기후 및 습지
<p><중국></p> <p>태산 (i, ii, iii, iv, v, vi, v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과 완벽한 조화 - 중국 예술가와 작가에게 영감 - 도교와 불교, 유교의 유적지 - 2000년간의 인간의 발전 과정과 예술 발전 - 중국에서 가장 숭배된 산 - 중국 가장 신선한 산 - 중국의 글쓰기와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강암지질대 지역 - 30억년의 지질 및 생물자원의 진화 - 문화영향에 의해 지배된 아름다운 자연경관 - 한약 재료(식물자원) 생산의 최다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화강암 지질대 형성의 최고지역 - 한반도 한약재 생산의 최다지역 - 화강암 지질형성의 암석경관 세계 최다 화강암 봉우리 (1만 2천봉)와 아름다운 경관
<p><중국></p> <p>우이산 (iii, vi, vii,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곡의 절경 - 성리학(사원,서원) 발전의 본산 - 한나라의 행정수도 및 거대성벽 - 성리학의 요람 철학 등 동아시아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남동부 생물다양성의 최대지역 - 훌륭한 아열대림 - 고대식물 종의 피난처 - 양서류, 파충류, 곤충 등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훌륭한 온대와 한대 공존지역 - 한반도 생물다양성 최대지역 - 한국 도교, 불교 유적
<p><중국></p> <p>황산 (ii, vii,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산 - 중국예술과 문학의 산수화 관광객, 시인, 화가, 사진가들의 매혹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질시대 4기빙하작용 - 1,650종의 식물 300여종의 척추동물(구름표범, 황새, 소나무 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시아 가장 아름다운 산 - 관광객, 시인, 화가, 사진가들의 매혹공간 - 한반도 진경산수화 본고장 - 산양노루, 반달곰
<p><중국></p> <p>사천자이언트 판다보호구역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지질, 식물, 동물 보호 탁월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가장 큰 자이언트 판다 서식지 - 신생대 제3기 열대우림 식물다양성 - 5,000~6,000종의 식물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대와 한대의 다양한 식물서식 - 해안 산악, 고원습지 등 대암산 습지포함 - 4,500여종이상 식물서식지
<p><중국></p> <p>아미산과 러산대불 (iv, vi,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최초의 불교사찰 불교성지 - 거대한 樂山大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열대부터 아고산대 산림과 다양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불교 및 도교 최대 유적
<p><중국></p> <p>우타이산(五臺山) (ii, iii, iv, v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불교의 명산, 천년이 넘는 건축물, 아시아 궁전건축에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의 조화로운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대산의 상원사,월정사 건축물 고 탑의 특성 - 설악과 금강산권의 사찰건축의 발전과 분포비교

자료 : 유네스코 홈페이지(<http://whc.unesco.org/en/list/>)를 이용 재구성함

IV

결과 및 고찰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지질지형과 생태자원의 보고인 백두대간의 가운데에 있는 남북강원권 유산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 명승경관으로 역사적으로 시문학 및 산문 문학에서 많은 부분 다루어지고 있으며 동양화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회화물로 제시되어 있는 명승, 명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

남북강원권 유산의 세계화(세계유산)를 위해서는 유산이 갖고 있는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발굴 및 평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보전방안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강원권 유산에 대한 세계화를 위한 가치 발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마련한 세계유산등재기준($i \sim x$)에 준하여 가치발굴을 시도하고 이들의 평가와 유사유산과의 비교검토 그리고 현황에 따른 관리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들의 내용은 유산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및 생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북강원도 유산가치의 통합을 위해 앞에서 제시된 세계유산등재기준에 제시된 항목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적, 자연유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표 II-2 참조).

1. 문화유산적 가치

문화유산적 가치는 등재기준 i~vi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하는가? (i)’, ‘오랜 세월이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 내용이 반영되었는가? (ii)’,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가 되는가? (iii)’,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 및 경관인가? (ix)’, ‘사라질 취약성이 있는가? (v)’,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건, 예술, 문학 등의 연관을 지어지는가? (vi)’ 등의 검토를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1.1. 사찰 및 불상 그리고 암자 등의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백두대간 강원권에는 고인돌, 고분, 산성, 건물, 석탑, 석등, 부도, 불상, 절터와 건물, 금속공예품, 나무공예품 등 철학과 생활상의 바위 글씨 등이 있어 한반도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자원이 있다.

백두대간은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하천은 급하고 짧으며 폭이 좁고 지천이 발달하지 못한 특성이 있다. 이들 지천에도 다양한 문화를 창출해 왔는데 고성읍의 문암천과 양양의 남대천의 바다와 접하는 지역의 사구(沙丘)에 8,000년 전의 한국을 대표하는 신석기 유적이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이곳은 집자리, 집안의 온기시설, 토기 외 생활도구들이 확인되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등이 있다.



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 IV-1> 금강산 장안사도

백두대간 강원권 바위 글에는 당시대의 시문학은 종교적(도교, 불교, 유교 등), 철학적, 사상적 글귀와 화화 등이 있으며 불상과 탑 등 조각이 되어 있어 한반도 문학과 종교의 생활상과 변화를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에는 불교 관련 유적들인 석탑, 석등, 부도, 불상, 사찰건축 등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자료 : 건봉사

<그림 IV-2> 금강산 장안사 사진(1)(일제강점기)

금강산권에는 8만9천 암자가 있다고 전해지는 한반도 옛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며 불교유적인 석탑은 장연사터 3층석탑, 정양사 3층탑, 신계사터 3층탑이 대표적이다. 『신동국여지승람』에는 108개의 절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들은 한반도의 통일신라 말과 고려초기인 9세기의 석탑 양식이 특징이다. 금강산의 대표적 불상인 묘길상으로 알려진 아미타여래좌상으로 백운대계곡 화강암 절벽에 높이 15m의 좌상으로 한반도 최대의 마애불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조선시대 작성된 「묘길상도」 등에도 나타나 그 진정성을 증명하고 있다. 묘길상 주변의 불지암(佛地庵)은 앞면 6칸 측면 3칸의 합각식전물로 앞면 칸수가 일반건물과 달리 우수(짝수)로 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며 조각상이 독특한 것이 특징이다.²²⁾



주 : 김윤경, 종이에 수묵담채, 27.7×28.8cm, 국립중앙박물관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그림 IV-3> 조선시대 묘길상도

22)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그 외에 금강산 권역에는 표훈사로 주변의 삼불암(三佛庵)의 바위의 석가불상과 오른쪽의 미륵불, 왼쪽의 아미타불 등이 진정성과 완전성이 검증되는 유산이 있어 중국의 운강석굴과 용문석굴의 유산과 비교²³⁾되는 세계화가 가능한 유산으로 평가된다.

그밖에 대표적 불교유적은 백화암(白華庵)터에 서산대사비(西山大師碑)와 서산대사부도(西山大師浮圖) 등이 종교적 유적으로 평가된다.

금강산의 명찰과 암자는 경관적 문화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사찰은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 정양사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한국전쟁 때 소실 폐사되었다가 신계사만 최근 복원되었다. 표훈사의 반야보전, 연산전, 능파루, 명부전, 어각실, 판도방 등은 조선시대인 1778년 중건되어 2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진정성과 완전성 있는 건조물로 평가되는 건조물이다. 이들 사찰은 고구려와 신라 이전의 사찰로 주변경관과 사찰 짜임새 등은 오랜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금강산 명찰은 입지적 특성과 조영적 특성 그리고 사찰 짜임새와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등재기준 문화적 가치(iv)와 자연유산적 가치(vii)항의 검토가 가능하다.



자료 : 건봉사

<그림 IV-4> 금강산 장안사 사진(2)(일제강점기)

23) 유네스코 세계유산(<http://whc.unesco.org/en/list>)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내금강 일대는 계곡미가 뛰어난 곳으로 수많은 폭포와 명소들이 있어 시인묵객들은 다정다감한 여성미를 나타내는 곳이라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은 정양사, 표훈사, 보덕암, 묘길상, 장연사3층탑 등의 유적이 있다. 특히 내금강 보덕암은 만폭 구역 기암의 절벽에 조영된 독특한 구조와 기암 계곡의 누대는 구리기둥의 조영적 특성이나 만폭동 계곡의 조망을 위한 한국인의 자연관을 볼 수 있는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자료 : 건봉사

<그림 IV-5> 금강산 장안사 사진(3)

외금강 일대는 금강산 동부지역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해의 해금강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웅장하고 천태만상의 기암괴석, 구룡연계곡 등 이름난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이곳은 자연자원의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해금강일대는 동해바닷가에 있는 명승지로 북한강원도의 고성군 수원단(통천군의 총석정 포함)에서 남한고성군의 화진포까지 외금강 동쪽에 펼쳐진 아름다운 호수와 해안 및 바다절경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대표적 유적은 해만물상구역, 삼일포구역,

총석정구역(통천군), 동정호구역(통천군)등이다. 이들 해금강 지역은 등재기준 (ii)항과 경관적 가치인 (vii)항의 검토가 가능한 구역으로 사료된다.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IV-6> 금강산 마하연 사진(일제강점기)

유점사는 고구려 유리왕 23년(AD 4) 창건하여 금강산에서 가장 큰 절로 15세기 3,000여칸(間)의 절로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많은 건조물들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능인전의 바깥 9포, 안 15포로 짜올린 두공은 우리나라 중세 건물 중 가장 높고 독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점사종이 북한의 국보 162호로 지정되어 묘향산에 보관하고 있어 당시대의 최고의 사찰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당시대의 대표적 사찰로 평가할 수 있다.

장안사는 내금강 만폭동 명승지에 있다. 신라 법흥왕대(514~540년) 창건²⁴⁾한 사찰로 사찰 배치가 대웅전을 중심으로 2개의 축과 2개의 중층 법당과 2개의 누각 건물 짜임새로 되어 있어 독특하다.

24) 《동국여지승람》

아울러 많은 부분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는 많은 글씨와 그림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표현의 극찬을 볼 수 있는 자원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정선(謙齋 鄭勳; 1676~1759)의 『금강산도』 등이 있다.



자료 : 건봉사

<그림 IV-7> 보덕암(일제강점기)

상기의 내용으로 유점사와 장안사 등은 사찰의 규모와 배치의 짜임새 그리고 조영적 특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 등재기준 (iv)항의 검토가 가능한 사찰로 평가된다.

표훈사(국보 97호)는 금강산의 4대사찰 중 한반도 중세 말기 건축 양식을 갖춘 정교하고 균형 잡힌 건물군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금강산 최고의 사찰이다. 내금강 만폭동 금강산 주봉으로 쌓여진 한국의 대표적 사찰경관이다. 670년(문무왕 10)에 창건된 이 절의 배치는 마당(다층석탑)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건물을 배치하고 담장으로 둘러싸인 사동중정형(四棟中庭形) 가람배치 형식의 대표적 사찰이다. 원래 20개의 전각 중 현재는 반야보전, 명부전, 영산전, 어각루, 칠성각, 능파루 등이

보전되고 있어 표훈사는 건축적 정교함과 오래된 건물군이 남아 있으며 주봉과의 조화로운 경관적 가치와 가람배치 및 건축의 정교함 등의 가치가 있어 세계유산 등재 기준 (iv)항과 (vii)항의 검토가 가능하며 진정성과 완전성 검증도 가능한 중요한 유산이다.



자료 : 건봉사

<그림 IV-8> 근래 중건 된 신계사 모습

신계사(국보 95호)는 외금강의 구룡연 입구의 신계천 옆 관음연봉의 문필봉을 등지고 519년(신라 법흥왕 6)에 창건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람배치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삼층석탑 동측에 칠성각·대향각·극락전이, 서측으로 나한전·어각실이, 남북의 축선에 만세루 좌우에 향로전·최승전 등이 배치되어 있다. 대웅보전은 조선말기 사찰건축을 대표하는 것이었으나 한국전쟁시 소실되어 최근 중건하였으나 그 진정성과 완전성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료 : 건봉사

<그림 IV-9> 금강산 건봉사 전경 사진(1)(일제강점기)

따라서 금강산의 사찰 및 암자 등은 세계유산 등재기준 (iv)항과 경관적 가치를 평가 받는 있는 (vii)항에 의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설들이라 할 수 있다.



자료 : 건봉사

<그림 IV-10> 금강산 건봉사 전경 사진(2)(일제강점기)

건봉사는 예로부터 금강산권역에 해당하는 사찰로 당시 금강산 최대의 사찰로 인정받았으며 가람배치 및 조영적 특성의 가치가 높으며 주변에 일제강점기 동경대학 연습림 등의 존재 등으로 보아 산림경관림으로의 자원적 가치가 높았던 곳으로 추정 가능한 유적이다. 아울러 남북 분단에 의해 단절된 권역으로 자연과 문화유산의 통합된 권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지역 건봉사에는 국내 유일의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봉안되어 있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부처님 치아사리는 세계에 15과 뿐인데 그중 12과가 있던 곳으로 4과는 1986년 도굴 손실되고 현재는 8과가 남아 있으며 스리랑카(불치사)에 3과가 보관된 희귀한 보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불교와 관련된 가치 있는 공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등재기준 (iii), (iv)항의 검토가 요구되는 항목이다.



<그림 IV-11> 남한 금강산권역(건봉사) 주변의 사찰유적과 역사경관림(2019.08.)

오대산 월정사는 가람배치와 석좌보살상, 8각 9층석탑 등의 조각적 가치를 보아 등재기준 (iv)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상원사의 동종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성과 부처님 진실사리가 보관된 적멸보궁 등은 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높으나 동산유산

에 이어 세계유산기준에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등재기준 항목으로 평가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동종 사찰의 입지적 경관적 가치 등과 진실사리 등의 보관 기술 등의 가치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합천해인사의 세계유산은 팔만대장경의 장경을 보관하는 기술 등이 높이 평가받아 세계유산에 등재됨에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오대산 등 많은 중국의 유산과 비교²⁵⁾되는 유산으로 우리민족의 자연관과 종교관에 의한 조영적 철학과 조영기술을 비교 할 수 있는 자원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고려시대 부터 조선말기의 사찰건축을 대표하는 것이었으나 한국전쟁시 소실되고 최근 일부 중건하였으나 그 진정성과 완전성의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역사기록물과 그림 그리고 일제강점기 등 일부 사진으로 남아 있어 검증과 복원이 가능한 것도 있다.

삼척에는 죽서루(竹西樓), 진동루(鎭東樓), 공진루(拱辰樓), 애연정(優然亭), 경모정(景慕亭) 등이 있다. 죽서루는 한반도 대표적 경관기행의 대상지로 관동팔경에 표현될 정도로 중요한 건축 및 경관지역이다. 기둥을 자연암반의 높이에 맞춰 직접 세운 점이 독특하다. 누각에는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년) 선생을 비롯한 여러 유명한 학자들의 글이 걸려 있다. 죽서루는 한국의 대표적 누각건축으로 오십천의 자연경관 가치를 극대화하며 자연 암반의 높이에 따라 독특한 기둥과 경점을 고려한 누각건축의 조영이 한국인의 자연관과 조경기술을 나타내는 대표적 공간으로 등재기준 (ii)항과 (iv)항의 검토가 가능한 공간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이 백두대간 강원권 문화유산은 한국인의 자연관과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선사유적 및 건조물(산성, 절터, 탑, 불상, 명승사찰 등)의 입지와 경관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진 건조방법과 한반도 최대의 불상, 명승자원에 어울리는 경관관리 및 조영의 독특한 방법이 탁월하여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 (iii), (iv) 항목에 준하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5) 유네스코 세계유산(<http://whc.unesco.org/en/list>)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1.2. 회화 문화유산적 가치

남북강원도 유산 중 회화의 대표적 유산은 「금강산도」 등이다. 금강산도는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이루어진 금강산 전체의 모습을 다룬 금강전도와 각 명소를 독립된 화목으로 다룬 명소도식 금강산도가 있다. 금강산도는 조선 후기 조선의 산화를 한국적 화풍으로 그린 진경산수화의 유행과 더불어 주요 산수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금강산도²⁶⁾는 조선시대 정선(鄭敼)에 의해 양식적 틀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화단의 핵심을 이룬 여러 문인화가와 도화서 화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며 한 시대를 풍미한 그림이다.

묘길상도²⁷⁾ 중앙 화단에서 유행한 금강산도는 19세기 들어서 저변화되어 민화 금강산도의 제작으로 이어졌고 조선 말기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작되었다.²⁸⁾



주 : 20세기경, 지본채색, 각 87×31.5cm, 국립민속박물관소장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12> 금강산도(1)

26)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27) 조선후기의 화가 김윤겸이 금강산에 있는 고려시대의 마애불인 묘길상을 그린 것이다. 김윤겸은 정선의 진경산수화풍을 이어받아 금강산, 한양, 단양 등 명승을 여행하면서 개성있는 진경산수화를 제작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강산도[金剛山圖] 내용 참조).

28) 금강산도가 사의성(寫意性)을 띠며 순수 감상용으로 화첩이나 첩, 축, 부채 등의 형식으로 제작된 데 반해, 민화 금강산도는 장식화로서 주로 병풍 형식으로 그려졌다.



주 : 종이에 수묵채색, 73×33.7cm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13> 금강산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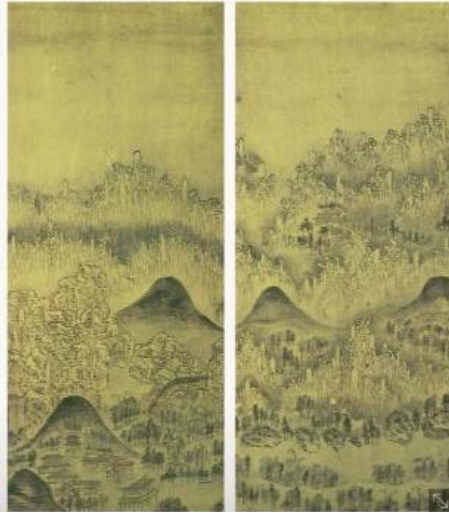
이들의 화풍은 중국 16세기 동양 산수화의 본고장이며 시인, 화가, 사진가의 매혹 공간으로 평가받은 황산(黃山)과 항주(杭州)의 서호(西湖)가 화풍에 의해 세계유산이 되었듯이²⁹⁾ 우리나라 진경산수화 등이 우리 화풍 문화에 의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 등재기준 (ii)항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검증 및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아래 금강산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그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 : 지본채색, 각126×32cm, 개인소장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14> 금강산도(3)

29) 유네스코 세계유산(<http://whc.unesco.org/en/list>)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주 : 수묵채색화, 각각106×45cm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15> 금강산도(4)



주 : 연도미상, 수묵채색화 지본채색
자료 : 진주박물관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16> 금강산도(5)



주 : 19세기경, 지본채색, 121×234cm, 국립민속박물관소장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17> 금강산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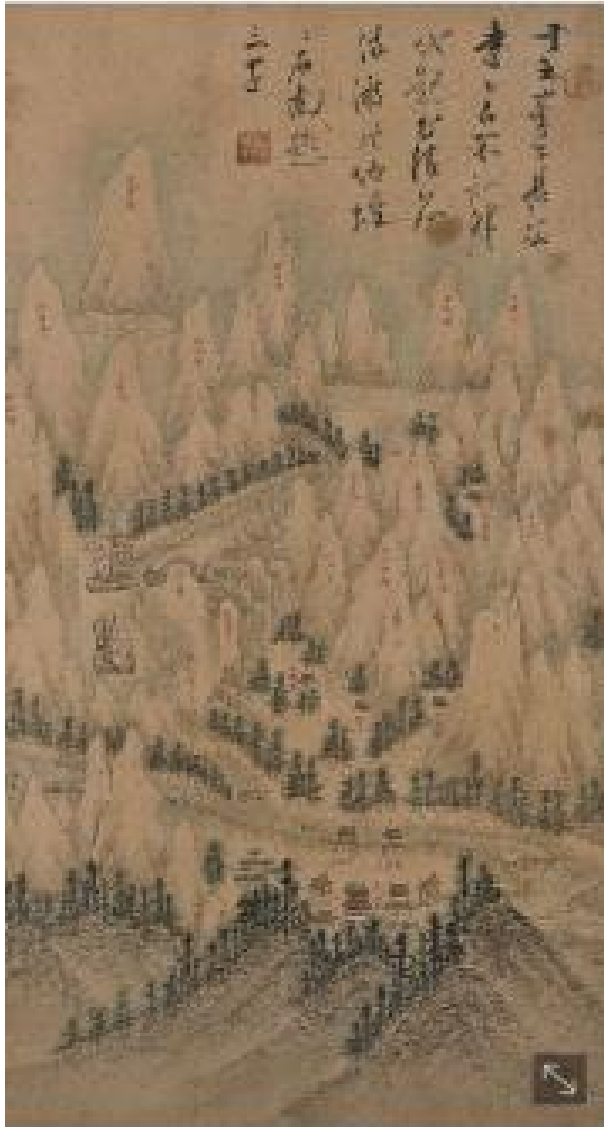
주 : 수묵채색화, 견본채색, 32×24cm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18> 금강산도(7)



주 : 金有聲(1725년~미상), 1764작, 지본담채, 69.9×165.7cm.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19> 금강산도(8)



주 : 종이에 수묵담채, 60.4×31.3cm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20> 금강산도(9)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21> 정선의
금강산도(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22> 정선의
금강산전도(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



주 : 지본채색, 각83×30cm, 진주 대아고등학교 소장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23> 금강산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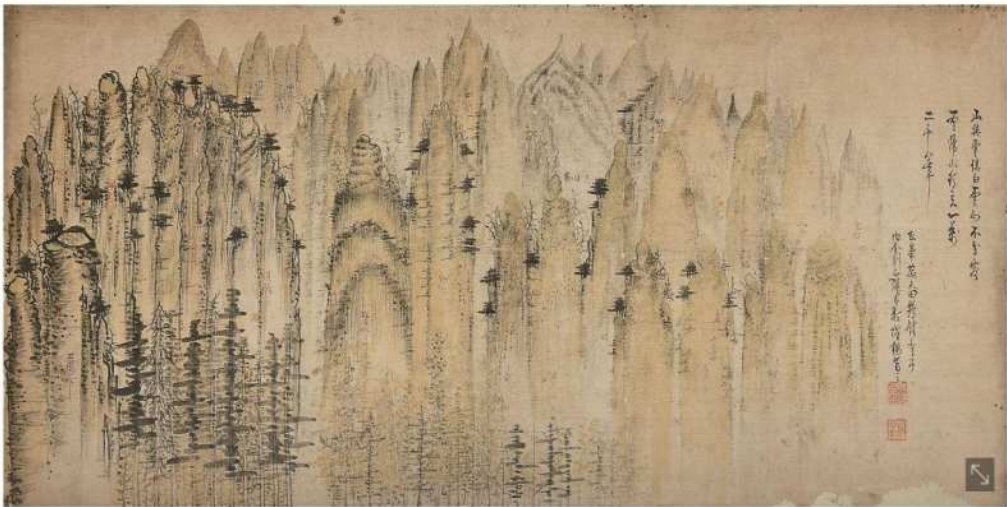
주 : 지본채색, 68×36cm, 개인소장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24> 금강산도(11)



주 : 지본담채, 각96.5×27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25> 금강산도(12)



주 : 비단에 수묵채색, 24.1×57.8cm
 자료 : 네이버 포털사이트

<그림 IV-26> 금강산도(13)

1.3. 관동팔경의 유산적 가치



자료 : 강원도(2014), 관광지도

<그림 IV-27> 관동팔경도(관광지도)

관동팔경은 남북강원도 동해안의 기이한 지형과 기암 그리고 절벽에 세워진 한국인의 자연관과 시문학적 표현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경치와 경관의 주요 지역을 나타낸다. 이곳에 세워진 누각과 정자 등은 우리 민족의 삶과 철학 그리고 자연관을 표현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즉 이곳은 괴이하고 독특한 아름다운 지형으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 찾던 명승이며 시문학과 화풍에 중심공간으로 유산적 가치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1. 시문학의 관동팔경

관동팔경은 많은 시인 목객의 문학적, 회화적 대상으로 한반도 대표적 해안경관으로 가치가 있다. 고려말 안축(1287~1348)³⁰은 「관동별곡」에서 총석정, 삼일포, 낙산사 등을 시로 지어 노래했으며, 조선의 제19대왕 숙종(1674년~1720년 재위)은

통천의 총석정, 고성의 삼일포와 금강의 만경대, 양양의 낙산사,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울진의 망양정, 평해의 월송정을 관동팔경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즐겼다. 관동팔경의 대표적 시문학은 송강 정철이 지은 「관동별곡」(1583년 지음)에서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이들 내용에서 관동팔경은 통천의 총석정, 고성의 삼일포와 간성의 청간정, 양양의 낙산사,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울진의 망양정, 평해의 월송정을 대표적 경관으로 들 수 있으나 속초의 청간정, 울진의 망양정과 월송정은 원 위치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워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강원유산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총석정, 삼일포, 청간정, 낙산사, 경포대, 죽서루의 유산을 중심으로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이들은 근대화와 주변경관의 훼손 등으로 관동팔경이 갖는 조망권 범위와 조망의 방향에 의한 보존의 가치를 많이 훼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존 및 보전의 대책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기의 내용들이 정리된다면 이들은 세계유산 등재기준 (iii),(iv)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3.2. 회화적(그림)인 관동팔경

관동팔경은 한반도의 대표적 경승문화로 많은 시인 묵객이 시문학과 회화에서 표현되고 있다. 대표적 회화 내용은 조선의 진경산수화의 대표적 작가인 정선(18세기), 김홍도(1745~1806)등에 의해 한반도 최고의 진경산수화로 평가되고 있다.(장안사도³¹⁾ 등 이들을 그림으로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30) 고려시대의 문신이자 서예가, 자는 당지(當之), 호는 근재(謹齋), 본관은 순흥,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고려에 성균학정(成均學正)을 거쳐 충혜왕 때 강원도 존무사(存撫使)로 있을 때 문집 『관동와주(關東瓦注)』, 『편년강목(編年綱目)』을 편수했으며, 시가에 뛰어나 경기체가인 <관동별곡(關東別曲)>, <죽계별곡(竹溪別曲)>을 지었고, 문집에는 『근제집(謹齋集)』이 있다. 그의 글씨는 초서를 특히 잘 썼다. 현존하는 작품을 보면 자유자재한 듯 하면서 뼈대가 있어 힘차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31) 조선 후기의 화가 정수영이 그린 금강산도이다. 1797년 가을 여현적과 함께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그린

이들은 회화적 가치를 제공한 공간으로 세계유산 등재기준 (ii)와 (iv)항에 해당하는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된다. 아울러 난개발로 소멸 될 수도 있어 (v)항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가 요구된다.

1.3.2.1. 경포대



주 : 16세기 중반, 비단에 수묵과 담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 : 네이버 홈페이지

<그림 IV-28> 경포대도와 삼일포도

초본을 바탕으로 1799년에 완성하였다. 붉게 칠해진 나무를 통해 가을 금강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금강산도, [金剛山圖](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3.2.2. 총석정도(叢石亭圖)



자료 : 네이버 홈페이지

<그림 IV-29> 총석정도(1)



주 : 金弘道, 1759년, 지본담채, 27.3~23.2cm, 개인소장

자료 : 네이버 홈페이지

<그림 IV-30> 총석정도(2)



주 : 小塘 李在寬(1783~1837), 건본담채, 35.2~27.3cm, 서울대 박물관 소장

자료 : 네이버 홈페이지

<그림 IV-31> 총석정도(3)



자료 : 네이버 홈페이지

<그림 IV-32> 총석정도(4)

1.3.2.3. 삼일포도(三日浦圖)



자료 : 네이버 홈페이지

<그림 IV-33> 삼일포도



자료 : 네이버 홈페이지

<그림 IV-34> 김홍도의 삼일포도

1.3.3. 명승으로 본 유산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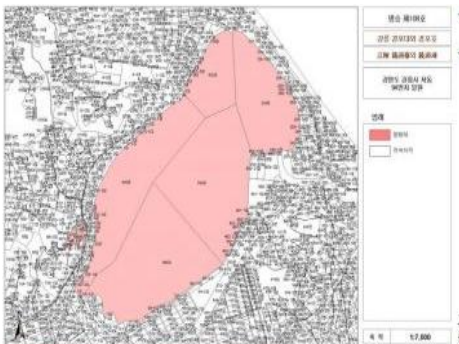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한국인의 문화와 자연관을 갖고 있는 곳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에서 관리 보전하고 있다. 이들의 명승이 갖추고 있는 유산적 가치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승 제74호인 대관령 옛길은 삼국시대부터 관련지명이 사서에 기록된 곳으로 영동지역민들의 관문이자 교통로이다. 이곳은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강릉단오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길로 백두대간의 큰 고개이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옛길의 원형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인간의 교류문화와 길의 문화가 갖고 있는 유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등재기준 (ii)항과 (iv)항의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명승 제106호인 용연골 암반과 소는 오대산 황병산자락 천마봉 사천천을 따라 형성된 계곡으로 하천의 침식·운반·퇴적작용과 풍화로 형성된 화강암 지형으로 폭포(瀑布), 폭호(瀑湖), 담(潭), 소(沼) 등의 하천지형·암석하상·자갈하상이 연이어 펼쳐지는 하천경관의 독특함이 보이는 곳으로 지질적 가치와 울창한 수목과 어우러져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지질·지형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등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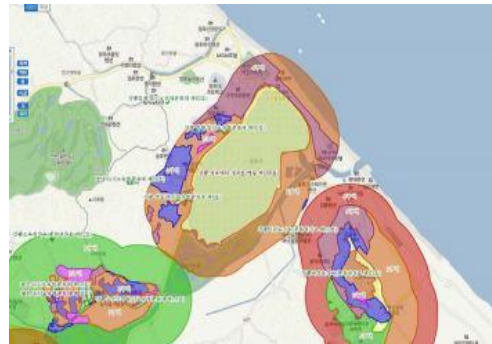
(vii), (viii)항의 검토가 가능하다. 아울러 용연계곡 일원은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용연사가 있으며, 용연사의 불교문화와 용연계곡의 용소에서 거행하는 마을 전통제례문화행사, 사기막리 일원의 요업문화 등 역사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어 등재기준 (ii)항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명승 108호인 경포대(鏡浦臺)는 지형·지질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석호이며, 동해안의 빼어난 절승지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하며, 심성을 수양, 풍부한 문학적 소재성 등 문화적, 경관적 요소가 결합된 누정으로 장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곳은 관동팔경의 하나로 고려 충숙왕 13년 1326년에 창건된 누정으로 영동지역 시인묵객들의 시·서·화가 있는 역사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은 누정문화를 대표하는 곳이다. 정철(鄭澈, 1536-1593)의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경포대를 관동팔경 중 으뜸이라 했으며, 경포대에 저녁이 되어 달빛이 쏟아지면 하늘, 바다, 호수, 그리고 술잔과 임의 눈동자 등 다섯 개의 달을 볼 수 있는 동해안 제일의 달맞이 명소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예부터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다녀간 명승지로서 명사들의 수많은 시·서·화가 있어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높다.



자료 : 문화재청(2015), 「천연기념물센터, 명승 및 경관자원조사연구 및 DB구축」, 225쪽

<그림 IV-35> 경포호 문화재보호구역도



자료 : 문화재청(2015), 「천연기념물센터, 명승 및 경관자원조사연구 및 DB구축」, 225쪽

<그림 IV-36> 경포호 주변 문화재관리 기준도

따라서 시문학적 가치인 등재기준(iv)와 경관적 가치기준인 (vii)항의 검토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은 경관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야 함에도 경관관리를 위한 경점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으나 주변경관의 보존이 난개발 등으로 훼손되어 있어 평가를 받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관보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및 보존대책이 시급한 곳이다.

2. 강원권의 자연 유산적 가치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서 세계유산 등재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평가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 vii~x 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에 포함되는가? (v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인가? (viii)’,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i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하는가? (x)’ 등의 검토를 실시하면서 유산이 갖고 있는 진정성과 완전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2.1. 강원권의 지질/지형의 자연 유산적 가치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유산에 대한 검토가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자료는 문화재청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명승, 보호구역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국가기관의 유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지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을 밝힌다. 북한의 유산은 기존의 문헌자료와 인터넷상에 제시되는 유산의 내용에 한정하여 조사되었음을 밝힌다.

2.1.1. 지질지형의 유산적 가치

백두대간의 강원권 유산의 지형은 한반도의 중심공간에 해당하며 남북으로 이어지는

1,400km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 동측의 태평양 지질대에 접해 있다. 이곳은 동측이 경사가 급하며 서측으로 서해안까지 240km정도의 완경사면을 이루는 지형이다. 남북강원권의 동측은 해양성기후대를, 서측은 대륙성기후대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강원도의 백두대간은 시생대층으로 부터 신생대 제4기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층들과 각기 다른 지질시대의 관입암들이 분포하고 있다. 시생대층과 중부 고생대 층의 지층발달 과정과 퇴적층의 지질구조로 되어 있다. 이곳은 금강산 비로봉(1,639m)과 마식령줄기(해발1,200~1,500m), 1만2천봉의 봉우리 등이 있으며³²⁾ 설악산은 대청봉(1,708m)을 최고로 귀태기봉(1,578m), 가리봉(1,421.5m), 점산봉(1,424m), 황철봉(1,381m), 화채봉(1,320m)등이 최고의 지형을 이루며 금강산은 비로봉(1,638M), 향로봉(1,052m)을 이루어 태평양과 접하여 수평으로 100km이내의 급격한 산악지형과 해안이 만나는 독특한 지형으로 해발고도의 2,000m의 차이를 보이는 독특한 동아시아 최고의 아름다운 지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의 대표적 산악은 설악산과 금강산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관은 대규모 화강암 관입과 절리의 차이에 따른 침식결과이다. 이곳에는 해식애, 해식동, 타포니(tafoni) 등의 지형과 퇴적지형 석호의 지형적 특징이 있다. 험준한 산악 화강암 지형으로 북측으로 고원지대와 연결되어 있으며 남측으로는 오대산, 태백산을 잇고 있으며 아래로는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한반도 중추적 지질생태자원이다. 이 지형은 각각의 용기된 화강암이 그 형태와 모양을 달리하여 만물상이라 하며 철마다 그 색을 달리하여 금강, 봉래, 풍악, 개골이라는 4개의 이름을 가질 정도로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지형이다. 따라서 지형의 경관적 가치가 높아 세계유산이 된 중국 운남성(雲南城)의 카르스트 지형 노출과 침식에 의한 유산³³⁾과 비교되어 등재기준 (vii)항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남북강원도의 지질 분포와 구조는 중생대 백악기 변형작용으로 형성된 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의 산지로 급애(cliff), 암석돔(dome),

32) <http://www.cybernk.net/>

33)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http://whc.unesco.org/en/list>).

판상절리(sheeting joint landform), 토르(tor), 고위평탄면(high rank planated surface), 풍화동굴(cave), 그루브(groove), 나마(gnamma), 산지타포니(tafoni), 애추(talus or talus cone), 암괴원(block field)과 암괴류(block stream) 등이 분포하며 하천지형으로 침식과 퇴적작용에 의한 지형경관은 폭포(water fall), 폭호(phunge pool), 포트홀(pothole), 소(pool), 협곡과 계곡(canyon or gorge) 등의 지형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이곳은 환태평양 지질대의 연안 석호가 가장 잘 발달된 지형으로 한반도의 경북에서 함경도까지 분포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매립과 지형 변화로 훼손되어 있다.



<그림 IV-37> 남한 금강산권역의 건봉산 전경(민간통제구역, 2019. 07.)

이 중 가장 잘 발달 된 남한의 화진포는 남한의 자연 및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명사십리, 삼일포 등의 석호는 북측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어 공동유산의 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강산권의 지형은 화강암지대로 일정 단위면적에 1만2천 봉의 용암이 용융한 세계 최대의 지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곳은 기이한 화강암 괴암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등재기준 (viii)항의

검토가 가능한 유산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곳은 권역 설정에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금강산 1만2천봉의 제1봉을 현재 남한의 미시령 부근의 신선봉(1,214M)으로 하고 있어 이곳을 포함하여야 완전성을 갖춘 유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건봉사 구역까지를 금강산권역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IV-38>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본 송도진리 백사장(2019.07.)

백두대간의 강원권 지질과 지형은 환태평양지질대의 백악기 산지지형으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유사한 유산의 종류는 중국의 육상과 해상의 지질대를 형성하는 태산(세계 복합유산)과 비교해 볼 수 있으며³⁴⁾ 강원권(설악산과 금강산)의 경우 한반도의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에 의한 지질대와 1만2천봉의 아름다운 지질대를 갖추고 있는 것이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황산 지질대와 육상 지질대와 비교되나 황산(세계자연유산)의 경우 지형의 돌기가 설악과 금강에 비해 낮으며 침식과 용기에 의한 지형경관도 설악과 금강의 지형 형성이 아름답게 평가될 수 있다.

34) 유네스코 세계유산(<http://whc.unesco.org/en/list>)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자료 : lafent 홈페이지(<https://www.lafent.com/>)

<그림 IV-39> 금강산 지질과 폭포



자료 : lafent 홈페이지(<https://www.lafent.com/>)

<그림 IV-40> 금강산 지질과 지형

또한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의 국립올림픽내셔널파크(세계자연유산 등재)³⁵⁾의 지질대와 비교해 보면 그곳은 환태평양 지질대의 빙하에 대한 가치로 유산에 등재되어 있어 본 설악과 금강권의 빙하와 지질대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환태평양 지질대(총석정,

35) 유네스코 세계유산(<http://whc.unesco.org/en/list>)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소금강, 석호 등)의 지질과 지형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세계화를 위한 경관자원과 지질적 특성을 고려하는 항목인 세계유산 등재기준 (viii)항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두대간 남북강원권의 지형은 수평적·수직적 지질의 변화가 심한 동아시아의 독특한 지형으로 해발 1,000m이상의 고지대가 상당 부분 차지하며 동해 난류의 영향을 받는 온화한 해양성기후와 서부는 대륙성의 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지형이다. 이곳은 아고산대의 기후를 나타내며 동측 12.1℃ 서측의 평균 기온이 9.9℃로 동해안이 서측의 내륙보다 높은 기온대를 이루는 지형이다. 강수량은 태풍의 회전 방향에 맞닿는 지역으로 많은 비를 내려 동해안이 1,342mm 서측내륙이 1,114mm로 계절적 강우가 높고 변화가 심한 지형적 형상이 독특한 곳이다. 또한 겨울과 여름의 뒤편(fohn)현상 등에 의한 골바람 등의 영향으로 강한바람(양간지풍)³⁶⁾에 강한 생태계 현상 및 잦은 산불 등에 생태계의 변화를 보이는 독특한 지형 및 생태환경을 갖고 있다.

이 지형은 뉴질랜드의 밀포드사운드 및 피요르드랜드 국립공원(Te Wahipounamu - South West New Zealand)³⁷⁾과 비교되는 일시적 기후변화 등과 비교되는 지형과 골바람 등의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를 비교 할 수 있는 유산이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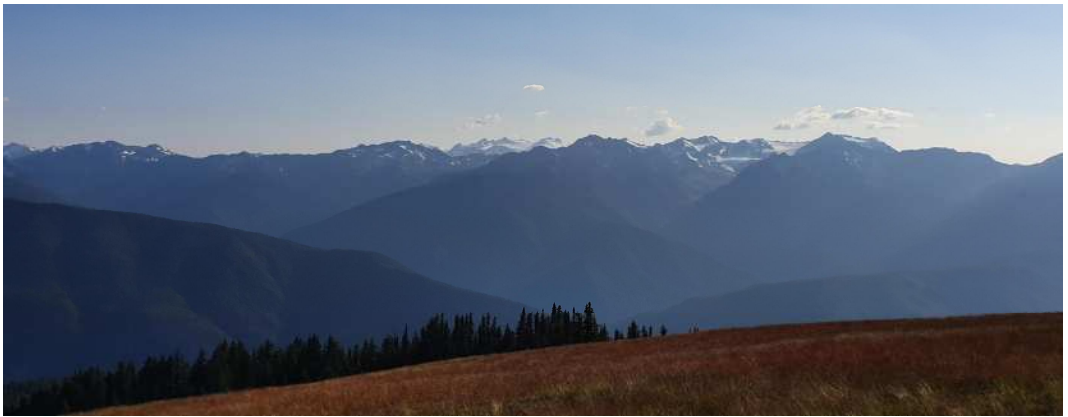
따라서 이 지형은 일정지역에서 해발고도의 차이, 지역별 온도, 강수량, 바람의 방향과 세기의 차이가 큰 독특한 지형으로 이에 따른 지형과 생태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보존 및 보전의 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자연유산에 대한 모든 항목인 (vii), (viii), (ix), (x)항의 검토와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강원도는 동남측으로는 설악산과 오대산 그리고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으로 한반도의 지형과 생태축의 중심축이다. 북으로 금강산으로 이어진 백두대간의 중심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화강암 용융지형의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가장 아름

36) 양간지풍(襄杆之風) ; 봄철에 낮은 경사 완만한 영서지방에서 높고 경사 급한 영동지방으로 부는 국지풍으로, 고온건조하고 풍속이 빠른 바람이다.(네이버)

37) 유네스코 세계유산(<http://whc.unesco.org/en/list>)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답고 다채로운 경관으로 평가받고 있어 자연유산 등재기준 경관적 가치의 기준인 (vii)항의 검토가 가능하다. 이곳은 최고 화강암 용출봉인 비로봉(1,638m)을 비롯하여 구룡폭포, 삼일포, 해금강, 세존봉이 대표적 명승 경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강산권은 비로봉을 기점으로 동서길이 대략 40km, 남북길이 60km로 면적은 약 530 km²이다. 북한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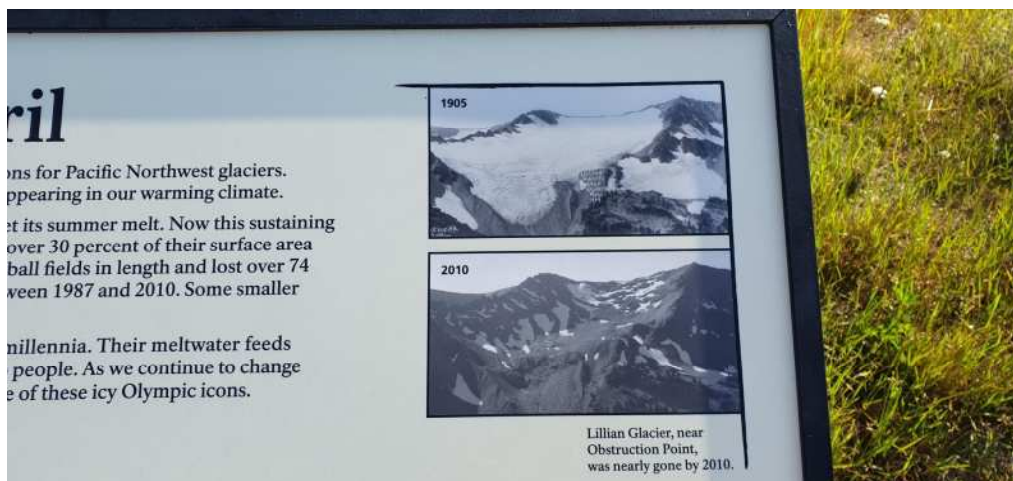
<그림 IV-41> 미국 북서부 올림픽국립공원 세계유산구역 만년설(2019.08.)

백두대간 강원권의 지질은 대부분 화강암이 분포하나 총석정 일대는 현무암이 나타난다. 지질의 역사는 12억년부터 5억7천만년의 지질대로 신생대 3기의 용기된 지질로 학계에서 발표되고 있으며 독특한 지질적 특징은 화강암층의 용기된 기암괴석이 동일면적에 가장 많은 것이 자연 유산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화강암의 높은 절리밀도가 원인이며 김창환(1998)³⁸⁾, 기근도(2002)³⁹⁾ 등이 주장하는 동해안의 기암경관은 지질의 구조운동과 풍화 침식에 의한 원인과 현무암층의 구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추정되어 이들에 대한 검증과 연구가 요구된다.

38) 김창환(1998),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금강산 주요 명승지의 지형학적 해석", 『사진지리』 9, 25-43쪽.

39) 기근도(2002), "자연지역으로서의 태백산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4), 468-479쪽.

이들이 검증되면 이들은 세계유산 등재기준 (vii)항과 (viii)에 해당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작성시 화강암지질에 의한 기존세계유산인 중국의 황산(육지 지형)과 환태평양지질대의 미국북서부 워싱턴 주(육지해안의 연안지형)의 올림픽국립공원의 빙하와 비교를 통한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올림픽공원은 살아있는 지구상 가장 낮은 지역의 빙하로 빙하의 보전을 위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림 IV-42> 미국 올림픽국립공원 세계유산구역의 빙하 변화 모습(1905년의 모습과 2010년의 모습; 2019년 촬영)

2.1.2. 명승으로 본 지질·지형의 가치

설악산 울산바위는 명승 제100호로 지정(2013.03.11.)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자연유산이다. 화강암의 독특한 풍화양상으로 만들어진 기암절벽이며 장엄하고 남한의 화강암 지형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나타내며 절리를 따른 풍화와 잔류암체의 지형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 화강암 경관이다. 아래에 있는 계조암과 흔들바위 주변은 미립적인 타포니와 토르 같은 아름다운 지형들도 볼 수 있는 곳이다.

설악산 공룡능선은 영동과 영서의 분기점으로 구름이 자주 끼는 등 기상변화가 시시각각 변하는 특징이 있는 지형이다. 공룡이 용솨음치는 힘차고 장쾌한 장관의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등재기준 (vii)항의 검토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곳은 남한의 국립공원 중 제1경에 손꼽히는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로운 경관으로 평가된다.

위의 두 명승은 신비로운 경관으로 세계유산 등재기준 경관적 가치와 지질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항목 (vii), (viii)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렴동 계곡과 구곡담 계곡은 내설악의 대표적 계곡이며 설악의 대표적 단풍계곡으로 평가되며 쌍룡폭포, 관음폭포, 용담폭포 등 폭포와 폭호가 아름다운 곳을 평가된다. 이곳을 김창흡(1653~1722), 홍태유(1672~1715) 등은 중국의 황산보다 아름답다고 평가하고 있어⁴⁰⁾ 지질과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는 등재기준 (vii)항과 (viii)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자원이다.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은 자연명승의 자연유산으로 명승 제10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은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한 내용 등의 글자가 새겨질 정도 설악의 대표적 명승지이다.

오대산 명주 청학동 소금강은 자연명승이며 자연유산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산이 깎이고 계곡이 깊어지며 만들어진 지형이다.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 선생이 금강산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것으로 소금강이라 불렀다한다. 신라의 왕자인 마의태자(신라 56대왕 경순왕의 태자)가 머물렀다는 전설과 많은 생태자원과 특히 멸종위기 좁고사리가 자생하고 있고 산양, 사향노루, 반달곰 등의 멸종위기 동물이 살고 있으며 까막딱따구리 등이 있어 생태자원의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 등재기준 (vii)항과 (x)항의 검토가 가능한 공간으로 사료된다.

명승 106호인 강릉의 용연계곡은 하천의 침식·운반·퇴적작용과 풍화로 형성된 화강암 지형이 잘 발달 된 곳으로 소규모 폭포(瀑布), 폭호(瀑湖), 담(潭), 소(沼) 등의 하천지형·암석하상·자갈하상이 연이어 펼쳐져 주변의 울창한 수목과 어우러져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지질·지형적 가치가 우수한 곳이다. 이곳은 지질 및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등재기준 (vii), (viii)항의 검토가 요구되는 곳이다.

40) 문화재청 홈페이지(한국의 명승)

명승 제68호인 하조대는 온갖 기암괴석과 바위섬들로 어우러져 있는 암석해안으로 주변은 송림들로 이루어진 동해안의 절경이며 경승지이다. 이곳은 해식으로 강한 파식작용의 영향으로 급경사의 해안절벽이다. 따라서 이곳은 경관과 지형의 지질 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 (vii)항과 (viii)항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명승 제73호 검룡소는 특이하고 아름다운 지질과 지형학적 경관으로 희귀한 동식물상이 있으며 막동석회암반(또는 막골 석회암)에서 솟아나는 2천톤 가량의 지하수와 고생대 퇴적층군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자연 및 역사문화 경승지이다.

강원도 기념물 10호로 지정 관리되는 화진포는 수천 년 동안 조개껍질과 바위가 부서져서 이룩된 이 호수(석호)로 염담호수(鹽淡湖水)로 어족(魚族)이 풍부하다.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흑고니의 도래지로 가치를 가지며, 고진동 계곡에서는 금강모치, 버들가지, 종개, 미유기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중 금강모치는 지구상에서 한반도에만 서식하고 있는 종으로 동해로 유입되는 수계에서는 이곳에만 유일하게 분포한다. 따라서 등재기준 (ix)항과 (x)항의 검토가 가능하다.

강원권의 해안지형은 한반도와 일본열도 및 사할린 섬으로 둘러싸인 태평양의 연안으로 면적이 약100만 7천3백㎢, 평균수심 1,684m에 이르는 동부보다 서부가, 남부보다 북부가 깊은 지형으로 이루고 있으나 동해안은 울릉도 부근의 대화퇴 부근이 평균 300~500m정도이며 해저의 영양염류가 풍부하며 남북의 난류와 조경(潮境)에 의해 어류가 많아 어장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난류와 교류에 의해 어족이 풍부하다. 대표적 어족은 쾡치, 멸치, 방어, 삼치, 고등어, 오징어 등이다. 한류성 어족은 명태이나 기후변화로 줄어드는 추세이다.⁴¹⁾ 보존가치가 높은 어류이다. 동해안의 수온은 여름에는 25℃정도이며 겨울에는 13℃ 정도로 나타나며 염도는 35%정도로 우리나라 해수욕객이 가장 즐기는 지역이다.

41) 김창환외(2018), 「이야기가 있는 강원 해안」,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14쪽.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IV-43> 화진포 항공사진

따라서 남북강원도의 지형경관은 산지지형, 하천지형, 해안지형, 화산지형, 빙하지형을 갖추고 있어 지각작용에 의한 지형 경관의 많은 부분을 간직하고 있어 이곳은 지형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해안의 지형과 석호의 경관과 지질은 물론 육상과 해상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지형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아 명승경관으로 가치를 판단되는 자연환경 등재기준 (vii), (viii)항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금강산 권역의 경관은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이곳은 북한의 명승으로 지정하여 내금강은 금강산의 서부지역으로 만폭구역 등 8개소, 외금강은 동부지역으로 구룡연구역 등 11개소로 나누어 관리되며, 해금강은 금강산 동부

해안의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삼일포구역, 동정호, 해만물상일대, 총석정일대 등 4개소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한반도 최고의 대표적 명승경관이다.

남북강원도의 백두대간에서 나타나는 산악지형은 급애, 암석돔, 관상절리 및 수직절리, 토르, 고위평탄면, 풍화동굴, 나마, 능선과 산봉, 고개(령), 암괴원과 암괴류, 하천지형은 폭포, 폭호, 소, 협곡과 계곡, 삼각주, 용천, 기반암하상을 볼 수 있으며 해안지형은 해식애, 해식동, 시스터, 하안타포니, 석호 등이 나타난다. 특히 석호가 잘 발달된 동정호, 시중호, 천아포, 삼일포, 감호, 화진포, 영랑호 등이 대표적 석호이다. 이들에 대한 보전가치가 높다. 또한 화산지형인 총석정의 베개용암과 해금강도정호와 총석정 구역의 주상절리 지형이 있다. 빙하지역은 상팔담과 구룡연계곡 지역과 만폭동계곡 지역에서 빙하지형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설악과 금강산권의 지형경관은 지형경관이 갖고 있는 많은 형상을 볼 수 있어 보존가치가 높으며 세계유산 등재기준 (vii), (viii)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 화강암층의 용기와 퇴적암에 의한 지형경관과 비교되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2.2. 남북강원 산악의 유산적 가치

설악산과 금강산은 시생대 편마암과 혼성암류, 중생대 흑운모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웅장하고 절묘한 자연경관에 독특한 지질과 지형발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지형이다. 이곳은 서부지역 보다 동부지형이 제3기 중신세 말에 동과 서가 비대칭적 궁룡상륙기운동(경동지괴운동)때 동쪽의 용기가 심하게 되어 1,000m이상의 단층면을 이루어 여러 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서측은 느린계단상지괴로 이루어졌다. 지하의 용암이 바위로 되며 구조운동에 의해 파열면, 균열면, 절리면의 발달로 장기간 풍화와 침식작용에 의해 절벽, 계곡, 천태만상의 봉우리와 관상, 각추모양 등의 다양한 형태의 돌기둥과 기암기석이 형성된 지형이다. 동해의 해금강지역은 해식작용과 퇴적작용을 받아 해만물상, 바다벼랑, 바위섬, 호수 등이 발달하였다. 백두대

간 산악의 장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은 장시간의 구조운동과 풍화작용, 침식작용, 해식작용 등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⁴²⁾

설악산은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 그리고 고성군 등에 걸쳐 있으며 해발고도 1,708.1m의 산이다. 설악산 기반암은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로 이루어진 대청봉 부근과 백담사 남측의 육성층인 설악산 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에 시기를 달리해 관입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악산의 기암괴석은 중생대 백악기에 시기를 달리해 관입한 다양한 화강암류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침식되어 형성된 것이다.⁴³⁾ 설악산은 육중한 능선과 기암절벽 그리고 계곡미가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는 명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곳은 권금성, 울산바위, 흔들바위, 공룡능선 등의 기암괴석과 신흥사와 백담사 등의 각종 문화재 및 사적, 오색온천, 달기약수 등이 있으며 천불동계곡, 백담계곡, 비룡폭포, 대승폭포를 비롯한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1982년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설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은 다양한 동식물의 분포 현황을 높이 평가하여 ‘카테고리Ⅱ’로 평가하여 보존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오대산은 강릉시, 홍천군 그리고 평창군에 걸쳐 백두대간의 동서를 포함하는 해발고도 1,565.4m의 산이다. 이곳은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대표적 토산으로 평가된다. 토산은 토양이 비옥하여 산림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한반도 임목축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청학동 소금강계곡은 1970년에 우리나라 ‘명승1호’로 지정되어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월정사, 적멸보궁 등 불교 성지가 많아 중국의 오대산 불교성지(중국의 세계유산)와 비교되는 자원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응봉산은 삼척시 원덕읍과 가곡면의 경계를 이루며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과 경계를 이루는 위치에 입지한 해발 999m의 산이다.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과 세일층으로 이루어진 대표적 토산이다. 용수골은 절경이며 덕구 계곡의 온정골에는 온천이

42) <http://www.cybernk.net>

43) 김창환·홍성익·이학주(2018), 「이야기가 있는 강원도의 산」,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30쪽.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 화전민 촌락이었던 민속유물 제33호로 지정된 너와집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으며 물레방아, 통방아, 채독, 설피 등의 농어촌 유적이 있다.

태백산은 태백시와 경상북도 봉화군의 경계에 이르는 해발 1566.7m의 산이다. 태백산맥의 종주이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분기점에 해당한다.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고생대·중생대의 퇴적암류, 그리고 이들 지층에 관입한 중생대의 화성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사면은 고생대 선캄브리아기의 석회암, 점판암, 규암 등이 정상부 남쪽은 편암 등이 기반암을 이룬다.

가리왕산은 정선군과 평창군 경계하는 해발고도 1561.9m의 산이다. 산의 동쪽사면은 오대천이 흐른다. 이산의 정상부는 중생대 트리아스기에 형성된 평안누층군의 녹암층군으로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쪽사면은 무연탄층과 석회암층이 연속으로 발달하여 탄광이 발달하였으며 석회암 용식지형인 돌리네가 분포한다. 중봉에 스키장 조성되어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있어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두타산은 삼척시 하장면과 동해시 삼화동 사이에 있으며 해발고도 1,357m이다. 예로부터 영동남부 지역의 영적인 모산(母山)으로 숭상되어 왔다. 『신동국여지승람』에 산중턱에 돌우물이 50여개 있으므로 오십정이라 부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돌 우물은 지형학적 용어로 나마(gnamma)라 부르는데,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해작용으로 만들어진 웅덩이로 풍화미지형에 해당한다. 백두대간의 주요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암봉이 정상부에서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산 이름은 두타는 산스크리트어의 두타(Dhuta)를 이두식으로 한자화 한 것이다. 이 말에는 “의식주에 대한 탐욕과 세상의 모든 번뇌와 망상을 버리고 수행 정진한다.”는 불교적 명치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무릉계곡과 삼화사 무릉반석, 관음폭포, 쌍폭, 용추폭포, 병풍폭포, 장군바위, 선녀탕 등의 기암괴석들이 많고 이산의 능선은 백두대간의 종주코스이다.

2.3. 남북강원 하천의 유산적 가치

백두대간의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하천의 일부에는 암반에 작은 항아리나 원통 모양의 포토홀(pothole)이 있다. 소용돌이치는 물살로 인해 자갈 등의 회전운동에 의해 오목하게 하상을 깊게 파이게 한 지형이다. 금강산 권역의 금강못, 상팔담과 문주담, 진주담, 비파담, 분설담, 옥류담, 송림담 등이 있으며 영월의 요선정, 철원의 순담계곡, 화천 곡운구곡 선녀협, 인제 내린천 등에 나타나며 영월의 요선정 요선암 포토홀은 천연기념물 제543호로 지정되어 있다.

200만년 전부터 시작된 신생대 제4기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했으며 기후변화를 거치며 다양한 지형으로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의 하천하상이 현재의 하상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하안단구는 지각변동, 기후 및 해면 변동이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제4기의 환경변화 및 복원의 키(key)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의 하상 일부가 현재의 하상보다 높은 고도에 평행하게 발달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하안단구’라 한다. 즉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함으로써 형성된 것은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빙기·간빙기의 기후변화로 형성된 퇴적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백두대간의 영월읍교동과 영월역의 13번 군도의 하안단구로 동강 한강상올부 수려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생태계와 더불어 감입곡류가 탁월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곳은 제4기 이후 한반도 지형형성과정과 동강의 변화 모습을 유추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⁴⁴⁾

강원도 영월의 동강은 2001년 동강일대가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썩세까지 46km에 이르는 동강 수면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동강유역국·공유지 64.97km²(약 2천여 만평)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 2012년에는 강원도 영월군 문산2리 일대 7.88km²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 10종을 포함해 1,840종의 동물과 956종의 식물 서식처로서 석회암 동굴 71곳과 모래톱 50여곳, 감입곡류 하천 등 지형경관 또한 빼어난 국내 최고의 하천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44) 김창환·홍성익·이학주(2018), 「이야기가 있는 강원도의 강」, 강원학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39-40쪽.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노곡면과 식기면, 미로면을 거쳐 삼척시를 거치는 오십천은 중류부와 하류부가 고생대 조선누층군이 분포하며 이 지질은 돌네 등의 카르스트 지형의 전형적 특성이다. 오십천 상류부는 한국판 그랜드캐니언이라 불리는 통리협곡과 미인폭포가 있으며 곡류가 심한 지형으로 50번 정도의 물을 건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⁴⁵⁾ 미인폭포는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로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층이 고생대 평안누층군 지대로 둘러싸여 있는 통괄 협곡이 가장 윗부분에 위치한다. 이 협곡은 상대적으로 침식에 약한 붉은 색의 퇴적암 층이 300m 가까이 침식되어 지표에 드러나 깊은 계곡이 되었다. 협곡을 흐르는 오십천은 신생대 제3기 약 2,300만년 전에 동해가 열리고 태백산맥이 솟으면서 해수면의 하강으로 하방침식과 두부침식(headward erosion)이 활발해진 한반도 대표적인 지형이다. 상류 쪽을 향해 침식이 이루어지는 두부침식의 끝이 바로 미인폭포이다. 높이 50m의 미인폭포는 오십천의 상류이다. 미인폭포는 약 1억 년에 가까운 지질시대를 거치며 현재의 경관을 드러낸 폭포로 한반도의 지질 및 지형 형성과정 등을 그대로 간직한 기록물이면서 동시에 오십천이 새겨놓은 예술 작품이다.⁴⁶⁾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지형의 발전상과 지질학적 가치를 살필 수 있는 등재기준 (viii)항의 검토와 검증이 요구되는 곳이다.

강원도는 산악지형으로 많은 폭포는 양양 설악산 주전골의 용소폭포, 인제 십이선녀탕 계곡과 백담 계곡 등에 잘 발달되었다.⁴⁷⁾

구문소는 태백시 남쪽 황지천과 철암천이 만나는 곳으로 태백팔경의 하나이다. 이곳은 물이 큰 석회암 산지를 뚫고 석문과 소를 만든 석회암 동굴로 감압곡류의 하천과 석회암 용식작용이 함께 만들어 낸 매우 드문 지형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4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황지는 삼척부 서쪽 110리에 있다. 그물 남쪽으로 30여리를 흘러 작은 산을 뚫고 남쪽으로 나가는데 천천(穿川)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문소 일원은 침식작용과 구하도,

45) 김창환·홍성익·이학주(2018), 전계서, 23쪽.

46) 김창환·홍성익·이학주(2018), 전계서, 32쪽.

47) 김창환·홍성익·이학주(2018), 전계서, 34쪽.

고생대 퇴적구조, 고생대 화석산지 등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므로 지형·지질적 학술 가치가 매우 높으며, 또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어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의 중요 사이트이면서 동시에 자연학습장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세계 자연유산 등재기준 중 지질과 지형학적 가치기준인 (viii)에 적용 여부를 검토, 검증할 수 있는 곳이다.

한강의 발원지로 유명한 검룡소는 산지 사면의 경사가 급한 곳에서 완만해지는 경사급변점에 위치하는 고생대 퇴적암과 석회암이 만나는 지점에 규열과 석회암 공동의 용천으로 카르스트 용천이다. 카르스트 용천은 용출량이 일정하며 수온의 변화가 적고 투명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검룡소는 대표적 카르스트 용천이다.⁴⁸⁾

오대산 금강연 천연기념물지역은 열목어와 메기 등이 서식하는 특별어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등재기준 (x)항의 검토가 가능한 내용이다.

2.4. 석호(滌湖, lagoon)에 대한 유산적 가치

한반도 석호는 강원도 강릉의 북측 위도에서 함경도의 해안에 입지하며 이들의 대표적 석호는 통천의 동정호(시중호), 고성 의 화진포와 강릉의 경포호·속초 영랑호·청초호·송지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석호는 바다와 연결되어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플랑크톤이 풍부해지고 안정된 먹이사슬이 유지되는 곳으로 한반도의 대표적 기수호로서 멸종위기의 흑고니, 흰꼬리수리 등 조류와 줄말, 애기거머리말 등 식물군락이 관찰되어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보존대책이 시급한 지역이다.⁴⁹⁾

한편 북한은 2018년 10월 두바이에서⁵⁰⁾ 열린 람사르 협약 총회서 강원도의 석호 등 습지 54곳을 습지로 올려 강원도 석호습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대표적

48) 김창환·홍성익·이학주(2018), 전게서, 42-43쪽.

49) 김창환외(2018), 「이야기가 있는 강원도의 해안」,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원, 35쪽.

50) 경향신문, “북한, 람사르 총회서 습지 54곳 정보 첫공개” (2018년 10월 30일)일간지

남북강원도의 석호는 대부분 만구사주(灣口砂洲, bay-mouth bar)로 속초 청초호, 화진포, 송지호, 통천의 동정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지속적인 퇴적으로 줄어들어 늪지나 충적지로 변하는 지질변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아시아 동북부지역의 지형으로 평가받는다. 이중 화진포는 선캄브리아기의 경기편마암복합체와 쥐라기대보화강암 그리고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 제4기 충적층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한반도 동해안의 다른 석호보다 바다 연안 생태와 호수생태계가 가장 잘 보전되어 있으며 인위적 퇴적물이 영향을 최소화한 지형으로 보전가치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동해안의 돌출된 산과 구릉의 아랫부분은 파랑(波浪)에 침식되어 암석해안을 이루며 만입(灣入)부의 모래 해안을 이루어 석호를 이루며 일부 농경지로 변화되어 있는 지형이다. 이곳은 파랑에 의해 모래, 자갈 등의 퇴적으로 비치(beach)가 많은 지형이다. 이들은 사빈해안으로 형성되어 남한의 경우 전국 해수욕장의 41%인 95개로 여름 최고의 피서지로 각광 받고 있다.

한반도 동해안의 석호습지는 강원도 해안에서 가장 발달하며 담수와 해수가 섞여 기수(brackish)로 연안의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 그리고 산란처와 피란처의 중요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 석호는 1960년대 이후 매립, 수문에 의한 해수유입차단, 제방축조 등에 의한 배수, 습지 식생의 제거, 수질오염 등으로 교란되어 그 수와 면적이 감소하여 보전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등재기준 (v)항 검토가 요구되는 유산이며 대표적 보존가치가 높은 강원석호는 화진포, 송지호, 광포천, 영랑호, 경포호 등이다.

이렇듯 남북강원의 석호는 한반도에서 해안선의 퇴적과 해수면과의 지질변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지질변화이며 독특한 생태계 특성으로 갖추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세월이 흘러 퇴적하고 도시화 되어 소멸할 우려가 되는 자연 변화의 보존공간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은 자연유산의 등재기준 (vii)항과 (viii)은 물론 (v)항의 검토가 요구되는 곳이다.

2.5. 백두대간 남북 강원권 유산의 생태자원의 가치

남북강원도는 백두대간의 남북을 축으로 하는 높은 산지로 우리나라 생태다양성의 핵심 축이다. 즉 남한의 설악산과 오대산, 북한의 금강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한반도 생태계 보전의 중요한 공간이다. 향로봉일대와 건봉산 일대는 한국전쟁이후 원시림 생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보전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2018년 강원도와 정부는 향로봉과 건봉산 천연보호구역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을 핵심구역으로 하여 유네스코에 강원생태평화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신청하여 기존의 설악산생물권보전지역과 연결한 생태축 보전을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9년 금강산 생물권보호지역으로 유네스코에 지정 받았다.

2.5.1. 설악권 생태자원의 가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대규모의 화강암 관입과 더불어 암질과 절리의 차이에 따른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나타내는 차별침식의 대표적 공간이다. 이곳에는 타포니, 토포 등의 지형적 특징이 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식물 1,031종, 동물 1,562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한반도에서 종다양성이 가장 풍부하며 눈썹백, 노랑만병초, 난쟁이 붓꽃, 난사초, 한계령 등 희귀식물이 56종 있으며 반달사슴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열목어, 어름치 등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서식하고 있어 등재기준 (x)항의 검토가 가능한 지역이다.

설악산에서 확인된 조류는 총15목 43과 80속 146종이다. 이중 천연기념물은 12종, 환경부 및 국제 IUCN기준의 적색목록에 수록된 조류는 127종이었다. 양서파충류는 한반도 전체 파충류 중 51.2%가 설악산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담수어류는 총 13목 26과 73종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천연기념물은 어름치(Hemibarbus mylodon)가 지정되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8종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조류 및 양서파충류 그리고 담수어류 등의 보존을 위한 구역으로 지정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곳은 설악산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재청이 지정 관리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은 13종이며 멸종위기 동물인 산양, 삿, 담비, 하늘다람쥐의 서식지이며 멸종위기조류인 까막딱다구리, 새매, 수리부엉이, 올빼미 등의 서식지이다. 설악산에서 확인되는 포유류 중 천연기념물은 곰(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및 하늘다람쥐 4종이다. 환경청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은 곰, 수달, 담비, 무산쇠족제비, 삿, 산양, 하늘다람쥐 7종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사슴반달곰이 DMZ에서 발견되기도 했다(2019. 05. 09 KBS뉴스:국립생태원). 또한 설악산지역은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산양개체군의 39.9%~60.3%가 서식하고 있어 한반도 산양개체군의 핵심지라고 하고 있다.⁵¹⁾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표된 ‘설악산에 기록된 식물 분류군은 총 1천2백92분류군이라 하며 한국특산식물은 요강나물, 터리풀, 산오이풀, 네잎갈퀴나물, 노랑갈퀴, 연밭피나무, 금강봄맞이, 갈퀴아재비, 새매느리밥풀, 병꽃나무, 금마타리, 금강초롱, 정영영경퀴, 솜다리, 각시서덜취, 자주솜대 등이 자생하는 것’으로 ‘거미, 어류, 조류, 식물, 지질 등은 곤충 8과 80종을 비롯해 총 3천4백여종의 생물을 확인했다.’⁵²⁾고 밝히고 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식물 1,031종, 동물 1,562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한반도에서 종다양성이 가장 풍부하며 눈측백, 노랑만병초, 난쟁이 붓꽃, 난사초, 한계령 등 희귀식물이 56종 있으며 반달사슴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열목어, 어름치 등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서식하고 있어 등재기준(x)항의 검토가 가능한 지역이다.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은 한반도 중심이며 백두대간의 중심부로 북한의 금강산과 연계된 중부온대림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향로봉 지역은 해발 500m부터 온대림 생태천의 극성상을 이루는 대표적 서어나무류 군락의 식물상을 볼 수 있으며, 700m부터 사스래나무와 함박꽃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1,100m이상 정상 부근과 능선에는 하늘말나리, 금강초롱 등의 희귀식물들이

51) 문화재청(2015), 전거서, 80쪽을 바탕으로 재구성.

52) 네이버 홈페이지, “설악산, 3천4백종 서식하는 생물의 보고” 작성자 정종화를 바탕으로 재구성.

자라고 있다. 그러나 군 작전상 큰 나무들을 제거한 탓으로 미역줄나무, 다래덩굴이 영켜 있고 생태계의 왜곡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또한 향로봉 건봉사 일대는 칠상장어, 산천어, 금강보치, 버들치, 가는돌고기 등의 보호종과 수달, 사향노루, 곰, 하늘다람쥐 등의 특별 보호종이 있어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어 등재기준 (ix), (x)항의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향로봉·건봉사 천연보호구역은 백두대간의 중심부로 금강산과 연계된 지역으로 중부온대림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가치를 갖고 있다.

아울러 향로봉과 건봉산 천연보호구역 일대는 잘 보전된 식생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제247호인 지정되어 있으며, 환경부의 생태계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랍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있다. 또한, 남한의 설악산과 북한의 금강산을 잇는 생태통로(eco-corridor)의 역할을 하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등재기준 (x)항의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양구 개느삼 자생지는 1992년 12월 23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이며 양구 비봉공원 대암산 기슭에 자리 잡은 식물로 개느삼이 자랄 수 있는 남쪽한계선의 가치를 갖고 있다.⁵³⁾ 이곳은 세계유산등재기준 (x)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2.5.2. 금강산권 생태자원의 가치

설악과 금강산권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큰 산줄기에 놓여 있는 지형으로 높은 산악, 낮은 바다 그리고 동으로는 바다, 서로는 능선을 이루는 높고 낮고 급하고 평지를 이루는 지형으로 한반도 동식물성장과 그 분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한반도 북부계통과 남부계통의 식물이 바뀌는 지대로서 지형·기후 등의 자연 지리적 특성이 있어 대자연동식물원이라 할 수 있다. 척추동물이 390여종 짐승38종, 조류130종, 양서류 10여종, 파충류9종이 있으며 접류(접류) 400여종이 있어 동물상이

53) 문화재청 홈페이지

아주 다양하다. 설악산권과 금강산권의 동물은 사향노루, 산양, 큰곰, 노루, 흰족제비, 금강산판코박쥐, 작음 줄방박쥐 등 백두대간의 다양한 생태자원과 공생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이다. 이곳은 온대남한계통의 식물에서 아한대성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과 고유한 특산식물 약 2,260종의 식물이 분포하며 특산종이 1,000여종 있다. 외금강일대는 남방계통식물이 서쪽의 내금강 일대는 북부계통식물들이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내외금강 해발 300~400m이하에는 소나무가, 외금강 해발 300~800지역에는 갈참나무·서어나무 등 활엽수가 주요 식물 자원이다. 내금강의 해발 400~700m에는 전나무가, 해발800m에는 소나무와 신갈나무 등 혼성림이, 800~1,000m지역은 참나무류, 피나무류, 단풍나무류, 잣나무 등이 분포하며 고산지역은 누운측백, 누운향나무, 들쭉나무, 고채목, 큰만병초, 산오이풀, 바위구절초, 금마타리, 바위채송화 등 아한대성 식물이 분포한다. 특히 이곳은 금강초롱, 봉래꼬리풀, 참바위취, 나래사초, 그늘돌쩌귀, 선등갈퀴, 산갈매나무 등 특산식물이 많아⁵⁴⁾ 설악과 금강산권은 한반도 식물자원의 보고이다. 특히 금강산 권역은 유네스코 자연보호구역이며 북한에서 천연기념물(동물)로 지정된 외금강남생이(230호)가 있으며 북한의 식물천연기념물인 조팝나무과의 금강국수나무(232호), 금강초롱(233호), 금강전나무(234호), 창터소나무군락(416호), 고성참대밭(415호), 내금강전나무림(458호) 등이 있다.(김철민, 2002) 이들은 국가차원에서 잘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유산등재 후라도 지속적으로 보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54) 평화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cybernk.net>)



자료 : 네이버 홈페이지

<그림 IV-44> 북한의 천연기념물(230호)
외금강남생이(*Geoclemys reevesii*)



외금강 남생이 서식지

자료 : 평화문제연구소 (<http://www.cybernk.net>)

<그림 IV-45> 외금강남생이 서식지

금강산권에서 확인된 IUCN지역적색목록 범주의 식물은 환경부지정 103종, 산림청 지정 130종, 북한지정 36종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인정받는 한반도 특산 속은 금강초롱꽃속, 미선나무속, 금강인가목속, 개느삼속, 매미꽃 속, 모데미풀속 및 두잎감자난초속 등의 7개인데 이중 두잎감자난초속은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한국특산종은 6종류이다. 이중 미선나무속을 제외한 5개속은 백두대간의 남방계와 북방계가 만나는 설악산권과 금강산권에 집중 자생하여(이우철·임양재 2002) 이곳은 동아시아 지역의 식물분포학상 매우 중요한 핵심장소이다. 또한 이곳에서 확인된 한반도 고유종은 환경부지정 71종, 산림청지정 51종, 북한지정 106종이 확인되었다.⁵⁵⁾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기준(x)항목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금강산권역의 식물은 온대남부계통의 식물과 아한대성 식물이 자라고 있어 식물종 수가 풍부하며 지질지형경관의 특성을 갖춘 특산종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다. 금강산의 고등식물(유관속식물)은 1,228종류이며 양치류 67종류, 나자식물 15종류, 피자식물 1,446종이 있다(박일일 등, 2005). 이는 한반도 식물속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박일우 등, 2005). 즉 금강산 지역은 한반도에서 많은 환경변화에 따라 북방계의 극지고산식물, 고산식물, 아고

55) 문화재청(2015), 전거서, 146쪽.

산식물과 남방계의 식물 등의 많은 생물학적 역사와 풍부한 생물상을 가지고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공우석, 2007).



자료 : 공우석(1998), '문화재청(2015), 전개서, 139쪽 재인용

<그림 IV-46> 한반도 고산식물의 분포지대

이곳은 한반도의 북방계식물과 남방한계식물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큰 의미를 가지며 아고산대식물, 고산대식물, 북방계식물, 온대성 침엽수와 낙엽활엽수, 그리고 난온대성 식물 등 다양한 식물종이 분포하여(홍문표 등, 2010) 식물생태자원의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동해의 해양성식물과 남방계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생태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곳은 중생대 이후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지역의 식물상과 관계가 깊으며 한반도 식물의 기본인 제3기의 한대성과 아한대성 식물로 한반도의 북방계 식물의 서식처이자 피난처로 빙하기 동북아 식물상을 유지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한다(공우석, 2002).



자료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그림 IV-47> 남측강원도 백두대간생태자원도

또한 남북으로 백두대간의 중심축이며 동서로 지형조건이 달라 생태적 다양성이 매우 높다.⁵⁶⁾

56) 문화재청(2015), 전계서, 71쪽.

금강산권의 척추동물은 390종이며 그 중 포유류 130종, 양서류 10종, 파충류 9종, 나비류 400여종이 분포한다. 금강산에서 확인된 포유류 중 천연기념물 5종, 멸종위기야생동물 11종, 한반도 고유종 1종, IUCN 지역적색 범주 포유류 18종, 북한 IUCN 기준의 종은 15종, 그리고 국제 IUCN범주의 적색종은 25종류가 출현하여 금강산은 한반도 백두대간 포유류 보전의 중심지역이며 멸종위기 호랑이, 큰곰, 반달가슴곰, 표범, 늑대 등의 서식확인 및 현존대표 포유류인 산양과 산양노루 보전이 시급하다. 이곳의 어류는 자연조건에 따라 백두대간 서측의 어류는 남방계어류가 서식하며, 동사면 하천은 북방계 어류가 서식한다. 내금강 하천에는 한반도 특산종의 어름치와 쉬리 등이 있다. 해금강과 고성만 일대는 60여종의 물새류와 남생이와 칠성상어 등 20여종의 어류가 서식한다.(라웅칠 등, 2010) 아울러 이곳은 한반도의 모든 파충류와 양서류 그리고 조류, 곤충류, 극피동물, 연체동물 등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고유종, 조류 등이 서식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 (ix)와 (x)항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설악산과 금강산에 서식하는 국제 IUCN범주의 식물은 전체 지정된 165종류 중 53종류가 출현하여 한반도 서식 식물 중 32.1%를 차지하며, 포유류는 전체 지정된 80종류 중 30종류가 출현하여 37.5%가 서식하고 있다. 조류는 전체 지정 424종류 중 161종류가 출현하여 37.9%를 차지한다. 양서파충류는 전체지정된 24종류 중 15종류가 출현하여 62.5%이었다. 이렇듯 설악산과 금강산의 생태적 자원은 한반도 서식 생태 종류 중 상당부분 차지하여 종다양성이 풍부하며 대표적 한반도 생태적 자원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

아울러 이곳은 경관이 우수하고 생태자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설악산은 한국정부에서 1965년 11월 희귀동식물(에델바이스, 금강초롱, 산양, 산양노루) 및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해 천연기념물 171호의 천연보호구역(면적 173,744,122㎡)로 지정되었으며(인제군, 2015), 1970년 국립공원으로, 1982년에 희귀한 자연자원의 분포서식지로 한국최초 UNESCO의 MAB프로그램에 의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2005년에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카테고리 II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즉 이곳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012)

이는 멸종위기동물인 반달곰의 서식지로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지역의 보존가치가 높은 곳에 지정하는 등재기준 (x)항에 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으나 반달곰의 서식 분포가 서아시아 및 러시아 대륙까지 분포하고 있어 이들의 서식환경, 서식밀도, 종의 집중도, 보존가치 등의 검토를 위한 남북간의 협약 및 국제적 공인을 위한 공동조사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곳은 한반도의 고유속이며 아고산대의 대표적 식물자원인 금강인가목속(국수나무속)의 최대로 자생하고 있으며 고유종인 금강초롱, 금강봄맞이꽃, 들쭉나무 등이 자라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즉 이곳은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ix)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다양성 보존의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자료 :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그림 IV-48> 금강인가목



자료 : Doopedia 홈페이지

<그림 IV-49> 국수나무

따라서 이곳 설악산지역과 금강산지역의 생태자원은 한반도에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며 아울러 한반도 멸종위기 식물의 최대 서식지로 지역의 보존가치가 높은 곳에 해당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 (xi)항과 (x)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남한의 설악산을 중심으로 환경부에서 조사된 결과를 보면 멸종위기야

생식물종 I 등급인 털복주머니 1종, II 등급인 가시오가피, 기생꽃, 날개하늘나라, 노랑만병초, 달꽃, 복주머니란, 산작약, 연잎쟁의다리, 차겉이란, 한라송이풀, 홍월굴 9종으로 총 11종의 멸종위기야생식물이 총 11종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멸종위기식물 77종의 15.6%에 해당한다.⁵⁷⁾ 따라서 등재기준 (x)항에 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설악산과 금강산은 한반도 지형의 중심에 위치하며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하여 한반도 전체식물상의 34.8%, 포유류의 38.8%, 조류의 46.1%, 양서파충류의 58.8% 그리고 어류의 38.7%를 차지하고 있어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⁵⁸⁾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은 한반도 고유종의 비율이 식물 23.2%, 어류 27.3%로 전체 분류군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생물의 39.5%를 출현하는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들은 한반도의 지질학적 변화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한반도 생물상분포와 진화과정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은 세계유산 등재기준 (vi), (x)항에 적용 가능하다.

57) 문화재청(2015), 전세서, 74쪽.

58) 문화재청(2015), 전세서, 161쪽.

3.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의 유산적 가치

3.1. 비무장지대의 문화유산적 가치

최근 남북 평화분위기에 부합하여 경기도⁵⁹⁾ 및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⁶⁰⁾ 그리고 국회 등에서 비무장지대의 유산적 가치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DMZ의 유산적 가치를 발굴하는 연구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⁶¹⁾ 등에서는 문화재청과 경기도 등과 ‘DMZ의 세계유산화를 위한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남북협약, DMZ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도출, DMZ 실태조사,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까지 상호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협약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문화재청과 경기도 등과 함께 “업무협약서 이행을 위해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특별법 제정, DMZ 및 접경지역 기초조사, DMZ 세계유산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의 협력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국방부·통일부 등의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59) 경기도(2019), “경기도,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회학술심포지엄.

60) ICOMOS-KOREA(2018), “DMZ의 유산적 가치”, 2018년 4차 이코모스포럼.

61) 매일일보: 강원도,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MOU 체결(2019.07.11).



자료 : 연합뉴스 홈페이지

<그림 IV-51>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동부전선에 문화재청 근대유산으로 지정된 감시초소(GP)

즉 경기도와 강원도의 일원에 횡으로 설치되어 DMZ에는 많은 부분에서 세계의 냉전시대를 대표하는 시설들(철책과 GP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복되고 유산한 시설들로 넓은 면적에 분포하며 분단된 국토를 단절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중 대표적 유적이라 할 수 있는 동해안 설악과 금강을 잇는 생태축과 한반도의 문화중심이었던 설악과 금강산 사이와 동해안 철책선의 DMZ와 민간인 통제선 등의 공간에 대한 선택적 세계유산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쟁의 파괴로 인한 아픔과 인적교류 단절이 장기화 된 공간인 휴전으로 인해 인위적 간섭에 의해(GP 및 철책 등) 생명의 단절 공간(산불과 철책 등) 그리고 지구 마지막 휴전공간의 가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iii), (v), (iv) 항에 해당 하는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강원권의 DMZ는 폭이 좁고 인간의 간섭이 덜 되어 산악지역으로 인한 경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남북간의 협의가 다소 수월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국간 국제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공동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비무장지대(DMZ)의 자연유산적 가치

비무장지대는 1953년 설정된 경기도 파주군 장단반도의 임진강하구에서 강원도 고성군 동해안 사이의 군사분계선 남과 북으로 각각 2km의 지역으로 폭4km에 길이 약 250km의 지대를 말하며 이중 남북강원도의 비무장지대는 철원에서 고성군의 해안선까지를 말한다. 이중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형은 남북강원도의 향로봉산맥 주변 등에서 만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군사보호의 목적으로 남과 북이 빈번한 산불을 놓아⁶²⁾ 생태계 보전은 미약한 실정이다. 즉 70여년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분단에 의한 비무장지대의 생태자원 보존지역은 향로봉산맥 주변 일부분에 국한함을 알 수 있다.

남한 강원도의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는 고성군 해금강지역의 환경영향평가조사 정도에 그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조사는 남방한계선과 민간인 통제선 사이의 민통선지역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자연자원에 대한 인류의 보존은 유네스코가 인간과 생물권계획(MAB)에서 지정하는 생물권보존지역(biosphere reserve)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유산위원회(WAC)에서 등재하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로 가능하다. 이중 생물권보존지역은 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제도이며 세계유산은 세계적으로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가진 곳을 등재 보존하는 제도이다. 즉 세계유산은 생태적 특성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비무장지대 생태자원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산불의 영향을 받아 참나무류가 우점하는 군집하는 단순군집이며 수령도 낮은 2차 천이 초기 산림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측 DMZ 내부의 생태자원은 경작이 이루어져 인공적 경관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환경부, 2009).

서해도서를 포함한 DMZ 일원의 야생포유동물은 2007년 문화재청⁶³⁾ 등이 발표한 문헌상 6목 17과 51종이 있으며 이중 사향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62) ICOMOS-KOREA(2018), "DMZ의 유산적 가치", 2018년 4차 이코모스포럼, 34-35쪽.

63) 문화재청 홈페이지.

점박이물범 등 6종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늑대, 시라소니, 호랑이, 표범은 멸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도 서부지역 15종, 중부지역 32종, 동부지역 31종으로 중부와 동부지역이 많은 남북강원도에 많이 서식함을 알 수 있다.

DMZ의 조류도 서부지역 14목 39과 180종이며 중부지역에 14목 46과 175종이며 동부지역에 16목 46과 189종이고 해안을 포함하여 고성군의 설악권과 금강권의 중심지역인 고성군의 조류가 158종으로 가장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는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등 31종으로 발표하고 있어 강원권 조류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조두순⁶⁴⁾에 따르면 남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식물상은 동부전선(강원도 고성-인제-양구), 중부(화천-철원-연천), 서부(포천-김포-강화-옹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중 본연구와 관련된 동부전선의 식물상은 120과 541속 1,268종 4아종 244변종 46품종 8잡종의 총 1,570종류인데 비해서 DMZ 일원 중부지역의 식물상은 121과 480속 919종 159종 24품종의 총 1,102종류이고 서부지역은 129과 525속 1,113종 1아종 149변종 13품종 2잡종의 총 1,278종류로 나타나서 지역별로 볼 때, 동부지역이 타 지역 보다 월등하게 다양한 식물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강원도의 DMZ의 생태자원이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인접하고 한반도의 중심생태 벨트인 설악권과 금강산권의 생태자원의 다양성과도 비슷한 결과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DMZ 일원의 한국특산식물은 개느삼(Echinosophore)과 금강초롱(Hanabusaya) 등 2종의 한국 특산속 식물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조사는 지뢰와 민간인 통제가 되어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동안 강원지역의 생태조사는 2000년 고성군의 동해북부선구간이 최초이며 다른 지역도 1990년 말 관문점주변, 2000년 초 파주시 경의선구간, 2009년 파주, 연천, 철원의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조사되었을 뿐이다. 조두순 등(2018)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내의

64) ICOMOS-KOREA(2018), “DMZ의 유산적 가치”, 2018년 4차 이코모스포럼, 34쪽.

산림은 산불로 인하여 교목의 밀도가 낮았고, 많은 곳은 아카시아나무가 산불의 피해로부터 맹아하여 재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비무장지대의 절반은 2차림이고 나머지 반은 과거의 목논에 형성된 장경초지로 구성되었다.’고 보고한 내용에서 비무장지대의 산림은 생태적 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초지의 경우 대부분 물억새 군락이며 일부 저지대에 달뿌리풀군락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도 대부분의 경우 위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하며 중동부 일부의 능선부에 소나무군락이 산불의 피해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 생태자원의 종다양성의 가치는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남북의 비무장지대(DMZ)의 지뢰 등의 전쟁시설(지뢰 등)은 전 지역 제거는 생태계 및 환경파괴가 우려되는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조두순, 2018). 따라서 DMZ(비무장지대)는 전쟁으로 파괴된 곳(전쟁 및 반복된 산불 그리고 향로봉 등 보전지역 등)에서 생태계가 복원되어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다. 즉 DMZ(비무장지대) 남북 폭 4km에는 전쟁으로 파괴되고 휴전이후 반복된 산불로 생태자원은 자연성을 상실하여 인위적으로 관리되어 옴에 따라 생태자원의 보존가치는 높지 않다. 그러나 남북강원도의 일부 향로봉지역과 대암산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자연생태계를 잘 간직하고 있어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세계유산(자연유산) 등재기준 (viii), (ix), (X)항목의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보존관리를 위한 비무장지대의 현행조치는 환경부의 자연유보지역으로만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국내법에 의한 환경부의 ‘DMZ천연보호구역’ 지정 및 문화재청의 ‘DMZ천연보호구역’을 통한 천연기념물 지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니면 ‘DMZ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남북한 국립공원으로 지정 및 금강산과 설악산의 국립공원을 확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들의 지정 및 등재는 현실적으로 남북지도자 및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각자 관할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합의하고 경계선을 정하여 월경유산(Transboundary Heritage)으로 등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된다.

3.3. 민통선 지역의 지질 및 생태자원 가치

민통선내 생태자원의 조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조사되어 군사적 목적으로 벌목과 산불 등의 영향을 받아 2차 천이의 초기생태자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중심지역인 백두대간인 남북강원도 동부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깊은 계곡이 많아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아서 원시림에 가까운 식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한 강원지역의 향로봉산맥은 남한의 최동북단의 산지로 향로봉을 중심으로 북쪽의 건봉산 남서측의 칠절봉(1,172m)지역으로 이 지역은 산악지형인데다가 민간인 통제로 잘 보전되어 있다. 이곳은 1973년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247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매우 많으며 고진동계곡이나 오소동계곡 등 원시성과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이 많아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⁶⁵⁾

강원도 양구군의 대암산, 대우산, 두타연 지역은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생태적 통로의 역할을 하는 향로봉산맥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군사분계선 이북에 위치한 무산(1,319m)과 매봉(1,290m)을 통하여 금강산권역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암산 정상부에 있는 용늪은 남한 최대의 고층습원으로 환경부지정 특정양생식물과 개마고원과 백두산 등 고산지대의 습지나 초지에서 나타나는 북방계 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⁶⁶⁾ 따라서 이들 지역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양구 등의 수입천은 북한지역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유하하여 두타연을 거쳐 과로호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이곳의 생태경관은 오랜 세월 천이과정을 거친 안정된 하천생태계의 구조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보존관리를 위한 비무장지대의 현행조치는 환경부의 자연유보지역으로만 지정되어

65) ICOMOS-KOREA(2018), 전게서, 37쪽.

66) ICOMOS-KOREA(2018), 전게서, 37쪽.

관리되고 있어 국내법에 의한 환경부의 ‘DMZ천연보호구역’ 지정 및 문화재청의 ‘DMZ천연보호구역’을 통한 천연기념물 지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니면 ‘DMZ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남북한 국립공원으로 지정 및 금강산과 설악산의 국립공원을 확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남북의 비무장지대(DMZ)의 지뢰 등의 전쟁시설(지뢰 등)은 전 지역 제거가 생태계 및 환경파괴의 우려가 되는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조두순, 2018), 이 지역의 보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들의 지정 및 등재는 현실적으로 남북지도자 및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각자 관할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합의하고 경계선을 정하여 월경유산(Transboundary Heritage)으로 등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들의 세계화를 위한 평가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자원 및 인위적 간섭에 의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내용 그리고 전쟁과 휴전의 시설인 격전지 고지들, 지하병카 및 동굴, 군사 분계 철책, GP 등 방호시설, 군사지휘시설, 남북한 민간인 통제구역, 기타 방호시설 등을 들 수 있다.

4. 남북 강원권 유산의 가치 발굴 종합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강원도 유산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기준하여(i~x항)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강원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자 진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종합할 수 있다.

1. 백두대간 남북강원권 중심유산은 국경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서 세계유산 등재 방법은 한반도 통일 이전에는 월경유산(Transboundary Heritage)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남북강원유산은 남북강원도의 설악산(자연유산)과 금강산(복합유산 추정)이 2019년 7월 현재 유네스코 잠정유산에 등재되어 있어 세계유산 등재 시 '1년 전에 반드시 해당유산이 세계잠정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적합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 이들 두 유산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DMZ) 등의 등재는 아직 잠정유산에 등재되지 않았고 남북 간의 정치적 판단 등의 난제를 안고 있어 남북 강원도 각각의 유산을 월경유산으로 등재 하고 추후 DMZ를 포함하는 방안이 우선한다.

3. 백두대간 강원권유산은 한국인의 자연관과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선사유적 및 건조물(산성, 절터, 탑, 불상, 명승사찰 등)의 입지와 경관 그리고 조영방법 등이 자연자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조영 및 경관관리의 독특한 방법이 탁월하여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 (iii), (iv) 항목에 준하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남북 강원유산 중 「금강산도」, 「설악산도」, 「총석정도」, 관동팔경 등의 많은 기록이 남아 있고 이들 화풍은 한국의 대표적인 18세기 진경산수화 동양산수화의 본고장이며 시인, 화가, 사진가의 매혹 공간으로 우리나라 화풍 문화에 의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 등재기준 (ii)항과 (iii)항 그리고 (iv)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검증 및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석호와 관동팔경의 경우 난개발로 소멸 될 수도 있어 (v)항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가 요구된다.

5. 백두대간의 강원권유산의 지형은 해양성기후대와 대륙성기후대가 만나는 공간으로 해발고도 2,000m의 화강암 용기된 험준한 지형 그리고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 변형 지형으로 만물상(1만2천봉), 석호 등의 가치와 기온, 강수량, 골바람(양간지풍) 등 경관적 가치와 계절적 변화 등의 지형적 가치를 갖추고 있어 등재기준 지형과 경관의 (vii)항과 지질의 (viii)항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6. 백두대간의 생태계는 온대남부계통과 아한대성 식물로 금강산권에서 확인된 식물은 고등식물 1,228종과 양치류 67종류, 나자식물 15종류, 피자식물 1,446종이 있어 한반도식물의 55%차지하며 척추동물은 390종이 서식하여 종다양성의 지역으로 등재기준 (ix)항의 적용이 가능하며 금강인가목속, 산양노루, 반달가슴곰, 외금강반생이 등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있어 이들에 대한 보존을 위한 등재기준 (x)항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7. 잠정유산 등재시 설악산은 자연유산내용으로, 금강산은 복합유산으로 등재 추진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남북강원도 유산의 가치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적 가치가 모두 높게 나타나 세계유산 등재 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양쪽을 포함하는 복합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8. DMZ유산 지역은 2018년 동부전선의 동해안 철책의 감시초소(GP)가 근대유산(등록문화재)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민간인 통제선의 안의 금강산 건봉사, 일제강점기 연습림 등에 의해 문화유산 우리만의 문화가치항목인 (iii)항과 인류의 마지막 대치공간으로 내용으로 (v)항의 적용이 가능하며 향로봉지역과 대암산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있고 동부전선이 서부보다 동식물의 분포가 높아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세계유산 등재기준 (ix), (X)항목의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과 시설 등에 대한 세계화를 위한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반영하여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ii), (iii), (iv), (v), (vii), (viii), (x) 등의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와 같은 세계유산등재 기준에 의한 연구는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의 가치기준의

차이와 진정성 그리고 유산의 완전성 등의 검토에서 견해를 달리하여 실제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시 많은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간 원권 유산적 가치를 검증이 가능한 유산들을 검증과 진정성 그리고 완전성 확인의 절차를 추후의 과제로 하고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위와 같은 진정성 검증 및 완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세계적 석학의 참여와 남북한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문화유산등재 평가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자연유산 평가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등이 함께 하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 추진이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깊이 참여했던 조선왕릉이 (ii), (iii), (iv), (vi)항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유네스코 최종심의 결과는 (iii), (iv), (vi)항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⁶⁷⁾ 일본의 후지산(富士山)이 복합유산으로 신청하였다가 다시 자연유산으로 또다시 문화유산으로 등재 변경 신청하여 후지산이 최종 ‘후지산(富士山), 성스러운 장소 그리고 예술적 영감의 원천’의 주제로 등재기준 (iii)과 (vi)항에 의해 문화유산의 항목에 의해 등재됨을 볼 때 등재기준에 의한 평가 및 항목설정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연구자 및 평가자에 의한 항목은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어 국내전문가는 물론 국제전문가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세계화 방안을 도면화 하면 아래 도면과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

67) 대한민국(2007), 조선왕릉 세계유산등재신청서(한글본), 9쪽.



자료 : 필자 작성

<그림 IV-52> 남북강원도의 세계화를 위한 구역 개념도
(백두대간 생태보호구역, 국립공원, 향로봉-건봉산, 관동팔경, DMZ 등)

V

남북 강원권 유산의 보존과 관리방안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남북한의 정부가 협약을 통해 통합된 ‘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세계유산보존법’, ‘국가환경관리보호법’, ‘국가환경관리 생물다양성법’, ‘자연보전관리법’,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 등의 정책 등이 제정되어 공동 관리 되어야 한다.

이들은 법 규정에 따라 세계화된 유산의 경계 안팎에서 실시하는 모든 개발 사업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되어야 하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모든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간주하여 중심구역으로 보존관리 되기 때문에 핵심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누어 남북한의 실정에 맞는 법적제도화 및 양국의 협약을 통한 대책이 요구된다. 물론 남북한의 유산은 국경이 다른 월경유산이므로 남측과 북측의 유산보존법을 준수하며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유산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정한 개발 등은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협약 또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및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의 헌장과 선언 등의 내용을 준수하며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기존의 법규와 세계유산보존관리 기준 등에 대한 법률제정의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국제적 수준의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책임지고 있어야 한다.

VI

결론

남북강원도유산의 세계유산등재는 한반도 통일 이전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월경유산(越境遺産)의 성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강원도의 공동추진단 및 공동연구 등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앞서야 한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강원도 유산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기준하여(i~x항)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강원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자 진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1. 백두대간 남북강원권 중심 유산은 국경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법과 한반도 통일 이전에는 월경유산(Transboundary Heritage)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남북강원유산은 남북강원도의 설악산(자연유산)과 금강산(복합유산 추정)이 2019년 7월 현재 유네스코 잠정유산에 등재되어 있어 세계유산 등재 시 '1년 전에 반드시 해당 유산이 세계잠정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적합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 이들 두 유산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DMZ) 등의 등재는 아직 잠정유산에 등재되지 않았고 남북 간의 정치적 판단 등의 난제를 안고 있어 남북 강원도의 각각의 유산을 월경유산으로 등재 하고 추후 DMZ를 포함하는 방안이 우선한다.

3. 잠정유산 등재 시 설악산은 자연유산내용으로 등재 추진되었으며, 금강산은 복합유산으로 등재 추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북강원도의 유산은 세계유산 등재기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양쪽을 포함하는 복합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강원도의 각각의 유산을 공동으로 월경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강원도의 유산은 세계유산 등재기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양쪽을 포함하는 복합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강원권문화유산은 한국인의 자연관과 문화적, 종교적, 대표적 회화 등 생활상을 볼 수 있으며 조영방법 등이 자연자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조영 및 경관관리의 독특한 방법이 탁월하여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 (iii), (iv) 항목에 준하며

남북 강원유산 중 금강산도, 설악산도, 관동팔경 등의 많은 기록이 남아 있고 이들 화풍은 한국의 대표적인 18세기 진경산수화, 동양산수화의 본고장이며 시인, 화가, 사진가의 매혹 공간으로 우리나라 화풍 문화에 의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 등재기준 (ii)항과 (iii)항 그리고 (iv)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검증 및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관동팔경의 경우 난개발로 소멸 될 수도 있어 (v)항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가 요구된다. 해양성기후대와 대륙성기후대가 만나는 독특한 지형에 해발고도 2,000m의 화강암 용기된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 변형 지형으로 만물상(1만2천봉), 석호 등의 가치와 기온, 강수량, 골바람 등의 지형적·경관적 가치와 계절적 변화 등의 지형적 가치를 갖추고 있어 등재기준 지형과 경관의 (vii)항과 지질의 (viii)항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온대남부계통과 아한대성 생태계로 고등식물과 양치류, 나자식물, 피자식물 등이 한반도 식물의 55%차지하며 척추동물은 390종이 서식하고 있어 종다양성의 지역으로 등재기준 (ix)항의 적용이 가능하며 금강인가목속, 산양노루,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의 산양과 반달가슴곰, 금강산반생이, 금강산 금강초롱 동식물이 있어 이들에 대한 보존을 위한 등재기준 (x)항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강원권 DMZ유산은 동부전선의 험한 산악지형으로 감시초소 등이 독특하게 조영되어 철책의 감시초소(GP)가 근대유산(등록문화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인 통제선의 안의 금강산 건봉사, 일제강점기 연습림 등에 의해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문화유산의 가치항목인 (iii)항과 인류의 마지막 대치공간과 관동팔경, 석호 등의 훼손이나 소멸대상의 보전을 위한 내용으로 (v)항의 적용이 가능하며 향로봉지역과 대암산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있고 동부전선이 서부보다 동식물의 분포가 높아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기준 (ix), (x)항목의 검토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등재 가능성을 전제로 유네스코가 등재기준(i 항~x 항)을 만들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평가 등재 권고의 절차를 밟는 현행 세계유산제도에 의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정부의 이해와 협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어서 남북강원도의 유산에 대한 공동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학술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이들의 검증과 확인을 위한 위원회 등의 결성 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 간의 관리보존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ICOMOS-KOREA(2010), 「이코모스 현장·선언문집」,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 ICOMOS-KOREA(2018) “DMZ의 유산적 가치”, 「2018년 4차 이코모스포럼」.
- 강원도(1941), 「강원도지」일제강점기, 강원도.
- 강원도(2008), 「동해안 석호 환경 보전 방안」, 강원도.
- 강원도(2009), 「동해안 석호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생태계정밀조사연구 및 관리방안」.
- 건설교통부(2002), 「지형도」.
- 경기도(2019), “경기도,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회학술심포지엄.
- 공우석(2002), “북한 자연생태계의 생물지리적 특성”, 「환경영향평가 11」.
- 공우석(2007), 「생물지리학으로 보는 우리식물의 지리와 생태」, 지오북.
- 국가지질공원사무국(2017), 「한국의 지질공원」, 북센스.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2012), 설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 권오길(2018), 「이야기가 있는 강원 동물」, 강원학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기근도(2002), “자연지역으로서의 태백산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8(4).
- 김건곤·김태환·어강석(2016), 「동국여지승람 제영사전:산천편」,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영봉(2010),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DMZ의 활용”, 「통일과 평화」 2집.
- 김자애 외(2001), “동해안 석호에서 군개 간척습지의 식생 구조”, 한국생태학회지.
- 김창환(1998),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금강산 주요 명승지의 지형학적 해석”, 「사진지리」 9.
- 김창환·홍성익·이학주(2018), 「이야기가 있는 강원 강」,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김창환·홍성익·이학주(2018), 「이야기가 있는 강원 산」,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김창환·홍성익·이학주(2018), 「이야기가 있는 강원 해안」,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김철민(2002), “북한의 금강산 자연보호구”, 『월간 임업정보』 132.
- 동국대북한학연구소(2006), 『DMZ생태와 한반도 평화』, 아카넷.
- 대한민국(2007), 『조선왕릉 세계유산등재신청서』(한글판), 9쪽.
- 라용철 외(2010), 『금강산자연공원』, 농업출판사.
- 문화재청(2015), “설악산-금강산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및 추진 방향 도출 연구용역”, ICOMOS-KOREA.
- 문화재청(2015), 『천연기념물센터, 명승 및 경관자원조사연구 및 DB구축』, 천연기념물센터.
- 박우일·림추연 등(2005),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 법제처(2019), 『문화재보호법』.
- 손기웅(2008),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방안』, 강원연구원.
- 송교영·박승익·조동룡(2011), 『속초양양도폭 지질조사 보고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유흥준외(1991), 『금강산』, 학고재.
- 이수재 외(2015), 『국내산지능선의 지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영근(2014), 『DMZ일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 및 관리방향』, 국립산림과학원.
- 李永宣(2003), 『금강산건봉사적』, 동선법문전국염불만일회.
- 이우철·임양재(2002), 『식물지리』, 강원대학교 출판부.
- 전성우 외(2003), 『DMZ일원의 환경보전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조두순(2018.11월29일), 『2018년 4차 이코모스포럼, “DMZ의 유산적 가치”』, 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세미나 자료.
- 최규태(1999), 『한국관광자원론』, 대왕사.
- 홍문표·이호준·전영문·홍보람(2010), “강원도 설악산의 식물상”,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4(4).
- 홍순직(201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DMZ경제적 활용”, 『통일경제』 2012-2.
- 환경부(2005), 『비무장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 보도자료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건봉사(<https://www.geonbongsa.org>)
- 관광지도(www.routemap.co.kr)
- 국가지식포럼 북한지역 정보넷(www.cybernk.net)
- 국립민속박물관(<http://www.nfm.go.kr>)
- 국립산림과학원(<http://know.nifos.go.kr>)
- 산림청(<http://www.forest.go.kr>)
- 국립수목원(<http://www.kna.go.kr>)
-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
- 멸종위기종 홈페이지(<http://www.korearedlist.go.kr>)
- 문화재청(<http://www.cha.go.kr>)
- 국가문화유산 포털(<http://www.cha.go.kr>)
- 서울대 박물관(<http://museum.snu.ac.kr>)
- 양양군청(www.yangyang.go.kr)
- 위키백과(ko.wikipedia.org)
- 유네스코 세계유산리스트(<https://whc.unesco.org/en/list>)
- 인제군청(<http://www.inje.go.kr>)
- 인터넷포털 구글(<https://www.google.co.kr>)
- 인터넷포털 네이버(<https://www.naver.com>)
-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http://portal.nrich.go.kr>)
- 한국관광공사(www.visitkorea.or.kr)
- 한국의 산하(<http://koreasanha/index.html>)
- 한국학중앙연구원(www.aks.ac.kr)
- 환경과 조경(<https://www.lafent.com>)
- 환경부(<http://me.go.kr>)
- 환경연구종합정보포털(<http://www.nier.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 KBS뉴스 : 국립생태원(2019. 5. 9.)
- 매일일보 : 강원도,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MOU 체결(2019. 7. 11.)
- 연합뉴스 :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동부전선에 문화재청 근대유산으로 지정된 감시초소(GP)(2019. 5. 19.)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co.kr>

Abstract

Understand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Kangwon-do Heritage in South and North Korea

Lee, Chang-Hwan, Jeong, Ki-S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outstanding and universal values (OUV) of the heritage in Gangwon-do (Gangwon province), located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register it as a World Heritage. The heritage of Gangwon-do, South and North Korea, was reviewed and analyzed bas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Registration Standards (i~x).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clude: 1) the heritage of the inter-Korean Gangwon Province is relatively promising to be registered as a World Heritage since the South's Seorak and the North's Geumgang River islands have already been listed as World Heritage sites; 2) Prior to unification of Korea, it will be desirable to be listed as a Transboundary Heritage; 3) it is desirable to promote the heritage in Gangwon-do as a complex heritage that combine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4) it is advisable to approach serial nomination considering current separated management authorities; 5) Other areas such as the DMZ should be listed later, depending on the political atmosphe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남북 강원도 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자원 및 가치 발굴에 관한 연구

Understand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Kangwon-do Heritage in South and North Korea

2019년 12월 인쇄
2019년 12월 발행

발행인 : 육동한
발행처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전화 : (033) 250-2980
홈페이지 : <http://www.gangwonstudies.re.kr>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 강원도 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자원 및 가치 발굴에 관한 연구

Understand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Kangwon-do Heritage in South and North Korea

이창환

Lee, Chang-Hwan

약력

한양대학교 공학석사, 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
(현)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정기성

Jeong, Ki-Seong

약력

경희대학교 경영학석사, 배재대학교 경영학박사
(현) 상지영서대학교 명예교수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TEL. 033-250-2980, 2983
<http://www.gangwonstudies.re.kr>

ISBN 978-89-5705-757-5 93910

